



4

주체 89 (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4호

(루계 제 630 호)

## ◆◆◆◆◆◆◆◆◆◆ 차 례 ◆◆◆◆◆◆◆◆◆◆

봄의 고향 만경대 .....	4
평양백살구 .....	5
위대한 령도자 .....	7
동지에 대한 추억 .....	8
압록강기슭의 추억 .....	20
명언해설 .....	23
해삼대 .....	24
장군님의 전선길 .....	26
한떨기 진달래꽃을 보시 고도 .....	27
태양의 미소 (외 1 편) .....	28
우리들의 고향집 .....	28
우리 아버지 .....	29
총대는 우리의 운명 .....	30
오늘도 그 모습앞에 .....	32
만강에 올려퍼진 《사향가》 .....	33
고향별에 울리는 발동소리 .....	34
사랑의 바다, 생활의 탐구 .....	35

봄안개 흐른다 .....	40
특이한 《화형식》 .....	47
신한번째 .....	48
총의 력사 .....	54
집에 대한 생각 .....	55
해병의 작은 수첩 .....	56
우리 시대의 요구와 참된 당일군의 형상 .....	57
병사의 가슴속에 설레는 나무 .....	61
꺼지지 않는 메아리 .....	62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유선 TV 방송 .....	70
초석 .....	71
나는 지금 태천땅에 서있다 (외 1 편) .....	79
장산리라 오리골에 .....	80

# 봄의 고향 만경대

리명근

4 월과 함께

봄이 시작되어

사철 봄을 안고사는 땅

만경대

우리 수령님 탄생하신

잊을수 없는 그해 봄부터

여기선 봄이 꽃피나

꽃이 지지 않는다

봄이 가지 않는다

얼마나 아름다우나

이 환희로운 땅에선

꽃은 꽃중에도 더 곱고

새는 새중에도 더 귀여운

그래서 봄썩이 돌는 소리마저

귀기울여 들리는구나

어둡던 강산

짓밟힌 내 나라에

해방의 봄을 주려고

그해 4 월은

하늘이 땅에 준 영원한 봄세월

그 봄날이 있어

해방된 이 강산에

건국의 새 봄은 꽃피고

그 봄이 있어

승리한 이 강산에

창조와 건설의 봄향기 풍기였거니

이 나라 이 민족

그 누구의 운명과도

떨수 없이 이어진 만경대

인생의 삶이 꽃핀곳이여

조국이 걸어온 걸음걸음에

깊은 인연을 맺은

만경대의 봄이여

세월이 무궁토록

영원할 봄의 고향이여

이 봄의 하늘이시고

이 봄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 탄생하신 여기

위대한 력사의 성지에서

봄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우러러 우러러 부르며 목메이나니

이것이 영생이구나

끝없이 피어웃는 봄꽃

끝없이 흐르는 꽃물결

가지 않는 4 월을 안고사는

천만의 하나같은 봄마음...

아, 봄의 고향 만경대

봄이 없인 노래할수 없는 만경대

봄이 없인 그 이름도 없을 만경대

이 세상 모든 봄을 거느린

봄의 어머니 봄의 요람이여

봄과 함께 영원할 만경대여!

## 평양백살구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백살구라고 하면 의례 회령백살구가 유명하여 그것을 특별히 일러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평양백살구라는 새로운 품종이 생겨나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랑을 받고있는데 평양백살구로 말하면 그 어느 식물학자가 연구한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원에서 몸소 키우시며 육종하신 새로운 품종이다.

수령님께서 하신 일은 만이면 만가지 다 우리인민들속에 뜻깊은 전설로 남아있으니 이 평양백살구 이야기도 사람들속에 파다하게 퍼져간 전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금수산의사당의 정원에 손가락굵기의 애 어린 살구나무모들이 처음으로 심어진것은 주체73년 가을이었다고 한다.

그 모들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공식친선방문하고 돌아오신 그해에 어느 한 나라에서 보내온것이였다.

그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근 50일간에 걸치는 장장 6만여리의 기나긴 외국방문로정을 성과적으로 마치시였다.

귀로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렬차가 지나는데 모든 도시들과 역들마다에서 여러 나라 민족들이 자기들의 땀속에 따라 열렬한 환호로 맞이하고 전송하였다.

렬차는 훈룡강을 건지고 씨비리를 지나고 우랄산과 볼가강, 두나이강을 거쳐 유럽의 한복판을 꿰질러 마케도니아의 옛터전을 에돌아 지구의 절반땅을 달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귀로에 오르시여셔도 겹쌓인 피로를 푸실 대신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렬차가 몰다비야의 국경역인 운게니를 떠나 이웃 나라의 수도에 도착한 때에는 친히 렬차에서 내리시여 그 나라의 간부들과 포옹하시였으며 그 나라 인민들의 지성이 어린 빵과 소금 그리고 과일바구니도 받으시였다.

과일바구니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준비한 향기그윽한 살구와 양벚이 들어있었다.

살구와 양벚이 그 나라의 특산물이라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수확적이기 아니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귀로에 오르시여 자기고장을 통과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특산물을 대접해드리기

위하여 제일먼저 익은 살구와 양벚을 알알이 골라 과일꽃바구니를 이렇듯 성의있게 마련한것이였다.

그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신후 렬차에 오르신 수령님께서서는 동행한 수원들에게 어서 살구맛들을 보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도 살구를 맛보시고 《살구 맛이 참 좋습니다. 이 살구나무모들을 가져다 우리 나라에 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한알의 살구를 맛보시여도 조국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에 가슴후더워움을 금치 못하며 수원들은 수령님의 그 뜻을 곧 대사에게 전하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에 의하여 이해 11월에 그 나라에서 보낸 살구나무모들이 금수산의사당의 정원에 심어지게 된것이였다.

이러한 나무모가 심어지자 일군들과 원예사들은 그 나무가 어서 빨리 무럭무럭 자라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였다.

그러나 나무모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시원스레 자라지 못하였다.

매일아침 물을 주고 복을 돌구어주며 온갖 정성을 다 쏟는데도 잎사귀가 가드라들기만 할뿐 키도 별반 자라지 못했다.

원예사로인은 물론 나 어린 교환수처녀들까지 눈물이 글썽하여 나무곁에서 떠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에 그 나라 공산당중앙위원회는 자기 공화국에서 보낸 살구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자면 여러해 걸려야 한다고 하면서 당지도부의 명의로 여러 지함의 살구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왔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선물을 가지고온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살구를 먹이기 위해 그 나무들을 정원에서 키우고있는데 함께 나가보자고 하시였다.

일군들과 원예사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한 살구나무를 어버이수령님께 보여드리게 된것이 죄송스러워 모두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히려 어린 나무를 대견스러운 눈길로 보아주시였고 푸른 잎새들을 만져보시며 이쯤하면 이 나무들이 우리 땅에 뿌리를 든든히 내린것 같다고, 이제 얼마 안있으면 우리 인민들에게도 맛좋은 살구가 차례질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이 이 나무때문에 애를 먹는다는데 이제부터는 자신께서 아침저녁으로 이 나무를 키우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결에서 그 말씀을 듣고있던 손님은 수령님께 이런 말씀을 올리였다.

《주석동지의 높은 뜻에 실로 머리가 숙어집니다. 하지만 이 나무모들은 아직 몹시 어리니 언제 그 열매를 따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맘때마다 살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으니 정성을 다하면 이 나무도 그만큼 빨리 열매맺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살구나무가 어서 자라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온 나라에 퍼져 우리 인민들모두가 맛보게 될 그날을 그려보고계셨던것이다.

손님들은 그이의 인민들에 대한 친어버이사람에 깊은 감동을 안고 돌아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를 돌아보신 다음날 원예사가 이른아침 살구나무들을 돌보러 나가니 정말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먼저 나오시여 나무에 물을 주고 복을 돌구어주며 가꾸고계시였다.

《원예사동무, 어서 이리 오시오. 어떻게? 나무가 하루밤사이에 퍼그나 자란것 같지 않소?》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원예사는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병든것처럼 기를 펴지 못하던 어린 살구나무가 하루밤사이에 한뼉나마 자랐고 가드라들던 잎사귀들은 언제 그랬느냐싶게 손바닥처럼 짙 फै쳐져있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그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눈여겨보고 또 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으니 그때부터 살구나무는 날마다 알아보기 어렵게 무럭무럭 자라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나무를 돌보시기만 하면 다음날 나무가 부쩍 자란것이 눈에 알릴 정도였다.

너무도 신기한 사실이어서 일군들과 원예사들은 그 나무앞에 오면 언제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자못 신비스런 생각까지 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나무에 어떤 신비스러운 약을 주신것은 아닐가?)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무를 가꾸시는것을 여러번 보아도 별로 특이한 방법을 쓰시는것 같지는 않았다.

그랬으나 나무는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커갔고 손바닥만한 넓은 잎사귀들이 푸르름을 자랑하며 설레였다.

《아니, 이 나무가 작년에 우리가 보고간 그 나무란 말입니까?》

이것은 살구나무를 가져온 나라 손님들이 다음해 살구지함을 가지고 평양에 왔다가 한 말이였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장소, 그 나무가 틀림없었던만 무슨 비결이 있었기에 일년사이에 나무가 이토록 자랐단 말인가.

외국손님들이 놀라와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조차도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기때문이였다.

이렇게 두해가 지났을 때 키높이 자란 나무앞에 다시 선 그 나라의 손님들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이 나무가 과연 몇해전의 그 나무들이 틀림없단 말인가?)

그들은 살구나무앞에서 오래도록 떠날줄 몰랐다. 자세히 살펴보니 어딘지 나무가 커가면서 잎새의 모양도 달라지고 키는 비록 다 자라지 않았어도 래년이나 래후년이면 능히 열매가 달릴것 같았다.

우리 일군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 나무모를 가꾸시던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비상한 관심을 돌려오시였다는것을 전달받은 그들이었던만 생각할수록 신비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였다.

드디어 어느 봄날에는 일시에 흰꽃들이 뭉게구름마냥 피어나더니 이어 콩알만한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였다.

지금껏 신비하게만 생각해온 나무였으나 정작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 모두가 가슴을 두근거리며 열매모양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아침저녁으로 지켜보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수원들의 마음을 아시는듯 가끔 나무에 맺힌 열매들을 보시며 못내 즐거워하시였다.

하루이틀이 가고 한달이 지나 5월에 접어들면서부터 열매는 살이 올라 거의 닭알만큼씩이나 크게 자랐다.

드디어 살구수확기가 왔다. 이해에도 외국의 손님들이 또다시 살구지함을 안고 우리 나라로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 걸음에 그들은 금수산의사당의 정원에서 자란 살구를 맛보게 되는 행운을 지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손님들에게 어서 정원에서 자란 살구를 맛보이라고 하시였다.

알알이 잘 익은 흰빛의 살구는 그야말로 보기에 도 으뜸이요 먹기에도 최상이였다.

정원의 살구는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살구보다 알이 더 컸을뿐아니라 그 맛도 비할바 아니게 꿀같이 달았었다.

그들은 신기한 살구나루앞에서 어리둥절해있다가 아버지수령님께 주저없이 말씀드리었다.

《주석동지, 어떻게 이 살구나루를 가꾸었는지 신비스러운 비결을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실수 없습니까?!》

수령님께서는 그 물음에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나에게 무슨 비결이 따로 있겠소. 맛이 좋다니 나도 기쁩니다. 그 비결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이 살구를 우리 인민들이 언제면 모두 맛보게 될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무를 가꾸었을뿐입니다.》

그이의 겸허한 이 말씀에 손님들은 자못 걱정에 넘쳐있었다.

《과시 인민을 하늘처럼 위하시는 위대한 성인의 손에서는 초목도 이렇듯 비상한 열매로 되고 보물처럼 빛나는것이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주먹만큼 알알이 여문 살구를 보시며 둘러선 수원들에게 몇해전 동유럽을 방문할 때 가져온 그 모가 이젠 이렇게 자라 귀한

열매를 맺었다고, 이제는 이 나무를 온 나라에 다 심게 하자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민들도 맛좋은 새 살구를 먹게 되겠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 열매는 그 나라의 살구보다 알이 크고 빛갈도 더 희다, 회령에 백살구가 있으니 이것은 《평양백살구》라고 이름다는것이 어떤가고 물으시었다.

수령님의 그 물으심에 일꾼들모두가 열렬한 찬동을 표시하였다.

정말로 《평양백살구》는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지사랑이 뿌리가 되어 내리고 그 사랑이 줄기가 되어 자라고 그 사랑이 잎이 되어 설레고 그 사랑이 꽃으로 피어 열매가 맺어진 이 땅에 새로 태어난 전설적나무였다. 오늘도 평양백살구나루는 해마다 봄이 오면 금수산기념궁전의 정원에서부터 온 나라의 산과 들 어디에나 꽃을 활짝 피워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치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자아내고있다.

김우경

## 위대한 령도자

### 에르난 알타미라노 팔꼬니

김정일 그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주석의 혁명사상에

끝없이 충실하신분

김정일 그이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제힘으로 새 력사를 창조해가는

근로대중의 기수

김정일 그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총비서

주체사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조직을 이끌어나가는분

김정일 그이는

인민대중에게 충실하신분

언제나 휴식을 모르시며

당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계시여라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필자는 빼루사람임)



## 동지에 대한 추억

권정웅

밤.

비가 내리고있다.

며칠전부터 줄창 내리는데 좀체로 멎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여느때같으면 소쩍새가 울무렵이면만 숲이 온통 물안개에 잠겨있다.

집무탁에서 물러나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팔을 쭉쭉 벌리면서 가슴을 내밀기도 하고 창문가에 다가서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기도 하시였다. 오래동안 사색에 잠겨여있거나 펜을 들고 몇시간씩 글을 쓰노라면 어깨가 무거워지고 자리가 편안치 않아지신다. 그럴 때면 이렇게 오금을 놀리며 방안을 거닐거나 창가에 다가서서 심호흡을 하면 인차 기분이 맑아지면서 이제 써야 할 다음장면들이 선히 떠오르군하시는데것이였다.

방금전까지 그이께서는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한 문건을 보시고 그에 수표를 하시였다. 며칠동안 시간을 끌며 생각하던것인데 그것을 락착짓고보니 기분이 한결 개운해지시였다.

그이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집필에 대한 구상을 다시 더듬고계시였다. 6권까지 출판에 넘기였으니 이제는 다음권을 준비해야 하시였다. 항일혁명편은 앞으로 한권이나 두권으로 끝낼 계획인것이다. 이제 중요한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에 따르는 하바롭스크회의였다.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여 항일혁명의 전략적방침들을 새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치, 군사적활동을 전개한 대목인것이다.

회고록이라고 해야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대고 그 어떤 놀라운 말을 하거나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희귀한 자료를 꺼내보이자는것도 아닌것이다. 그저 이전에 있었던 실지 사실을 그냥 그대로 서술하자는것이니까 별로 고심할것은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어지간히 흐르다보니 기억이 삭막한것도 적지 않고 또 어떤것은 당사자들과 토론해야 할것도 있었으나 그나마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당시 형편으로서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해서 그것을 낱말이 적어둘수도 없었거니와 이제는 그 관계자들이 얼마 남지도 않은것이 가장 큰 고충이다. 그러니 더더욱 자신이 어떻게 하나 당시의 사적을 얼마간이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것이 지금 내고있는 **《세기와 더불어》**이다. 두해전에 1, 2권을 내놓았으니 붓을 들기는 그 전전해였으니까 벌써 할잡아도 5년이라는 세월이 휘딱 지나간셈이다.

어쨌든 서둘러야 하였다. 마음은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붓이 따라서지 못한다. 그런대로 한절한절 툭어나가서 그것이 장으로 묶어지고 그것이 또 한권의 책으로 완성되면 그 쾌감이란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것이다. 이에 대한 기분을 어떤 사람들은 애기어머니의 산통에 비기고있는데 정작 체험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수궁이 간다.

하기야 산통이 없는 새 생명이란 상상도 할수없는 일이 아닌가. ...

한동안 사색에 잠기시였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창가에서 물러서서 집무탁이 놓인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렇지. 그때 일은 김책이가 잘 알고있지. 김책이!)

이렇게 혼자소리를 뇌이시며 그이께서는 집무탁 한쪽옆에 놓인 가방을 집어드시였다. 거기에는 항상 금고에 보관하던 김책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가방에서 서류봉투를 꺼내시였다. 봉투안에서는 눈부시게 흰 종이에 싼 사진 한장이 나타났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시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집무탁으로 다가가 탁상등앞으로 그 사진을 썩내대시였다.

김책이와 둘이 서서 찍은것인데 그것을 보는 순간 공화국을 창건한 뜻깊은 한해를 보내면서 몇몇 일군들과 함께 사진을 찍던 일이 생동하게 떠오르시였다. 김책은 원래 사진찍는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하공작을 오래 한 사람들의 체질이고 또한 굳어진 감정일수도 있었다. 그래그러치 사진을 찍을만한 자연스러운 기회가 생기는 경우에도 그는 되도록이면 그것을 거절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 그가 우리결을 떠난후에도 참고가 될만한 사진자료를 몇장밖에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김책은 어찌된 일인지 성근히 응해나서면서 매우 기뻐했었다. 그래그랬던지 항상 근엄해있기마련이었던 그 얼굴에도 어딘지 모르게 환희가 비껴있었던것이다.

**《김책동무! 우리가 처음 만났던것이 하바롭스크였지.》**

방안이 울릴만큼 그이께서는 높은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웁습니다. 1940년 겨울, 새해를 얼마 앞두고 하바롭스크교의 숲속에 있는 숙소에서였지요.》**



《그래 내 기억이 틀리지 않소. 그때 어떤 동무들은 시내의 어느 러관에 그냥 있자고 하는걸 내가 한사코 우겨서 우리 동무들이 교외에 있는 귀틀집을 꾸리고 거기에 류숙했었지.》

《웁습니다. 제가 그때 찾아간곳이 분명 송진내가 풍기는 귀틀집이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대변에 흥분을 일으켜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으시였다. 사진을 손에 든 그이께서는 방안을 계속 거닐으시였다. 크지 않은 한장의 사진은 살아있는 날짐승처럼 화닥화닥 소리까지 내였다. 몇마디의 대화는 분명히 환상이 가져온것이였다. 하지만 그 장면이 어떻게나 현실에서처럼 생동하였던지 벌써 반세기가 넘는 아득한 옛날 그때 장면을 직접 당하는것 같으시였다.

회고록의 순차를 더듬어나가다보니 제2차세계대전 시작과 관련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대일전략을 세우던 사실을 써야 하였다. 그것을 위해 군정간부회의가 있었고 국제당이 주관해서 쏘련이나 중국 동지들과도 협의하기 위해 하바롭스크에 모이게 되었던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 김책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회의본연의 용무보다 한전우를, 이를테면 하나의 혁명동지를 처음 만나게 된 그 장면을 회상하게 되신것이다.

×

숙소의 아침.

훈훈한 방안은 가뭇 고요에 잠기였다. 문을 열고 바깥에 나서기만 하면 씨비리의 사나운 바람이 당장 옷자락을 뜯어갈것처럼 갈개고있지만 **김일성** 동지께서 계시는 이곳 숙영소는 완전히 판세상같이 아늑하였다. 그리 넓지 않은 방안 한복판에 철관으로 말아붙인 난로가 별경게 달아있고 한켠에 놓인 책상우에는 책들이 몇권 쌓여있었다. 그리고 책상 한옆벽에는 커다란 조선지도가 걸려있었다. 그러다보니 결국 백두산밀영이나 그외 다른곳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사령부의 숙영소와 별로 다를바가 없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벌써 여기서 다섯째 바쁜 시간을 보내고계시였다. 쏘련동지들은 아무리 바빠도 한 열흘은 꼭 쉬면서 그동안의 피곤을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창문을 통해 비쳐드는 아침해살을 받으며 근간 출판물을 뒤적이고계시였다. 《쁘라우다》를 비롯한 이러저러한 신문들과 잡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현재 절정을 향해 치닫고있는 유럽전쟁에 대해 보도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것은 파죽지세로 나아가고있는 도이쉴란드의 공격이며 그를 하루빨리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인류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편집자의 의도가

잘 나타나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란 우연과 우연의 교차이며 연속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은 힘의 첨예한 대결로서 그 어떤 우연이나 기적을 바랄수 없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론리야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 대두한 파쑈의 광란 그리고 동방에서의 일본의 침략전쟁의 확대, 이것을 저지해야 하며 하루빨리 완전히 제압해야하였다.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항일혁명투쟁, 다시 말해서 조선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전략이 작성되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니 결국 20년대 후반기로부터 계산하더라도 근 20년가까이 무장을 들고 싸워온 우리 혁명을 이제 어떻게 더 적극화하여 승리로써 결속할것인가 하는 중대사가 눈앞에 놓여있다고 아니할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절박한 역사적과제를 안고있기때문에 이번 여기에 모이게 된 국제당이나 쏘련 군부 그리고 동북지구에서 무장활동한 중국의 지휘성원들과의 상봉은 신중한 고려가 돌려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동북의 흑룡강연안에서 활동한 동지들가운데는 우리 조선동지들도 몇명 끼워있을것이였다.

그래 결국 **김일성** 동지께서는 요새 하루하루를 깊은 사색의 세계에 잠겨계시지 않을수 없었다.

바람소리가 숲을 흔들어놓았다. 마치 바다가 세차게 설레이는것처럼 짜 하고 북에서 남으로 대기를 몰아가면서 나무가지들이며 꿈꿨 열어붙은 눈무지들을 사정없이 후려치고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들어올리었던 신문장을 탁자우에 내려놓고 창문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지동치는듯한 바람소리와 함께 아스라하니 들려오는 인적기를 느끼시였던것이다. 잠시 귀를 강구였지만 다음 순간에는 아무런 기미도 감각할수 없으시였다. 그러다보니 결국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있는 심리가 불러온 명백치 않은 환각이 아니었던가싶다.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그리신 그이께서는 다시 신문을 집어 들고 글줄로 시선을 달리기 시작하시였다. 한데 단 1분도 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마당쪽에서 둔탁한 발걸음소리가 들리였다. 《어?》 고개를 번쩍 드는데 나들문쪽에서 손기척소리가 나는것과 함께 문이 짹 열리였다.

《사령관동지, 경위대원 리을설이 말씀드릴만합니까?》

《뭐요, 어서 말하오.》

《김책동지가 오셨습니다!》

《뭐, 김책이!》

《저기 지금...》

**김일성** 동지께서는 손을 들어흔들고나서 벽장으로 다가가 외투를 벗기시였다.

(김책이가 왔단말이지... 얼마나 기다렸기에...)

허둥지둥 밖으로 나서는것과 함께 눈보라가 뽕얇게 앞을 가린 숲가를 바라보시였다. 수림속으로 감겨돌아간 좁다란 길쪽에 언뜻언뜻 사람그림자같은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곤한다.

그이께서는 리을설이더러 앞서라고 하고는 그의 뒤를 따라 달리다싶이 걸으시였다. 새벽녘에 자동차나 겨우 나들 정도로 한길의 눈을 치는것을 보았었는데 사나운 바람때문에 이제는 그 흔적조차 가려볼수 없게 되였다.

이윽해서 거리가 가까와지자 세명으로 이루어진 저쪽 방문객은 모두 손을 들어 흔들며 뭐라고 고향을 치면서 달려오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태롭게 걸려있는 방한모를 휘딱 벗어두고 그 생눈우를 달려나가고계시였다.

잠시후 랑쪽에서는 일제히 걸음을 툇 멈추었다. 거리는 불과 4~5m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도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손이나 발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치 빗어세운것처럼 그렇게 가뭇 고정되어버렸다. 그것도 단 몇초동안...

《김일성동지!!》

《김책동무!》

요란하고 감격에 겨운 고향소리가 추위에 짓눌렸던 숲속의 정적을 깨치는것과 동시에 사람들을 사정없이 한덩어리로 융합시켜놓았다. 처음에는 서로 허리를 굽혀보이더니 다음에는 와락 달려들어 어깨를 부둥켜안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빛에 그슬려져 거뭇거뭇해진 김책의 볼에 대고 얼마간 얼굴을 맞비비더니 다음에는 어깨를 잡고 한걸음 물러나 저쪽을 찬찬히 여겨보시는것이였다. 그런후에 또다시 포옹! 그러기를 두세번 거듭...

《장군님!》

《김책이.》

같은 소리가 여러번 반복되였다.

이렇게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나서 김책의 일행은 자세를 바로하고 서서 오래동안 그리워하면서 만나뵈을 기회가 없었다는것 그런데 이번 어찌 어찌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였다는것 그리고 만난김에 서로 속을 터놓고 앞날에 대한 작전을 잘 의논하자는것 등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였다.

김책이와 같이 온것은 오래전에 할빈지구에서 공작한적이 있는 유격대지휘관인 서철이였고 다른하나는 우리와 관계가 밀접한 중국동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화를 하면서도 김책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시였다. 후리후리한 키에 준수한 얼굴, 그가 터놓는 이야기들에는 이국살이 10

여년간 언제나 백두산을 그리워했다는 절절한 심리가 짙게 어려있었다. 사나이다운 흰칠한 체구는 물론이지만 김책이 특유의 빛나는 그 눈이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였다. 웃음은 적고 언제나 긴장이 어린 입모습이라든가 고집스럽게 생긴 턱이 남성미를 한껏 강조해주었다. 총체적인 인상은 산전수전 다 겪을대로 겪은 능숙하고 강의한 군사지휘관이라는것을 잘 나타내고있었다.

김책은 동해안의 성진바다에서 나서 부모를 따라 간도로 건너갔다. 거기서 공산주의운동에 참가했다가 서울감옥에서 몇해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두만강을 건너 공산당재건운동자들 그리고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등 독립운동자들을 수없이 찾아다니였다. 나중에는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아 북만 지구에 정착해서 무장부대에 참가했다는 자기 과거사, 이를테면 혁명의 령도자를 찾아 끝없이 헤매인 과거사를 상세히 펼쳐놓았다.

《그러니 결국 나라는 인간은 이제 40이 멀지 않았으니 반생이 아니라 거의 한생을 방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오늘은 이렇게 김일성동지를 만나는 영광을 지니였던 말입니다.》

김책은 눈물이 글썽해서 고개를 숙이였다.

《하하하.》 호탕한 그이의 웃음소리가 방안을 울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나치게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나직이 그러나 무게있게 계속하시였다.

《지난 세월이 반생이 아니라 한생이었다한들 그것을 어찌 헛된 일로 보겠습니까. 그러한 로정이 있었길래 우리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상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우에 놓인 주전자를 기울여 차를 부어 권하시였다.

그날밤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이 든 숙소를 방문하시였다.

김책은 인사차림을 하고나서 자리에 앉자 거침없이 속을 터놓았다.

《김일성동지! 이번에 여기 와서 저는 너무나 뜻밖의 정황에 부딪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한심합니다. 우리더러 반일무장투쟁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방도를 찾아보라는 의견을 받을것이라고 합니다. 국제당대표가 귀찮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우리에게 무슨 결함이라도 있다는건가요?》

김책은 벌써부터 흥분해서 가슴을 들먹이였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말이 있길래 명백히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편의 말에 의하면 쏘련이 서방에서 밀려오는 침략도 막아내기 힘든데 동방에서 또 하나의 전역을 퍼게 되면 력량이 분산되고 적들의 협공에 들수 있다는거지요. 일제는 우리가 쏘련의 사촉으로 무장투쟁을 하고있다고 걸고듭니다. 그래 우리는 단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국제혁명에도 유익하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길을 택할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립장이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며칠후에 정식으로 면담이 있게 될것 같은데 그때에 우리 립장을 명백히 그리고 철저히 표현할 작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참말.》

김책은 뜨거운 김을 내불고나서 신중히 뒤를 이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김책이 김일성동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큰 고민에 빠질뻔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나 할수 있는 요행입니다.》

김책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그가 이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다른쪽 팔이 후들후들 떨기까지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책의 팔을 붙잡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밖에 나가 숲속을 좀 거닐어보지 않겠습니까. 눈보라치는 날 숲속을 걷는것도 재미가 꽤찮을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김책은 가슴을 두드리며 울음을 터칠것 같았다.

《눈보라치는 밤인데도 말이지요.》 김책은 뜻밖이라는듯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러면 뭐랍니까. 우리야 늘 그런 길에 습관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벽에 걸어놓았던 털외투를 벗겨들게 되시였다. 김책이는 어느새 외투앞섶을 여미고나서 잠시 기다리고섰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휘장을 내리드리운 안방으로 훌쩍 들어갔다나왔다. 그의 손에는 보자기에 쓴 꾸레미가 하나 들려있었다.

그는 김일성동지앞에서 보자기를 펼치였다. 보자기안에서는 흰종이에 쓴 큼직한 물건이 하나 나졌다. 다시 종이를 벗기니 그안에서는 보기에도 듬직하고 따스하게 생긴 방한화 한켠레가 나타났다.

《장군님! 이것을 신어보십시오. 혹시 작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약간 주저하다가 계속 하였다. 《장군님을 만나면 무슨 기념으로 될만한것을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적당한것이 있어

야지요. 처음에는 모젤권총, 그다음에는 담배물주리, 또 그다음에는 만년필 이렇게 훑어나가다가 그래도 이것이 그중 쓸모가 있을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털신을 들어 이모저모로 살펴보며 말씀하시였다. 《정말 성의가 대단합니다. 이 털은 오소리털 같습니다. 따뜻하겠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런걸 하나 구해볼까 생각하던중인데 마침 잘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기념으로 되자면 두고두고 오래 보존할수 있어야 하는건데 이건 고작해야 한해겨울 신으면 끝이 날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에 듭니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을 백년을 두고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몸에 닿는것이 제일입니다. 이견 얼음강판에서 발을 땀혀주는것이니 이보다 더 크고 의의있는 기념품이 어데 또 있겠습니까. 대만족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계속하시면서 그이께서는 털신을 신은 발을 천천히 옮겨 이빨나무숲속 솟은 길을 걸으시였다. 밤이 깊었는데도 눈보라는 전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무밑등에서부터 소소리높은 우듬지에 이르기까지 모래알같은 깔깔한 눈가루를 들썩우면서 바람은 계속 기승을 부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폭신한 감각을 느끼면서 걸음을 끝없이 내짚어 나가시였다. 마음속 깊은곳에서 퍼올린 혁명동지의 뜨거운 정을 느끼게 되고보니 더이상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으시였다.

김책은 어깨가 닿을만치 김일성동지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걸었다. 그러면서 뜨거운 입김을 후후 내 불더니 또다시 말을 빼었다.

《저는 각오를 든드히 다지였습니다. 그 각오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번 기회에 김일성동지를 만났으니 평생소원이 풀린셈이니가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절대로 이제부터는 김일성동지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10여년동안 남의 집 결방살이를 하다 보니 이에서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죽으나사나 백두산에 나가 김일성동지수하에서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적탄이 이 가슴을 뚫는다 해도 백두산줄기를 베고 숨지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일없겠지요? 장군님, 이것은 진심입니다.》

잠간 기다렸지만 김책은 더이상 말할것이 없는것 같았다. 그래 김일성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김책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씀하시였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손을 잡읍시다.》

굳은 악수가 이루어졌다. 그다음에는 서로 어깨를 안고 포옹하였다.

한동안 떨어질줄 모르더니 이윽고서 또 걸음을

유키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가슴속에서 쿵쿵 심장이 울리는 것을 감각하면서 걸으시었다.

벌써 아득한 옛일로 되었다. 길림시절 청년학생들속에서 혁명활동을 시작하여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오늘처럼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송화강가를 거닐다가 차광수와 포옹을 하고 얼음강관우에서 한참 덩굴던 생각이 나시었다. 그다음에는 100여리 먼길을 찾아가 산비탈 오두막에서 김혁이를 만나 부둥켜안고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번치 말자고 언약하던 일...

가는곳마다에서 동지를 찾았고 동지를 만났으며 조국을 해방하고 내 나라에 리상사회를 건설하자고 동지와 언약하지 않았던가...

얼마간 더 걸어가다가 **김일성** 동지께서 흥분을 누르며 김책의 팔을 붙잡으시었다.

《김책동무! 내 오늘 우리의 상봉을 기념해서 노래를 하나 부를테니 들어보겠습니다.》

《찬성입니다. 쌍수를 들어 찬성입니다. 이런 때는 촉배 한잔이 제격일수 있는데 노래로 대신할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하하.》

호탕한 웃음소리가 잠간 고요에 잠기었던 숲을 흔들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책이컨으로 돌아서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그리고나서 노래를 시작하시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

노래선물에 따라 김책의 어깨가 세차게 흔들리었다. 그것때문인지 김책은 완전히 무아몽중에 빠지고말았다. 고향의 어머니얼굴이 눈앞에 언뜻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에 뒤이어 정다운 식구들 그리고 고향사람들의 얼굴이 영화화면처럼 흘렀다. 그런것으로 해서 노래가 얼마나 더 계속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제는 오래지 않아 새날이 밝겠는데 그만 돌아가 좀 쉽시다.》

**김일성** 동지께서 어깨를 흔들어서야 김책은 정신을 차렸다. 그제서야 김책은 그이의 품에 안겨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무심중 털신을 잠간 내려다보고있다가 팔목시계를 풀어 김책의 팔에 채워주시었다.

《그게 뭡니까?》 김책이 물었다.

《난 김책동무한테 줄것을 아무것도 준비한것이 없습니다. 내가 차던 시계인데 좋은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은 잘 맞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 그런데 이건 옆에 라침판이 달린거군요. 아 이건 참 뜻이 깊습니다. 향방을 언제나 정확하게 가리고 때를 놓치지 말라는거 아십니까.》

《기념으로 된다면 좋겠습니다.》

얼마후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책이와 헤어져 속속로 돌아오시었다.

난로옆에 놓은 방한화에서는 김이 무력무력 피어올랐다. 아무리 여겨보았대야 별로 특이한 점을 찾아볼수 없는 평범한 하나의 털신이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모저모로 돌려가며 그것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시었다.

세상사람 그 누구나 몸차림에서 신발을 중히 여기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눈보라 만리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고보면 그 의의를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량강구마을어구에 있는 선술집, 철주동생과 언두부 한모를 사이에 놓고 아직 익숙되지 못한 술을 한잔씩 마시자고 할 때 동생은 보자기에 쓴 꾸레미를 펼쳐놓았다.

《그게 뭐냐?》

《어머니가 형이 오면 주어보내라고 한거야요.》

《그건 로동화가 아니냐.》

《그래요. 그런데 이안에...》

철주동생은 새까만색의 신 한켠레를 가지런히 방바닥에 짝을 지어 내놓았다. 그것을 집어들고 잠간 들여다보고있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어머님의 다심한 정이 온몸에 사품쳐 흐르는것을 주체할 길없어 그저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하려고 하시었다.

《겨울에 좋겠구나.》

잘막한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뜻이 실렸던지 말마디들이 매번 떨리었다.

하지만 그 신이 그해 겨울 로흑산등판 마로인의 부엌아궁앞에서 끝내 굳게 닫긴 그이의 울음을 터치고야 말았던것이다. 뽕뽕 얼어들고 눈투성이가 된 신을 아궁앞에서 말리고있는데 문득 어머님생각이 나시였던것이다.

어머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한켠레의 신, 그런데 지금은 계시지 않는 어머님을 대신해서 동생 철주가 이것을 보자기에 싸들고 량강구까지 찾아왔었지...

눈등이 달아오르는것을 겨우 참으면서 얼마나 말랐는가 알아보기 위해 신바닥을 만져보니 거기에서

감촉이 매우 부드러운 그 무엇이 깔려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손가락으로 우뚝 끄집어내보니 바닥에서는 머리카락을 넣어 바늘로 촘촘히 누빈 깔개가 나타났던것이다. 순간 그이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한가닥 생각이 떠오르시었다. 량강구역 주립에서 동생이 이 신발을 내놓으며 《어머니가요. 엄마가...》 왜 그러는지 자꾸 갑자리며 말을 못하는데 동생의 동작을 여겨보니 어색하게 머리를 자꾸 쓸어만지었던것이다.

그러고보니 어머님께서 자신의 머리태를 잘라 신창에 깔았다는 사연이 가슴을 헤집고 달려들었다.

신갈개를 손에 든 그이께서는 한쪽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몸을 와들와들 떨시었다. 널름거리는 불길우에는 어머님의 얼굴이 얼른얼른하였다. 뜨거운것이 눈굽을 넘어 불을 타고 설새없이 흘러내렸다.

어머님의 머리태로 만든 신갈개, 그것과는 생김새도 다르고 발에 와당게 된 사연도 각이한데 어찌면 이다지도 가슴을 설레이게 되는지 알수 없으시었다.

난로옆에 놓인 방한화가 다 말랐을것이라고 보아 질무렵 **김일성** 동지께서는 자리를 떠서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동쪽하늘에 려명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미구에 불덩이같은 태양이 솟아오를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김책을 만난 기쁨으로 해서 한밤중에 그것도 눈보라 울부짖는 숲속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되고 또 그가 기념으로 준 신 한켠때때문에 어머님을 절절하게 회상하게 된 가슴빠근한 이 한밤을 환희와 궁지에 넘쳐 돌이켜보면서 혼자소리를 무심히 뇌이게 되시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최대의 기쁨으로 되는것 그것은 곧 혁명동지를 얻게 되는것이다.》

×

우연히 꺼내보게 되었던 사진 한장은 실로 많은것을 생각해 하였다.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인 동지, 이것은 이성과 감성을 한데 합쳐 깊은 사색의 밑바닥으로까지 끌고가면서 혁명투쟁과정에서 있었던 가지가지 잊혀지지 않는 일들을 더듬어보게 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사진을 집어드신채로 집무탁을 마주하고 계속 생각에 잠기시었다. 현재 집필에 열중하고있는 《세기과 더불어》도 이제는 상당한 정도로 진도가 나갔다. 하지만 항상 관심사로 되었던것은 역시 혁명동지들에 대한 회상이였다. 애초에 이 글을 시작할 때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년대순으로 따라나가면서 기록할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서술할것인가를 생각했었는데 그 량자에게는 각

기 우단점들이 다 있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키자고 한것이 년대식으로 나가면서 혁명에서 동지! 즉 뜻을 같이하는 동행자에 대한것에 모든 세부를 집중시키는것이 그중 합리적이라는 결론에도 달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하바롭스크회의는 그렇고 그후는 무엇과 련결시킬것인가를 생각하고계시었다.

문기척소리가 가볍게 울리었다. 응대를 하자 정복차림 그대로인 리을설이 나타났다. 문을 열어잡고 주뿔거리는것을 무슨 일인가고 물으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시었다. 이맘때면 대체로 책임부관이 나타나기마련인데 리을설이 직접 찾아온것을 보면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을것 같으시었다.

《별일은 없습니다. 늦도록 불이 켜져있길래...》

리을설은 원래 성미 그대로 조용히 대답하면서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들어보았대야 늘 늦도록 불이 켜져있다는 역시 그 소리이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게 아니요. 이리 좀 가까이 오시오. 나야 본래 산에 있을적부터 초저녁잠이 없다는것을 동무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소.》

《그러나 너무 무리하시면...》

리을설은 집무탁쪽으로 몇걸음 다가가서는 하였지만 역시 군인다운 바른 자세를 허물지 않으면서 뒤덜미로 손을 가져갔다.

《오, 그렇지!》 **김일성** 동지께서는 언뜻 생각이 떠오르는것이 있어서 례의 그 사진을 집어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울설동무, 그때 저기 하바롭스크에 우리가 갔던 일이 생각나오?》

《네? 하바롭스크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뜻밖이어서 리을설은 얼마간 어리둥절해졌다.

《아, 그 왜 원동에 있는 쏘련의 하바롭스크말이요. 1940년인가 그때에 우리가 회의에 가잖았소.》

《웁습니다. 그때 김책이, 서철이, 안길 동무들을 만났었지요. 생각나다뿐입니다.》

《그때 김책동무가 나한테 가져왔던 겨울용털신이 있었지. 그게 생각나오?》

《털신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배낭에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털신이 그후 어떻게 됐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러오.》

《그 털신이...》 리을설은 너무나 아님밤중에 흥두깨식이어서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어느 까마득한 옛날의 하바롭스크 그리고 김책, 게다가 바다에 떨어진 하나의 물방울같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생활세부 털신! 하지만 리을설은 기억력에 있어서 어릴적부터 비상한 점이 있었다

《그 털신은 말입니다.》 하고 리을설은 수령님가카이로 한걸음 다가서며 말쑥울리었다.

《한동안 제가 배낭에 넣어가지고 다녔는데 두만

강지구로 정찰나가는 한기만동무의 신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신겨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한동무가 돌아오지 못하다보니...》

《아, 이제야 생각나오. 그때 한기만동무는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데 늘 여름신을 신은채로 다니었으니까. 알겠소, 그렇게 된걸...》

순간에 패감에 잠기시게 되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고개를 몇번 끄덕이고나서 집무탁에 놓인 사진을 집어드시었다. (그때 김책이 가져왔던 그 털신은 참으로 요긴하게 쓰이였지. 하긴 한동무가 희생되는 통에 털신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명랑한 기분이 지나쳐 지어 즐거워하시는것 같은 수령님의 표정을 보게 된 리을설은 누구인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분명히 사진을 보고계신다는데 주의가 쏠리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가고 물을수는 없었다.

잠간 방안을 거니시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것은 그렇고 리을설의 용무가 무엇인지 알고싶으시었다. 그는 언제나 빈결음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였다.

《그래 을설동무의 용무가 그게 다요? 늦도록 이 방에 불이 켜져있다 그거!》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다음은?》

《조직비서동지가 전화를...》

《전화가 왔소? 그럼 받아야지.》

《방금전에 전화로...》

내막을 까뵈히면 **김정일** 동지께서 전화로 부탁의 말씀이 있었다. 수령님 집무실에 불이 꺼져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보고 무엇을 하고계시는지 알려달라는것이였다.

《전화를 대시오. 나도 알아볼게 좀 있어서 그러오.》

리을설은 참으로 난처해졌다. 수령님께서 빨리 침실에 들도록 하라는 **김정일** 동지의 부탁은 오히려 반대결과를 낳게 된것이다.

《지금 전화가 걸려있는건 아닙니다.》

《어서 빨리 대도록 하오.》

이렇게 되어 잠시후 **김일성** 동지께서는 수화기를 집어드시었다.

《그래 전화를 걸었다면서?》

수령님께서 다그쳐 물으시었다.

《집무실에 아직 불이 켜져있다고 하기에 알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그저 그러고있을뿐 별로 하는 일이 없소. 요새는 문건도 별로 올라오는것이 없다보니 밤시간은 거의 내것이요.》

《당분간 휴식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경제일군협의회에서 시간을 너무 끌어 무리하신것 같습니다.》

《말하는 뜻을 알겠소. 그래서 오늘은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하나에 수표를 해넘겼을뿐이요. 의사

의 말을 들으면 그저 먹고 놀기만 하라는것인데 그렇게야 사람이 어떻게 살겠소.

그러나 내 극력 주의는 하겠소. 그건 그렇고, 내 지금 리을설이와 함께 원동에 있는 하바롭스크에 가있던 이야기를 하던 중인데 사람의 일이란 참 이상하지 않소. 내 그때 김책을 처음 만난 날 숲속을 걷다가 문득 첫 상봉의 기쁨의 표시로 노래를 하나 부르겠소 하고 <사향가>를 불렀단 말이요.

오늘 그때 일을 암만 생각해봐도 동지와와 첫 상봉, <사향가> 이 사이에는 아무런 련관이 없는데... 이상하거든...》

《제 보기엔 말입니다.》 흥분해서 그런지 **김정일** 동지의 높은 숨소리가 수화기에서 확확 울리었다. 《아주 자연스럽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혁명동지와 <사향가> 즉 동지를 만나니 고향생각, 그래서 고향은 곧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곧 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성이나 론리로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것을 심장, 다시말해서 감정은 벌써 번개치듯 해서 진리의 마루에 올라선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듣고보니 그 해석이 비슷하오. 그렇게 되는군. 난 요새 왜 그런지 동지들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짝 차있소. 수없이 많은 동지들, 그것을 하나하나 추억해보노라면 시간가는줄 모르겠소. 즐겁기도 하고 또한 눈물겹기도하고... 보람, 긍지, 기대, 이런것이 구름처럼 피여오르지... 추억이란 참으로 감미롭고 아름다운 감정이야...》

《집작이 갑니다. 역시 회고록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다는것이 알립니다. 그러나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휴식해주십시오. 꼭 휴식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올리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너무 격해져서 말이 잘되지 않으시었다. 입술이 뻗뻗해지고 목이 짝 메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또 올리시었다.

《절절한 소원입니다. 휴식해주십시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과 우리 인민모두가 바라는...》

《알겠소! 조직비서동지, 알겠다니까.》

수령님께서 동지라는 대목에 힘을 주신다는것이 완연히 알리었다. 돌이켜보면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첫날도 <김정일 동지가 당사업을 시작했던 말이지. 기대가 큼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아준적이 있으시었다.

《부탁입니다. 총비서동지!》

얼결에 올린 말씀이였다.

**김정일** 동지의 음성은 몹시 떨리시었다.

수화기를 놓고도 한참동안이나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자리에 서계시었다. 그이께서는 리을설이 나타나기 방금전 김책을 추억하던 그 장면을 다시 더듬게 되시었다.

(그래 김책이와는 내가 어떻게 헤어졌더라?)

그렇게 되자 온몸으로 전류가 흐르는것처럼 쪼릿

한 감을 느끼는것과 동시에 사진을 들고있는 손이 와들와들 떨리었다.

...그때는 조국강토에 전쟁의 불길이 한창 타오르던 때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끝나고 패주하는 적들을 추격해서 우리 군대가 물밀듯이 남진하던 때 하루는 문득 김책이 최고사령부에 나타났다. 한때는 전선사령관이라는 중임을 담당하고있었고 그후에도 계속 전선과 후방의 긴장한 전역에 나가있던 그는 어떤 용무가 있으면 꼭 사전에 어느날 어느때 어떤 장소에서 만날수 있는가고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하곤하던 그였다. 한데 건지리에 자리잡고있던 최고사령부에 그것도 해가 뉘엿뉘엿 저가는 때에 문득 나타났던것이다.

《어떻게 된 일지요?》

김일성동지께서 손을 잡으며 다급히 물으시였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것 같았다.

《별일이 아닙니다. 그저 잠깐 들렀다가려고 왔습니다.》

《날씨도 변덕스러운데 건강은 일없습니까?》

《보시다싶이 저는 건강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어떻게습니까?》

《나 역시. 하하하.》

이렇게 해서 인사가 끝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의 팔을 끌어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방안아래쪽에 앉히고나서 전선형편을 물으시였다.

김책은 어느때와는 달리 기분이 좀 떠있는것 같았다.

《손자의 병법에는 적을 추격하되 도망칠 여유를 주면서 따라가라 했다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아니요 하여간 숨돌릴새 없이 따라가 때려잡자는것인데 어떻게나 날째게 달아나는지 벌써 38선까지는 한놈도 없이 다 달아나고말았습니다.》

《하하하, 비겁한놈들은 하나같이 정황이 급해지면 머리로가 아니라 다리로 사색한다더니 그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바짝 더 조일시다. 말그대로 숨쉴사이없이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용무는 무엇입니까?》

한담이 계속되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런 뜻이 없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 김책의 성미를 잘 알고있느터여서 넌지시 용건을 묻게 되시였다.

《어제저녁에 오래간만에 꿈이라는것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허허 참.》 김책은 방금 면도를 해서 푸릿푸릿해진 턱을 문지르며 계속하였다.

《꿈에 글썽 김정숙동무가 나한테 무슨 약초를 달인것이라고 하면서 김이 문문 나는 사발을 내밀더군요. 분명히 어느 산중 밀영입니다. 소화가 잘되고 위를 보호한다는겁니다. 그래 그걸 단숨에 들이키고 고개를 번쩍 드니 내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래 정숙동무! 정숙동무하고 부르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떻게나 서운하고 맥이 빠지는지...》

무슨 말을 더 할것 같아 잠깐 기다렸지만 어두워진 창밖에 시선을 던지고 더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꿈이란 항상 허황하기마련이지만 그것이 산사람의 생활의 한 부분이며 그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때 무심히 들어넘길수 없으시였다. 하지만 김책의 용무란 뻔한것이였다. 꿈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이 사실일수도 있겠지만 김책은 이런 식으로 최고사령부를 자주 찾아오곤하였다. 그래서 장군님의 건강이 어떤가 그리고 신변호위에서는 혹시 빈틈이 없는가 또는 생활에서 어떤 불편이나 근심거리는 어떤것이 있는가 세밀히 알아보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알세라 모를세라 그것을 풀기에 원심을 쓰곤하였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고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느때 한번 건느지 않고 줄곧 계속해오느것이다.

가슴에 찌르르 감동의 물결이 미쳐왔다. 실로 동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감격스러운 감정을 때부로 느끼게 하는 김책인것이다.

김책과의 대화는 끝이 없었다. 태반은 미국놈들과 싸움이야기였고 간간히 항일무장투쟁시기 이야기 그리고 국제적판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언급되였다.

김책이 그만하고 돌아가겠노라고 했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래간만에 왔는데 국수를 놀러먹고 하루밤 자면서 이야기나 좀더 하자고 하시였다.

《김책동무가 좋아하는 농마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메밀가루가 있는데 맛이 괜찮습니다. 앉으시오. 앉아서 이제 미국놈들이 어떤 수로 나오겠는가로론해봅시다. 그러는사이면 국수가 됩니다.》

그러나 김책은 끝내 사양하고 떠나겠다고 하였다. 빨리 가서 불일이 있다는것이다. 저녁 9시가 좀넘어 김책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널마루에 앉아 장화를 신는 김책을 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잡아 방안으로 이끄시였다.

《김책동무! 갈 땐 가더라도 그 양말은 벗어야겠습니다.》

《네? 양말이 어쩡다구요.》 김책은 구멍이 펴 뚫린 양말뒤축을 만져보면서 웃었다.

《전쟁중에 누구나 가난하게 사는데 일있습니까. 이것도 아직 한동안...》

《빨리 일어나시오.》

이렇게 되어 김책은 손에 집어들었던 장화를 한쪽에 밀어놓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이걸 신어보시오. 좀 작지 않겠는지. 그리구 두렵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전쟁이라도 이렇게 구멍이 뚫린 양말로써야 뽕기를 막아내지 못하지요.》

김책은 양말을 받아들고 잠깐 생각하는듯하더니 서둘러 발에 꿰고나서 자리에서 또 일어났다.

《하! 그래두 끝내 가겠다는겁니까? 이밤중에... 게다가 눈보라가 사나운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색해서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김책은 이미 든든히 속다짐이라도 하고있었던것



처럼 대답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 꼭 가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작해야 한 30분이면 가닿을수 있는데요. 전선형편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렇니다.》

이쯤 되고보면 그 어떤 체면을 차리거나 그 무슨 수놓음으로 장면을 모면하자는것이 아님을 그이께서는 잘 알고계시었다. 그것이 다름아닌 김책이고 보면...

《전선형편이라!》

김일성동지께서는 서운한 감을 누르지 못하면서 탁자우에 놓이었던 김책의 야전가방을 들어내주시었다. 김책이 떠나간후에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전대앞에서 지도를 들여다보고계시었다. 새로운 재진격을 구상하시는 그이께서는 적들을 추격만할것이 아니라 다시는 추서지 못하게 유생력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멸해치울 작전을 펼치고계시었다.

시간은 어느새 새날에 접어들었다. 문기척소리가 가볍게 울리었다.

새벽 한시나 두시가 돼서부터는 좀체로 찾아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웬일인가싶어 고개를 들며 들어오라고 하시었다. 책임부관이 나타났다.

키가 흰칠한 대좌는 여느때없이 부자연스럽게 몸가짐을 하며 몇걸음 다가왔다.

《무슨 일이요?》 다그쳐 묻는데 부관은 고개를 떨구며 신음소리와 같은 음조로 대답하였다.

《김책동지가...》

《그래 전화요?》

《심장이...》

《심장이? 심장이 어쩔다는거요.》

《멎었다고 합니다.》

《뭐? 김책의 심장이 멎었다 그 소리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화로 심장마비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요. 그건 무슨 착오요. 그래 누가 그랬소.》

《제가 방금 부관이 걸어온 전화를 받았습시다.》

대좌는 갑자기 기울어드는 몸을 벽을 짚고 가파스로 바로세우면서 쥐여짜는듯한 목소리를 내었다.

《꼭꼭히 말하오. 그래 김책의 심장이 멎었다는게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럴수 없소. 어제밤 9시까지 여기 앉아 나와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

도저히 리해할수도 접수할수도 없어 완강하게 반발하건만 사실은 사실이였다. 부관은 끝내 몸을 지탱해내지 못하고 방바닥에 주저앉고말았다. 한편 김일성동지께서는 안락의자에 몸을 던지시였다.

×

날은 흘러 김책의 령구를 발인하게 되었다.

전쟁이 한창이다보니 항일무장투쟁때부터 그리고 그후에 인민무력건설에 공로가 있고 김책이와 막역한 전우들이 많았건만 그들 대부분이 전선에 나가있었기때문에 영결마당에 나타난 사람은 몇명

되지 않았다. 눈에 띄게 인차 알수 있는 사람들이란 김일이와 오백룡 그밖의 몇명의 장령들이 있을뿐이였다. 빨찌산추도곡이 눈물에 젖은 사람들의 가슴속 갈피갈피를 헤집으며 서서히 흘러들었다.

붉은기를 씌운 령구를 한쪽에 세명씩 여섯명이 흰천으로 만든 발인줄로 들어올리었다.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모란봉북쪽기슭의 방공호앞 그리 크지 않은 유리창건물에는 비통한 공기가 차고넘쳐 금시 폭발을 일으킬것 같은 분위기였다. 한걸음 두걸음 령구가 문제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김책이!》 하고 요란한 음성이 방안을 울리었다. 맨앞에 서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 붉은 기폭을 씌운 령구를 와락 덜쳐안으며 울음을 터치신것이다.

《못간다! 못가, 김책이 가다니... 우리를 두고 가긴 어데로 혼자 간단 말인가. 못간다!》

발인의 걸음이 멈춰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을 가려볼수 없으시였다. 눈앞은 뽕양게 흐려졌는데 붉은 기폭이 너울너울 물결쳤다. 그런가 하면 그우에 김책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였다. 하바롭스크교외 귀를집숙영소에서 처음 만났던 그 얼굴이였다.

《내결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던 김책이가 어데로 가는가. 죽어도 백두산을 베고 숨지겠다던 김책이 먼저 가다니...》

비통하기 이를데없는 웨침소리가 사람들의 뼈마디를 바스르뜨릴만치 처절하게 울리었다.

또다시 시간은 흘러 모란봉 최승대동쪽 아늑한 잔디밭에 방금 생겨난 하나의 분묘앞에 술한 사람들이 둘러서있었다. 영결식이 있는 다음 모두 흩어져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리를 뜰수 없었다. 김책이와 헤어질수가 없어서였다. 더구나 김일성동지께서 봉분앞에 그냥 서계시기때문에 모두 발길을 돌릴수 없었다. 이윽해서 그이께서 자리를 뜨시였다.

그날밤이였다. 달이 밝았다. 하루전에 온 눈때문에 눈길에 닿는곳마다 모두 흰 장막을 덮어놓은것 같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너무나 비통한 감정을 누를길이 없으시여 한밤중에 다시 찾아오시였다. 고개를 숙이고 묘앞에 서시였다. 추억은 번개처럼 뇌리를 치며 지나가는데 나타나는 장면들모두가 생시처럼 생동하게 펼쳐졌다.

...아! 얼마나 진실하고 순결하며 또한 변함이 없는 혁명동지였던가. 처음 만났을 때나 마지막 숨지는 때나 모든것이 진정이고 고지식하고 가식을 모르는 그였다. 나이로 보면 10년가까이 우인데도 언제나 김일성동지 아니면 최고사령관동지로 최고존칭을 달아 불러주었지. 하바롭스크교외에서 만나 이제부터는 우리결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는 말그대로 언제나 우리결에 있었다. 8.15해

방을 맞아 우리 동무들가운데 일부는 동북지방의 정세가 불리해져서 그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도 김책은 나를 따라 같이 행동하겠다고 해서 구축함에 올라 원산항으로 들어왔었다. 원산에서 당창건을 추진하기 위해 함흥에 파견했는데 한달도 되지 않아 인차 평양으로 올라왔고 그후에는 정규 무력을 창건하게 되었을 때 지휘관육성기지인 보안 간부학교와 평양학원을 전적으로 담당했었고...

그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충성하였고 추호도 거기에 가식이 없었다는것은 출퇴근시간만 보아도 잘 알수 있었다. 우리는 그때 당을 창건하고 그 사무실을 창광산기슭에 있는 일제때의 어느 회사 2층건물에 두었었다.

김책은 아침해뜨기전 어둑어둑한 때 나와서는 내가 출근할 때까지 현관앞에서 기다리다가 나를 앞세우고야 자기 방에 들어가곤하였다. 퇴근할 때는 내가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서는데 보고서야 발길을 돌려 자기 집으로 가곤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나온후에는 일제가 전면적으로 파괴한 산업을 누가 담당하여 복구하며 어려운 인민생활을 풀것인가 하는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래 김책이와 의논삼아 우리 형편을 말했더니 그러면 내가 말아서 해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자청해나섰다. 아는것은 없지만 힘껏 해보겠다고 하여서... 나는 참으로 고마웠다. 그래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서도 한당대 총을 메고 전장을 뛰다니던 사람이 꽤 해낼만한가고 걱정했는데 1947년 첫 인민경제계획도 그래 그 다음해 또 그다음 여하튼 우리 산업을 하루가 다르게 일떠서곤하였다. 김책은 어느 하루 빠짐없이 나에게 하루 일과를 말하고 저녁에는 그에 대한 총화를 하곤하였다. 새롭고 중요하다고 보는 과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에서부터 그 진행정형을 수시로 통보해왔다. 그의 안해의 말에 의하면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우리한테서 가는 전화를 받을 때면 꼭 옷을 갈아입고 단추까지 다 채운 다음에야 김책이 전화받습니다라고 말했다는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김책을 이 쾅쾅 언땅 밑에 눕혀두다니... 아, 나의 이 팔을 자른들, 이 다리를 생짜로 끊어낸들 이다지 아프고 쓰리고 절통할것인가?

김책이! 일어나라, 왜 말이 없는가. 깨어나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라... 조국통일이 되면 우리 서울에 가서 축배잔을 같이 들어보자고 했지... 응? 왜 말이 없나. 김책이...

...밤이 깊었는데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부관이 그이의 팔을 부축해서 자동차 있는데까지 모셔내왔다.

《아! 동지란 기쁨도 주지만 이렇게 뼈아픈 고통도 주는것인가!》

머리우에서 푸드득 날짐승 한마리가 깃을 치며 날아올랐다. 그통에 소나무가지가 흔들리며 눈가루가 뽀얗게 날리였다.

×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드시였다. 《김책이!》 하고 부르고 나서 속말을 하시였다. 그래 그에 대해서 생각나는것을 다 써야지. 《세기와 더불어》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해도 김책을 당할 사람이 어데 있을까. 김책이 그의 이름은 동지! 혁명동지! 나의 회고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회고인 《세기와 더불어》의 총적주제는 동지로 되여야 한다. 동지이의 그 어떤 다른것으로는 결코 될수 없는것이다.

동지!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것.

동지!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가장 크고 심대한 아픔과 슬픔도 주는것.

동지!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만능당의 힘과 용기를 주는것.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말해야 할것은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지를 얻는것으로 끝나는 사회운동에서의 어길수없는 철칙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동지! 혁명에 대해서 모든것을 단 한마디로 말해주는 실체인것이다. 레닌은 아르키메데스의 지레대원리를 응용해서 나에게 조직을 달라, 그러면 지구덩이이라도 들어올릴것이다라고 말한적이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옳다.

한데 나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나에게 동지를 달라, 그러면 임의의 시각에 천하를 움직일 조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싶다. 이것은 공론 장담이 아니라 내가 한생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이다. 알기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열망하고 필요로 하는 혁명적조직이란 별로 신기한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인간들의 리성적결합체인것이다. 때문에 동지,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존재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지는 혁명에서 필수불가결의것이면서 그것을 얻고 사귀는 과정에는 최대의 희생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하여 동지를 위해 한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동지가 차례지지 않는 법이다.

나는 14살에 압록강을 건너며 일제에게 빼앗긴 내 조국을 되찾기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그때로부터 동지를 구하고 동지와 결합해서 조국을 해방하고 또 그후에는 미제를 비롯한 16개국의 침략무력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을 하였다. 그런후에는 적들의 온갖 압력과 말살책동을 물리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반세기가 넘는 이 기간 나는 단 한번의 실패도 절망도 없었다. 그기간 모진 고통이나 치명적인 위협이 수십수백번 있었다. 아슬아슬한 위협이 닥쳐올 때마다 매번 우리 동지들이 자기 몸

으로 나를 막아주었고 보호해주었다.

이렇기때문에 나는 생일 60돛이 되는 연회석상에서 사전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득 일어나 인사말을 몇마디 하게 되었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의 보호와 양육을 받았다, 그러나 혁명투쟁에 나선 그때부터는 동지들이 나를 보호하고 옹위해주었다, 그리하여 오늘 동무들이 보는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인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혁명위업을 별로 큰 편차없이 수행해나가고있는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지들의 사랑, 동지들의 신뢰, 그것이 없었다면 여직 살아오지도 못했을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가지 못할것이라고 말했던것이다...

여기까지 보여준 추억의 화폭은 휘딱 장면을 바꾸어 여름 밤하늘에 뿌려진 못벌처럼 그 수를 미처 헤아리기 바쁠 정도로 무수한 동지들의 얼굴들이 총총히 나타났다.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을 나서서 해방의 길에 오를 때 평양역까지 따라나와 내 손에 돈 3원을 쥐여주며 부디 살아서 다시 만나자던 강운범, 무송시절의 장울화, 고재봉 그리고 화전과 길림시기의 차광수, 김혁, 최창걸, 한영에 등등 항일의 혈전만리를 건넌 백두산시절의 오중흙, 안길, 강건, 김일, 최현, 오백룡, 림춘추를 비롯하여 지금은 대성산주작봉마루에 안장된 그 전우들... 해방이 돼서 새 조국 건설 시기에는 김용범, 홍명희, 강영창, 정준택, 허정숙, 김직현, 리만선, 리주연, 김종항, 원도중, 리찬, 김제원 등등 국가건설, 경제건설이라는 초행길을 같이 걸던 동무들, 그들은 지금 애국렬사릉에 안장되어있다.

조국해방전쟁과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최춘국, 조정철, 박정덕, 조기천과 리승기, 계응상, 리기영, 로래석, 김두삼, 정일룡, 추상수, 림근상, 한후방녀, 안달수, 박정수 등등...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부풀어오르는 이름들이다.

동지!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부름인가! 동지!

밤이 깊었다. 새날이 멀지 않았다.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책상우에 놓였던 회고록의 집필요강과 초고들 그리고 자료묶음을 정히 개여놓은 다음 레의 그 사진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였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

이때 그이께서는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짓게 되시였다.

벌써 한해전의 일로 되었다. 몇명의 작가들과 만나 항일무장투쟁시기 이야기를 들려준적이 있었다. 작가들은 그때 노래 하나를 직접 들어보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 《사향가》를 부르던 생각이 나시였다.

(그래, 김책을 처음 만난 그날밤 눈보라치는 숲속을 거닐면서도 그 노래를 불렀었지.) 그리고보면 《사향가》는 고향생각만이 아니라 동지를 만나 한껏 기뻐졌을 때마다 부르게 되었던것이다.

비는 계속 내리고있다. 숲이 모지름을 쓰면서 설레이고있다.

밤은 끝없이 깊어간다.

끝없이...

×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그날밤 새날이 왔지만 아직 미명, 것처럼 소중히 여기시던 사진 한장을 사려 깊이 여겨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에 손을 가져다대고 방안을 거닐고계시였다. 그러다가 다시 자리에 앉으시였다. 그리한지 얼마 안되어 그렇게도 크고 그렇게도 억센 그이의 심장이 갑자기, 그야말로 갑자기 멎었던것이다.

온 나라 인민이 그렇게도 비통해하고 온 하늘과 땅이 합쳐 모두 통곡하며 눈물을 쏟은 애도기간도 지나간 몇달후 어느날, 역시 깊은 밤.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을설의 안내를 받아 수령님의 집무실로 들어서게 되시였다. 그러나 집무실에 들어서서는 순간 그이께서는 갑자기 공허한 생각에 젖어들면서 온몸의 기운이 삼시에 발끝으로 빠져나가는듯한 느낌을 받으시였다. 어느때같으면 벌써 수령님의 정다운 음성이 들릴것이고 뒤이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실것이였지만 지금은 오금이 저릴만큼 진하게 깃든 정적만을 느낄수 있을뿐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을 짝 눌러잡으시였다. 공허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강한 전율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것을 참고 견디려니 이마에 땀방울이 솟아올랐다.

문가에 잠깐 서서 방안을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리을설이 팔을 잡고 이끄는대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처음에는 안락의자와 응접탁이 놓인곳으로, 그다음에는 한쪽벽을 가득 채운 서가로, 그다음에는 탁상등과 몇권의 도서와 필기도구가 놓인 집무탁으로 다가가시였다.

총체적으로 소박하다거나 간소하다기보다 수령님께서 집무하시는데 필요한것외 그 어떤 장식이나

화려한것이란 전혀 찾아볼수 없는 그런 방이었다.

즉석에서 마음에 걸리는것은 정도이상 수수한 가  
정용천연색 TV 과 비닐로 만든 실내화를 보는 순간  
이전에는 왜 이런것이 전혀 눈에 띄이지 않았던가  
하는 원망이 생길 정도였다.

그이께서는 푸른색가위의 책을 집어드시였다.

《세기와 더불어》 몇권이 책상 한옆에 가지런히 놓  
여있었다. 그이께서는 서가에 있는 책을 뽑아드시  
였다. 처음에 손에 잡힌것이 《조선전사》였다. 거  
기에도 수령님의 독서흔적이 력연하였다. 책장을  
접은데도 있고 간혹 펜으로 줄을 긋거나 감탄부호  
또는 의문부호를 친것이 있었다. 책장이 놓인 순서  
대로 나가며 책들을 뽑아보시였다. 과학이나 경제  
기술도서 그리고 문예도서 등이 나타났다. 우리것  
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이름있다는 외문도서들도  
눈에 띄는것이 많았다. 이것 저것 내키는대로 책을  
펼쳐보는 파정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드름으로 가  
슴을 찢리우는듯한 졸전의 충격을 어느정도 가라앉  
힐수 있으시였다. 그리하여 금시 쓰러질것처럼 기  
우똥거리고있는 리을설을 붙잡고 집무탁앞에서 걸  
음을 멈추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수십년동안 일  
을 보셨지요?》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웁습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입니다.》

손으로 의자를 가리키던 리을설은 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옆으로 돌아선다.

그때 김정일동지께서 방안 오른쪽구석에 놓인 금  
고를 가리키시였다.

《저 금고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글쎄 별로 특별한것은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문열리는것을 보면 서류봉투가 몇개 들어  
있을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마지막날 집무탁  
에 퍼놓으시었던것을 제가 거두어 모두 제자리에  
가져다 넣었습니다.》

《그래요?》

리을설은 김정일동지께서 관심을 가지시기때문  
에 서둘러 열쇠를 찾아내어 금고의 문을 열어제끼  
였다.

《보십시오. 이게 답니다.》

아래우 두칸으로 되어있는데 맨우에 놓였던 봉투  
에는 사진 한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김책동지와  
나란히 서서 찍으신 사진이였다. 그 사진을 보는 순  
간 김정일동지께서는 온몸이 얼어드는듯한 충격을  
느끼시였다.

그날밤, 바로 전화를 통하여 마지막육성을 들으  
실 그때 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왜 그런지  
김책을 만나서 《시향기》를 부르게 되었던 옛이야  
기를 하시었던것이다. 너무나 뜻밖이고 너무나 왕

창같은 이야기였다. 혹시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에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경제일군들과의 협의회 또  
는 조국통일과 관련한것이라면 몰라라...

그리고 이 사진으로 말하면 조국해방전쟁시기 최  
고사령부가 건지리에 있을 때 수령님께서 일력장앞  
에 세워놓고 늘 보군하시던 그 사진이라는것이 대  
변에 알리였다.

그때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저 김책동지가 사망한  
직후니까 생전의 두터운 정을 잊지 못해 그러시거  
니 범상히 생각하시였던것이다. 한데 김책이와 헤  
여진지도 어언 40여년! ... 그것이 어찌 생의 마지막  
순간의 화제로 될수 있었는지... 그리고보면 수령님  
께서는 앞일을 다 알고있거나 하신것처럼 혁명에서  
기본의 기본인 동지에 대해서 사색하고계신것 이  
틀림없었다.

아! 그 정, 그 뜻, 무한대하고 영원한 그 의미를  
헤아리기에에는 이 한가슴이 모자랄 정도이다.

사진을 든 그이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옆에 서  
있던 리을설은 금고앞에서, 더구나 한장의 사진으  
로 해서 순간에 굳어지신 그 영문을 알수 없어 그  
이앞으로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순간 그도 깜짝  
놀랐다. 아득한 옛날, 짐작컨대 전쟁시기 어느때 피  
딱 한번 본듯한 사진이였다. 수령님께서 아직 마흔  
도 되지 않은 젊으신 때의 모습이었다.

한껏 긴장해진 리을설은 그이께서 들고계시는 사  
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입술을 한껏 사려무  
신 김정일동지께서 소리없이 울고계시였다.

시간이 흘렀다.

김정일동지께서 리을설을 쳐다보며 말씀하시였  
다.

《참말 감격적입니다. 혁명의 그 모든것이 함축집  
약된 친근한 부름 동지! 이보다 더 뜨거운 부름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고귀한 호칭이 또 어디 있  
습니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며 또 그것이 영원한...  
혁명의 핵이고 혁명의 진리... 우리가 언제나 찾고  
있는 혁명의 변증법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날밤, 이제는 마지막으로 된  
그 말씀에서 《조직비서동지!》 하고 불러주시던  
그 동지라는 호칭을 생각하고계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손에 들었던 사진을 본래 그  
자리에 밀어넣고 금고문을 정중히 닫으시였다. 그  
리고 어성을 좀 높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고귀한 유산입니  
다. 나는 이 뜻을 영원히 가슴속깊이에 간직하겠습니다.》

그이의 어깨가 높이 오르내리였다. 손등에 불찌  
같은 눈물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져내리였다.

밤새울음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소쩍... 소쩍...》

## 압록강기슭의 추억

한원희

### 노래의 첫 머리에

압록강기슭엔 추억도 많아  
어언 40년세월이 흘렀건만  
내 가슴엔 못잊을 추억도 많아  
때없이 지난날이 눈앞에 다가서네

그러면 추억의 쪽문을 열고  
그날에 들어서는 내 마음  
그때처럼 내 머리 다시 껴머리고

20대처럼 내 나이 다시 젊어지네  
  
흰 아마직 옷옷에  
연한 회색바지를 입으시고  
압록강반의 방직공장을 자주 찾아주시던  
우리 수령님  
그이의 모습을 다시 뵈옵고  
그이의 말씀을 다시 듣네

### 비는 내리고 또 내리는데

하루종일 오는 비  
그치지 않는 비  
그래도 불꽃튀는 방직공장건설장  
올려가네 올려가네 반가운 목소리  
수령님이 오신대요-  
수령님이 오신대요-

사람들이 달려가네  
비속에 퍼올린 기초흙더미우에  
삽이랑 질통이랑 내치고 달려가네  
수령님이 오신대요-  
수령님이 오신대요-

공장정문앞엔 사람들의 물결  
지배인이 드리는 우산을 사양하시며  
수령님 환히 웃으시었네  
-나야 늘 오는데 환영은 뭘 다...  
찬비도 이렇게 퍼붓는데  
어서 헤쳐가 비를 그으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헤여질줄 몰랐네  
다시 드리는 우산을 끝내 받지 않으시고  
수령님은 말씀하셨네  
-그럼 나도 함께 비를 맞겠소

수령님을 뵈옵는 기쁨에 행복에  
쏟아지는 비를 잊었던 사람들  
이때라 문득 정신을 차렸네  
이 무슨 일이란  
수령님께서 비를 맞으시다니...  
우리때문에...

지배인은 안타까이 말씀올렸네  
수령님께서 먼저 비를 그으셔야  
저 군중이 헤쳐갈수 있습니다  
수령님 비발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로동자들과 함께 옷을 적시시며  
우리 수령님 하시는 말씀  
-나야 비를 맞은들 뭐라나  
수천명 군중이 비맞으니 그러지  
동무들이 비를 그으면 나도 굿겠소

아, 우산도 안쓰시고  
수령님은 오래오래 서계셨네  
비는 내리는데  
내리고 또 내리는데!-

### 수령님의 손수건

지붕을 씌우고 창문을 달면  
뒤따라 기대들을 줄줄이 들어놓고  
한쪽으로 천을 짜던  
그때 그 시절

직포공처너는 몰랐네

기대와 기대를 돌보며 뛰고 달리는  
직포공의 순회길에서 뵈옵줄  
수령님을 만나뵈옵줄

너무나 반가워 발을 동동 굴렀네  
너무나 꿈만 같아 인사도 못드렸네

방울방울 맺힌 이마의 구슬땀을  
저도 모르게 맨손으로 씻으며

그이는 빙그레 웃으시었네  
호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시여  
처녀의 얼굴을 씻어주셨네  
엄마앞에 고맙다는 말 못하는 어린애처럼  
처녀는 울며 웃으며 고개를 숙였네

어서 일하라고  
인민의 옷감을 더 곱게 짜라시던  
수령님을 어떻게 바래워드렸던지  
감격에 사무쳐 처녀는 몰랐네

스리슬슬 도투마리 돌고돌아  
스리슬슬 비단필을 감아내고  
수령님은 직포공이 대견해  
따뜻이 손잡아주시었네

-직포공동무는 아이들이 몇이요?  
즐거우신듯 미소를 담으시는  
우리 수령님  
아들 하나에 딸이 하나라는  
직포공의 대답

-허허, 그뿐이 아니지  
동무에겐 아들딸이 많소  
시종 웃음을 지으시는 그이앞에  
직포공은 어쩔줄 몰랐네

내 아직 젊은 나이

정방직장 직포직장...  
차례차례 돌아보신 수령님  
공장을 떠나시려 차에 오르실 때  
공무직장장이 달려왔더라  
저희들의 직장도 보아주셨으면 한다고

하지만 그럴 짬이 없었더라  
도립극장에선 지방당전원회의 참가자들이  
수령님을 기다리었고  
평양에선 중대한 국사가  
수령님의 결론을 기다렸더라

하지만 떼쓰는 소년처럼

다만 가슴속에 넘치는 생각  
말할테야 동무들에게 다 말할테야  
그이를 만나뵈던 이야기랑  
그이의 흰 손수건이야기랑

하지만 처녀가 어찌 다 알수 있었던가  
새로 꾸린 직장을 다 돌아보실 때  
순희랑 은실이랑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우리 수령님 다 씻어주신줄!  
직포공들의 땀에 젖은 손수건이  
수령님의 품에 포개져있는줄!

## 수령님의 귀속말

많은 아들딸이 어이 있을가  
부끄러워 부끄러워 얼굴 붉히는  
직포공의 귀가까이 말씀해주셨네  
조용히 다정히

아무도 듣지 못했네  
수령님의 귀속말  
허나 사람들은 보았네  
수령님 다녀가신 그날부터  
더 많은 기대를 말아안은 직포공을

수령님 아니시였다면 잃을번했던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그는 일하고 또 일하였네  
온 나라 아이들의 옷감을 책임진  
아, 그는 어머니였네!

## 무엇이 첫째인가

또다시 한발나서는 직장장  
새끼친 공작기계를 보아주지 않으시면  
로동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간절한 소망을 아뢰이는 그 눈빛

-하하...  
사기가 떨어지면 안돼지... 안돼...  
무엇이 첫째인가  
로동자들의 사기가 첫째요

그이는 몸소 걸음을 옮기셨더라  
회의도 미루시고  
중대한 국사도 뒤로 미루시고

새끼친 공작기계를 보아주시려  
로동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려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그날의 수령님 그 말씀 나는 못잊어  
우리 공장 어디가나 펼쳐진 직기바다

우리 만든 기계들이 힘찬 동음 울릴 때면  
어데선가 귀에 쟁쟁 들려오더라  
아, 우리 수령님의 그 말씀, 그 음성

-무엇이 첫째인가  
로동자들의 사기가 첫째요

## 나란히 서있는 두 공장

직기바다 정들어  
직기바다에 사노라던  
직포공처녀들이 기능공처녀들이  
시집갈 나이면 수없이 떠나들 갔네

시집가는건 좋은 일  
그걸 글썄 누가 막을수 있을까  
공장에선 어찌할바 몰랐네  
어찌면 좋담  
기능공문제를 어떻게 푼담

어느 봄날  
공장의 딱한 사정 들으신 수령님  
일군들을 데리시고  
압록강기슭을 오래오래 거니셨네

-시집도 보내줘야지  
여기에 《수도원》을 차려놓겠소  
자, 저기 갈밭을 밀어내고  
또 하나 공장을 크게 지읍시다

방직공장이 녀자들의 궁전이라면  
이제 짓는 공장은 남자들의 궁전ियो  
뭇게뭇게 흰구름같은 갈숨을 만들어  
방직처녀들에게 넘겨주는 공장  
그러면 밤낮으로 사랑단이 짜질걸  
처녀총각 결혼단이 흘러넘칠걸

수령님은 호탕히 웃으시고  
일군들은 너무 좋아 따라 웃고...  
그 기쁨에 떠받들려  
화학섬유공장이 땅을 차고 솟아올랐네  
방직공장과 나란히 사들을 맺었네

아, 압록강흐름이 끝없듯이  
오늘도 흘러흘러 넘치는 비단물결  
세월과 세월을 이어 끝없이 펼쳐며  
두 공장은 나란히 서있네  
영원한 사랑의 기념비처럼

## 그날은 9월 9일이였다

그날은  
그날은  
공화국창건 16돐을 맞이하던  
9월 9일

이날에 꿈같은 일이 있었다  
아직은 설비를 들여놓지 않은 염색직장  
공화국기발로 장식한 드넓은 방안에서  
우리 수령님을 모신  
공화국창건경축국가연회가 있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방직공들이 동군 연회탁에 앉았다  
아직은 이런 일이 있어본적 없었기에  
처음엔 누구나 믿을수 없었다  
참말 놀랍고 참말 행복해  
방직공처녀들은 눈물만 쏟았다

아, 수령님의 연설의 첫마디는  
여기 신의주방직공들과 함께  
공화국창건경축을 뜻깊게 맞이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

온 장내는 격정의 바다 감격의 바다  
박수를 치다가 만세를 웨치다가  
너나없이 모두다 소리내어 울었다  
수령님의 믿음이 끝이 없어서  
영광이 영광이 끝이 없어서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이날에  
방직공장의 완전조업도 함께 경축한다고  
수령님은 뜨겁게 제의하셨다  
축배를 들자고 높이 들자고  
공화국의 번영을 위해



방직공동무들의 건강을 위해

아, 축배잔에  
더운 눈물이 흘러들던 그날  
그날에 시작되었다  
우리 인민이 비단옷을 입는 력사가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력사였다

그날은  
9월 9일이였다  
축배를 부어주시던 수령님  
그이는  
우리 공화국이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이였다!

## 끝이 없는 하늘처럼

우리 나라를 찾아온 외국대통령이  
우리 수령님께 청을 드렸네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소문난  
신의주방직공장을 보여달라고

겸허히 웃으시는 수령님과 함께  
3층으로 높이 솟은 방직공장에 온 대통령  
그의 눈빛엔 의혹이 한껏 실렸네  
방직공장은 단층으로 지을수밖에 없는데  
고층건물이라니 웬일인가

수령님은 대통령을 이끄시고 오르셨네  
한층 또 한층  
층층마다 끝간데 없는 직기바다로  
층층마다 비단물결 흐르는 비단바다로

대통령은 오를수록 생각이 깊었네  
이 공장을 단층으로 펼쳐놓으면

그 부지면적은 헤아릴수 없겠구나  
여기선 하늘나라 선녀같은 처녀들이  
해와 별을 노래하며 천을 짜누나  
-수령님, 높은데서 천을 짜니 희한도 합니다  
소문처럼 동양에서 제일 큰 공장입니다

-아닙니다  
땅덩이 작은 나라다보니  
하늘을 좀 빌렸을뿐입니다  
자랑이라면 우리 식으로 공장을 짓고  
인민의 옷감을 짜는것입니다

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대통령은 마음속 깊이 찬탄하였네  
과연 위대한 사랑을 지닌분만이  
인민을 위해 하늘에도 공장을 지을수 있구나  
그이의 품은 하늘보다 넓구나!

## 명언해설

《관병일치, 군민일치는 우리 혁명군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고상한 품모이며 그어떤 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관병일치, 군민일치가 우리 혁명군대의 고유한 전통이고 품모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관병일치, 군민일치는 우리 혁명군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고상한 품모이다. 관병일치, 군민일치는 혁명군대안에서 지휘관과 병사들 그리고 군대와 인민이 친형제와 같이 서로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 고상한 품모이다. 제국주의군대, 침략군대 안에서는 관병일치, 군민

일치란 있을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혁명군대, 혁명적인민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고상한 품모이다. 관병일치, 군민일치는 지휘관과 병사, 혁명군대와 인민들 사이의 혈연적紐대를 보여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의 지휘관과 병사, 군대와 인민은 땀과야 땀수 없는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관병일치, 군민일치는 우리 혁명군대가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때려부시고 승리할수 있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 해삼대

군사분계선이 가로질러간 강원도의 어느 한 연신 지역에는 해삼대라고 부르는 깊은 골짜기가 있다.

해삼대란 그 어떤 행정구역의 명칭도 아니고 더구나 자연지도나 군사지도에 표기되는 정식지명도 아니다.

다만 국토분령의 가시철조망이 지나간 이곳에 주둔하고있는 민경초병들과 군인가족들의 입에만 자주 오를뿐 해삼대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해삼대란 말그대로 해가 하루 세시간만 든다는 뜻이다.

앞뒤로 큰 산이 막혀있는 해삼대의 남쪽산은 적들의 소굴이고 북쪽산에는 우리 인민군 민경초소가 자리잡고있다.

바로 이 두 산의 골짜기바닥으로 저주로운 군사분계선 철조망이 지나갔다.

골짜기가 깊어 오전 11시에 떠오른 해는 오후2시까지 겨우 세시간동안 우리측 초소를 비추주고는 이내 사라지고만다.

그래서 이곳 군인들의 입에서 생겨난 해삼대란말은 어느덧 초소이름으로 되었고 부대지휘관들과 주변인민들까지도 그들을 《해삼대초소》 군인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해삼대초소 민경군인들이 언제나 제일 그리워하는것은 해빛이었다.

그것은 구대원들의 심정도 그리하지만 특히 갓 입대한 젊은 병사들일수록 사방이 우중충한 산으로 둘러막힌 초소에 와서 하루밤만 자고나면 해빛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한동안은 얼굴에 그늘이 지군한다.

군무생활에 점차 습관이 되어 구대원이 되고 사관이 되면 점차 이런 생각을 잊게 되지만 역시 해를 조금밖에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군사복무 전기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해가 짧게 비치는 이 사정을 고려하여 상급참모부에서는 초소군인들의 생활일과표에 특별히 《해빛쪼이기》 시간을 따로 설정해주었고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면 군관가족자녀들이 다니는 분교의 너선생도 수업을 중지하고 모든 학생들을 운동장에 데리고나가 소년통동체조며 태권도를 배워주곤했다.

부대에서는 그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후방물자를 실은 차를 이들이 멀다하게 가파로운 령을 넘어 보내주었다.

해빛이 부족한 대신 전기를 넉넉히 쓰게 하여 전기로 밥을 짓고 병실을 덥히게 하였으며 저녁이면 TV 앞에서 평양의 모습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게

하였다.

보람찬 군무생활과 잘 지어진 생활조건은 종종 그들에게서 해빛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하였다.

이러한 해삼대초병들에게 있어서 요즘 해빛보다 더더욱 그리워지게 하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날마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 초소를 찾아주신다는 격동적인 소식이었다.

얼마전에는 감나무 우거진 녀성해안포중대를 찾아주시고 또 어제에는 대덕산초소를 찾아주셨으며 험난한 배길을 헤치시고 섬초소병사들을 만나주시였다.

《우리 초소에도 찾아오셨으면...》

그들은 누구나 이런 소망을 품고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욕망뿐이요,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이였다.

그들은 가파로운 령길과 아아한 산발, 깎아지른 듯한 벼랑으로 둘러막힌 해삼대의 지형을 근심스레 바라보며 어떻게 그이께서 높고 험한 이곳까지 오실수 있으랴 하는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을 달래곤 하였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욕망은 지긋은것이여서 그들은 서로 만나면 《언제면 장군님께서 우리 초소에도 오실가?》 하고 버릇처럼 묻곤하였다.

이러한 속에 날이 가고 달이 흐르던 어느날, 신입병사 남진은 처음으로 적진이 뻗히 바라보이는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있었다.

해솔은 동해바다가 통천에서 입대한 그는 아직 해삼대생활에 익숙되지 못하여 해가 짧게 비치는것을 매우 섭섭해하고있었다.

고향에서 보던 불같은 해님이 바다에서 불끈 솟는 동해의 장엄한 해돋이가 언제나 눈앞에 열른거리며 사라질줄 몰랐다.

10시가 되었는데도 해는 떠오를념을 하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데도 있는가?

그는 새삼스레 해삼대의 지형을 둘러보았다.

하늘은 검은 구름이 덮이고 산발들은 뿌연 안개속에 묻혀 겨우 윤곽만이 보였다.

남진은 눈을 비비고 적정을 살피었다.

어둑컴컴한 적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소한 징후라도 놓칠세라 긴장한 자세로 앞을 예리하게 주시했다.

초조한 마음으로 그는 다시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한시간은 있어야 해가 솟겠구나.)

그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의 탕개를 바싹 조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흐려졌던 하늘이 맑게 개이고 안개발이 엮여지면서 차츰 사위가 선명해오기 시작하였다.

머리를 쳐들던 남진은 놀란 눈을 크게 떴다. 분명 동쪽하늘에서 솟아오른 해는 부대장감시소가 있는 산마루 정점을 조명등마냥 환히 비쳐주고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직 이곳의 해돋이가 시간으로 보면 한시간은 실히 있어야 했다.

남진은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옛말에 해를 끌어올린 장수가 있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유난히도 밝은 해빛은 해삼대를 따사롭게 비쳐주었다.

그가 근무교대를 하고 병실에 돌아오니 초소장을 비롯한 군관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떨쳐나 신기한 조화를 두고 떠들썩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초소장에게 다짜고짜로 이렇게 물었다.

《글쎄 참 신기한 일ियो. 우리 해삼대초소가 생겨 처음 있는 일ियो.》

《우리 해삼대에 무슨 경사가 생기려는게 아닙니까?》

신입대원 남진의 천진한 물음에 초소장은

《경사가 생긴다? 하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그러자 군관들과 그 가족들도 모두 따라 한바탕 웃어댔다.

그날 해는 오후 2시가 지나고 3시, 4시가 되었는데도 지지 않았다.

그들은 온종일 따뜻한 해빛을 받으며 기쁨에 넘쳐 싱글벙글거리었다.

이때 해삼대초소로 대련합부대 부대장이 찾아왔다.

《차렷, 초소는 지금...》

초소장이 보고를 하는데 부대장은 그 보고가 끝나기도전에 《쉬엇하시오.》 하더니 꿈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대련합부대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감시소에 오르시여 해삼대초병들에 대한 은정어린 말씀을 주시었다는 것이었다.

《만세! 김정일장군 만세!》

순간 초병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웃으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이날 대련합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감시소에 오르시여 작전도를 펴놓으시고 부대장으로부터 무력배치정형과 적정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장의 보고를 주의깊게 들으시다가 《해삼대》라는 지명이 나오자 《가만!》 하고 그의 말을 중도에서 멈춰세우시었다.

《해삼대라. 그러니 바로 저기 안개속에 묻힌 골짜기가 그 해삼대입니까?》

그이의 뜻밖의 물으심에 부대장은 차렷자세로 힘차게 대답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대 일군들로부터 해삼대의 유래에 대하여 들으시고 그곳에는 지금 어떤 군인들이 초소를 지키고있는가, 가족들은 몇명인가, 앓는 병사는 없는가고 일일이 알아보시었다.

그러시고는 눈길을 드시고 한동안 해삼대쪽을 굽어보시다가

《하루에 해를 세시간밖에 못본다니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어 우리 군인들이 그러한 고통까지 당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무들을 금싸래기처럼 아껴야 합니다. 해빛을 적게 보는 대신 우리가 그들을 더 뜨겁게 사랑해주고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우리 전사들의 머리우에서는 언제나 태양이 밝은 빛을 뿌려야 합니다.》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이때 장군님의 안광에서는 광채가 평곳 빛났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하늘과 땅에서는 신기한 조화가 일어났다.

구름이 서둘러 물러가고 안개가 흩어지더니 찬란한 태양이 눈부신 빛을 다함없이 뿌려주었다.

초소장은 해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부대장동지! 저 태양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떠올려주신것입니다. 저 태양은 진종일 우리 해삼대를 밝고 따사롭게 비쳐주고있습니다.》

초소장의 목소리는 걱정에 넘쳐 껍껍 막히군하였다.

《그렇소! 우리 장군님은 전사들을 위해서는 해도 솟게 하시고 지는 해도 멈춰세우시는 사랑의 화신이시오.》

부대장은 초소장의 손을 힘있게 잡아흔들며 눈을 습벅거렸다.

너무도 크나큰 감동이 그의 온몸을 휩쌌던것이다.

이날 해는 저녁까지 해삼대를 밝게 비쳐주었다.

천기를 타고난분이시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해삼대의 상공에 해를 온종일 멈춰세우셨다고 한다.

참으로 우리 장군님은 천기를 한손에 거머쥐시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천출위인임이 틀림없다.

# 장군님의 전선길

정성환

가시는구나  
우리 장군님  
이 밤길을 다시 떠나시는구나  
장군님 최전선길 더는 걷지 마시라고  
병사들 어깨성 쌓고  
간절히 아뢰였던만

하늘이 무너져도 가야 하시는가  
땅이 꺼진대도 가야만 하시는가  
깊은밤  
삼태성 기우는 밤  
만류하는 마음들을 고맙게 받으시며  
보고싶은 병사들이 앞에도 있다고  
기어이 떠나신 우리 장군님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소리조차  
초병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최전선  
철령  
판문점  
섬방어대...

때로는 이 길에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때로는 미끄러운 언덕길로  
차를 밀기도 하시며  
천날을 이렇게 가시였던가  
만날을 이렇게 가시였던가

자동차불빛은 령너머 멀어져  
장군님 안녕을 바라는 마음들은  
안타까이 눈물에 젖어도  
그 누가 대신할수 있으랴  
제국주의열강과 싸우는 전선  
사회주의 지키는 력사의 위업을

그때문에 험산준령 굽이굽이  
차안에서 한순간 쪽잠으로  
겹쌓인 로고를 푸시면서도  
그때문에 한덩이 췌기밥으로  
하루의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기어이 가시는 장군님의 길이여

누구든 이 길에 서서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시라

그러면 책가방메고 가는 아이들의 학교길을  
무심히 볼수 없으리라  
삼태자를 실으려 하늘길 날으는 비행기동음소리를  
뜨거운 눈물 없인 들을수 없으리라

태어나면서 몸을 맡긴 행복의 세상  
하늘처럼 땅처럼  
절로 차려진것이던가  
이 길이 있기에  
하늘의 해빛이 눈부시게 밝은줄 우리 알고  
이 길이 있기에  
이 땅이 아름다운줄 알수 있는것 아니던가

장군님의 자옥자옥에서  
백두산악같은 기상이 온 나라에 나래치는 길  
탁아소요람으로 파스한 온기가 흘러가고  
인생의 행복을 꽃피우는 해빛이  
이 땅에 퍼져가는 길

이 길이 없으면 조선이 없어  
이 길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장군님  
비가 와도 가시는 길  
눈이 와도 가시는 길

아, 전선길 전선길  
장군님의 전선길은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가  
사회주의 무한계도밀에서 숨지는 길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의 위용떨치며  
세상 제일강국으로 솟아 빛나는 길

이밤에 단잠든 사람들이여  
부디 꿈에라도  
최전연 이 길에 마음을 세우시라  
장군님 결사옹위의 총대를 잡으시라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이밤도 우리 장군님  
전선천리 또 천리 먼길 가신다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하여  
위대한 전변을 불러오신다  
새 세기의 아침을 불러오신다

## 한떨기 진달래꽃을 보시고도

봄, 새봄이 왔다.

소생과 환희의 계절-새봄.

푸르른 하늘에서는 밝은 태양이 따사로운 빛으로 대지를 따사로이 어루만지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대지에서는 또 한해 엄숙한 겨울을 이겨낸 만물이 새 움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또한 첫빛운무에 싸인 먼 산발들은 점차 연록빛으로 물들고 산기슭의 나무가지들에는 파릇파릇 새잎이 피어난다.

꿀짜기들마다에는 연분홍빛 진달래꽃들이 활짝 피어나 봄바람에 설레인다.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깊은 계곡들에는 얼음이 채 녹지 않았건만 꽃망울을 활짝 터치고 남먼저 피어나 봄소식을 알리는 진달래.

내 조국땅 어디를 가나 흔히 볼수 있는 진달래꽃.

하나 이 꽃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위인들의 위대하고도 숭고한 사랑의 세계, 추억의 세계가 깃들어있거늘.

주체87(1998)년 4월 15일이였다.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절절한 그리움속에 밝아온 태양절, 이날을 맞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할 병사들을 생각하시어 어느 한 최전연구분대를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해가 서산에 기울무렵이 되어서야 귀로에 오르시였다.

그 길은 높고 험하기로 소문난 철령을 넘어야 하는 길이었다. 새들도 깃들이기 저어하는 사납고 가파로운 험한 고개, 오르며 내리며 수십리, 안개도 쉬어서 오른다는 소소리높은 철령.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려있는 철령의 뜻깊은 사적지들을 돌아보시고 고개마루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불어오는 봄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어 가없이 펼쳐진 산천을 바라보고계시였다.

얼기설기한 나무들사이로 내려다보이는 꿀짜기들에는 아직도 드문드문 눈이 쌓여있었지만 철은 속일수 없는것이어서 이 높은 령에도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멀고 가까운 산릉선과 꿀짜기마다에는 연분홍진달래들이 소담하게 피어나 봄바람에 하느적이고있었다.

령마루에 서시어 런던히 뻗어간 산발마다에 불타는듯한 진달래꽃무리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산안에 활짝 피어난 저 진달래꽃을 보시오. 철령의 진달래는 유별히 아름다운것 같습니다.》**

그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리쉽도 할겸 꽃구경을 하고 가자고 하시며 길가에 호합지게 피어난 한떨기의 진달래꽃으로 다가가시였다.

금시 온 녀을 앗아갈듯 아름답고 청초한 진달래의 매혹적인 모습, 타는듯한 연분홍빛갈...

모두가 진달래의 아름다움과 그로 하여 더욱 두드러지는듯한 철령의 독특한 산악미에 심취되어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일군들은 온 하루 병사들의 생활을 돌보시느라 피곤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잠시라도 휴식하시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진달래꽃이 무척 고맙게 여겨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유난히도 붉게 핀 진달래를 더욱더 바라보기도 하시고 굽이굽이 끝간에 없이 뻗어간 령길을 둘러보기도 하시다가 《진달래는 우리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에깊은 추억을 새긴 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조는 무척 부드러우시였으나 각별한 추억에 잠겨 하시는 뜻깊은 말씀이었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쁘신 길을 멈추시고 령길에 내리신것은 결코 잠시의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절해지시는 수령님 생각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굽이 절로 뜨거워나고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진달래!

항일의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진군의 길에서 그 향기를 맡으시며 해방의 일념을 뜨겁게 담으시던 꽃, 삼지연못가에서 아버지수령님께 꺾어드리면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충성의 마음 담으시던 조국의 진달래,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시기 위해 또다시 넘으시는 철령에 피어난 진달래...

봄이면 이 땅의 산과 들 어디에나 피어나는 진달래이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꽃에서 그리도 애뜻하고 사무치는 정서를 느끼시는것은 바로 조국의 진달래에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위인들의 고결한 애국의 녀과 숭고한 녀원이 깊이 어려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 가시는 길에 만발하여 소리없이 웃고있는 철령의 진달래, 명절날에도 로고속에 계시는 장군님께서 잠시라도 쉬어가시기를 바라 그윽한 향기를 한껏 풍기며 굽이굽이 령길에 피어나 설레이는 봄의 상징, 조국의 진달래. 참으로 천송이 만송이 그 꽃들은 장군님께 드리는 우리 인민의 축원의 꽃다발같았다.

령마루에 높이 서시어 아득히 펼쳐진 조국땅, 드넓은 대지를 더욱더 굽어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어디 가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번영하고 통일된 조국땅에서 행복하게 살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입니다!》

철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강산을 찌렁찌렁 울리었다.

한떨기 진달래꽃을 보시고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로고를 생각하시교 수령님의 유훈을 이 강산에 꽃피워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실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해마다 봄이 오면 남먼저 피어나 만산을 붉게 물들이는 연분홍빛 진달래꽃,

우리 인민은 엄혹한 눈보라와 찬서리를 쫓쫓이 이겨내고 피어나 봄소식을 알리는 진달래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의 새봄을 남먼저 맞이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 가사

### 태양의 미소 외 1 편

김선지

꽃피는 봄날에 찾을 때에도  
환하신 미소를 지으십니다  
눈내리는 겨울날 찾을 때에도  
태양의 미소만을 지으십니다

아-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그 미소  
우리에게 봄날만을 안겨줍니다

언제나 태양상앞에 설 때면  
받아안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영상 한번만 우러러보워도  
산악같은 새힘이 솟아납니다

아-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그 미소  
우리에게 봄날만을 안겨줍니다

대를 이어 수령복 안겨주시교  
태양의 미소를 보내십니다  
장군님 따르는 영광의 길에  
오늘도 밝은 앞날 펼쳐줍니다

아-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그 미소  
우리에게 봄날만을 안겨줍니다

### 우리들의 고향집

태어난 고향은 서로 달라도  
마음의 고향은 만경대 고향집  
태양이 솟아 해방의 봄 꽃피난  
우리의 고향집은 만경대 고향집

사람들 사는곳 서로 달라도  
우리 삶의 고향은 백두밀영 고향집  
이 세상 만복을 안아온 집이어서  
우리 삶의 고향은 백두밀영 고향집

누구나 고향의 그리움 있어도  
그리움의 절정은 어머니 고향집  
혁명의 길에 한생을 바치시고  
다시는 못찾으신 회령의 고향집

우리들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어도  
아 마음의 고향집은 3대장군 고향집

## 우리 아버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충실히 일하고있습니다. 그는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다 말아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세쌍둥이들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속에 행복하게 자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군혁명령도로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속에서도 세쌍둥이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신다.

조선인민군 제3차 청년일군대회가 성대히 진행되던 때의 일이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회의 진행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다가 많은 세쌍둥이군인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단히 기뻐하시였다.

그 시각 대회에 참가한 세쌍둥이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이 행복하게 자라 어느덧 어엿한 병사가 된 자기들의 모습을 대견스럽게 그려보고계시는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대회장을 찾으시였다.

순간 대회장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끝없이 설레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친아버이사랑속에서 최상의 특전, 특혜를 받으며 자란 세쌍둥이군인들은 너무도 기쁘고 감격하여 아버지품으로 달려가며 《만세!》의 환성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세쌍둥이들이 왔구만! 자, 어서 얼굴들이나 보자구라고 하시며 그들앞으로 다가서시였다. 그이께서는 행복에 겨워 목청껏 환호하는 세쌍둥이군인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이젠 그만들 하라고, 나는 동무들이 너무도 보고싶어왔다고 거듭 말씀하시며 그들을 진정시키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이 동무들이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귀여워하시며

애지중지 키우신 동무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세쌍둥이들은 세상에 태어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이 떠올라 솟구치는 걱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흐느끼고야말았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 보시오, 우리 세쌍둥이들이 얼마나 미덥소, 이제는 다 자라서 일당백의 군인이 되였소라고 하시며 로동당시대에 태어나 행복만을 누리며 자라난 그들이 오늘은 당과 조국,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조국보위초소에 섰으니 얼마나 장한가고,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보아도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가 얼마나 강한가를 잘 알수 있다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어린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신통히도 얼굴모습이 꼭같다고, 어느 부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군사복무가 힘들지 않는가, 고향의 부모들은 잘 있는가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알아보시고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고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의 귀여운 세쌍둥이들을 만났는데 기념으로 선물을 줍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손으로 직접 주겠습니다라고 하시며 세쌍둥이군인들 한명한명에게 사랑의 금시계를 안겨주시였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랴.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고도 무엇인가 부족하신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떠나시면서 일군들에게 세쌍둥이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어 그들을 훌륭한 병사들로 키울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정녕 세쌍둥이군인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일찌기 우리 나라에서 세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 그 어디에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그대로이다.

그 사랑속에 오늘 우리 세쌍둥이군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으니 이들보다 행복한 군인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 총대는 우리의 운명

함정언

안도의 밀림속  
그날의 대오이런듯  
우리는 정렬했다  
해빛 눈부신 4월의 광장에

유난히도 맑고 높푸른 하늘가에  
서슬푸른 총검의 숲을 안아올리며  
우리는 가슴헤쳐  
격정의 분화구를 터치노니

총, 우리는 총을 잡았다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백두의 폭풍을 풀무삼아  
강철로 버린 자위의 총

하고싶은 일 산처럼 많고  
가고싶은 길 하늘처럼 끝이 없어  
저저마다 꿈많은 시절  
공상의 나래 퍼덕이는 한시절이건만

우리는 총을 잡았다  
나의 삶 나의 희망도  
총대우에 꽃피어나고  
운명도 미래도 총대로 안아오기에

보라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형제들이여

은빛 총창을 비껴든  
저 릉름한 강철의 대오  
명령만 내리면  
승리의 군가인양 멸적의 동음높이 폭풍쳐가리  
방수포를 벗기는 무쇠철갑의 군단  
불수록 장쾌한 무적의 포신들

오, 이제 저기서  
쫓 구렁과 함께  
철의 불줄기가 쏟아지려니

보라  
백두산3대장군의 총을 물려받아  
그 어떤 싸움도 피할줄 모르고  
싸우면 백전백승만을 떨치는  
불패의 조선인민군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오, 우리는 총을 잡았다  
결사옹위의 총!

우리 운명의 총!

×

총을 바라면서도  
총이 없어  
제 땅을 밟으면서도  
설음을 묻고 피눈물을 뿌려야 했던  
그 인민이다

총이 없어  
조선민족의 흰옷대신 수의를 걸치고  
조선사람의 글과 이름마저 뺏기우고  
총에 맞고 칼에 찌켜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 인민이다

정녕 총이 없어  
원췌의 총탄에 맞아  
이국의 광야를 더운 피로 적시며  
숨지던 그 마지막순간에조차  
총, 총을 찾아  
가슴치며 부르짖던 그 인민이었다

주먹은 있어도  
가슴만 두드려야 했고  
힘은 있어도  
늘리우고 밟히우고  
제 나라의 푸른 하늘마저  
머리들어 바라볼수 없었던 그 인민

백년 전쟁사를 뿔내던  
오만한 미제를  
보총으로 맞서야 했고  
그것마저 없어 략동강가에서  
전우의 무덤우에 피같은 눈물을 뿌리며  
되돌아서야 했던 그 인민

오, 찬바람에 처량히 울던  
울밀의 봉선화마냥  
외적의 칼부림에  
존엄도 슬기도 다 찢기우던 인민

대포앞에  
창을 들고 활촉이나 날려야 했던  
어제날의 그 조선이  
총, 총을 잡았다

×

총이여

네가 없으면  
살아 노예의 사슬을 피할길 없고  
죽어 묻혀야 할 한치의 땅도 없어  
우리는 총을 잡았다

네가 없으면  
당도 없고 정권도 없고  
총대가 강해야  
조국이 강하고 인민이 흥함을  
사무치도록 골수에 새겼기에

우리는 이 땅 어디 가나  
백두의 병기창을 그대로 떠옮기고  
쌀과 고기보다 먼저  
총, 총을 버렸다

두번다시 강요당할수 없는  
치욕스런 노예의 운명앞에  
오직 총  
총으로 맞서야 했기에

우리는 귀여운 아이들에게  
젖 한모금  
사랑봉지 하나 변변히 안겨주지 못하고  
밥대신 눈물을 삼키며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수류탄을 부어냈고  
푼전을 쪼개가며 포탄을 깎았다

그때문이 아니던가  
열병대오의 발구름소리  
하늘땅을 진감하던 그날에도  
강성대국의 첫 포성으로  
온 우주를 떨치던 그날에도

아, 우리 장군님  
자신계선 인민을 믿으신다고  
그래서 남들처럼 배불리 먹이지 못해  
눈물을 삼키면서도  
국방건설에 자금을 돌리셨다고

그래서  
만경대가문의 사연깊은 총을  
마음속에 틀어쥐시고  
선군혁명 철학을 좌우명으로 간직한다고  
그리도 절절히 외우신것은

아, 총이여  
너를 위해 흘린 피 그 얼마이고  
너를 위해 바친 목숨 그 얼마랴만  
너를 위해 너무도 모진 세월을  
남모르게 참고 견디여오신  
장군님의 그 심중, 그 아픔을  
네 정녕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애오라지  
강성부흥할 래일을 위해  
준엄한 오늘을 단신으로 헤쳐가시는  
우리 장군님

찾으시는 병사들의 가슴가슴에  
은백색 총을 먼저 안겨주시여라

그래서 가시는 걸음걸음  
그 못잇을 백두의 권총을  
결연히 가슴속에 품으시고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이 땅  
붉은기 날리는 내 조국을  
총검의 숲으로 안아올리신것 아니더냐

×

오, 총이여  
너는  
맞서 싸우면 이기고  
앉아 굴복하면 죽는다는  
자주적삶의 철리를 깨우치는  
혁명의 보검

불속에도  
너를 틀어쥐면  
우리는 산다  
우리는 이긴다

꿈결에조차  
너를 놓치면  
우리는 죽는다  
명줄이 끊어진다

그때문이여라  
장군님의 정치도  
총대중시의 정치!  
장군님의 령도도  
총대 위주- 선군혁명명도!  
장군님의 철학도  
웅군애민의 철학

하기에 우리는 웨친다  
노예의 죽음이나  
자주적삶이나 하는 길에서  
끝까지 틀어잡아야 할 목숨같은 우리의 총  
총대는 조국의 운명  
총대는 민족의 운명  
총대는 혁명의 운명

그렇다  
3대장군의 숨결이  
뜨겁게 흐르는  
우리의 총!

이 총대로  
우리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이 총대로  
강성대국도 조국통일도 안아오고

이 총대로  
백두산에서 조준했던 혁명의 과녁을  
20세기의 마지막조성조문에 몰아넣고  
우리의 행성에서 영영 소멸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떨치려니

오 놓지 않으리  
놓지 않으리  
총대로 시작되고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할 그날까지

21세기의 태양을 받들어 영원할  
조선의 총  
무궁한 강성대국을 받들어 불멸할  
장군님의 총이여!

## 오늘도 그 모습앞에

김영택

오고싶어  
뵈고싶어  
또 왔습시다  
어머님!

눈여겨보면  
꽃잎 곱게 망울 터치던 삼도만의 봄날  
수령님을 뵈옵던 그 차림새입니다  
어려울 때면 언제나  
지하공작의 길 선참 떠나시던  
너무나도 낮익은 저고리차림새

붉은 기폭 날리는 주작봉마루  
영생의 언덕을 우러르면  
오늘도 수수한 그 저고리차림새로  
나를 맞아주시는 김정숙어머님

가슴속에 자라는 차넘치고  
아뢰고싶은 이야기 많고많아도  
그 이야기마저 송구스러워집니다  
차마 어머님앞에서만은

어머님의 한생은  
그 어느 하루도 편히 쉬신적 없이  
어려운 길은 남먼저 헤쳐  
자신을 깡그리 바쳐오신  
투쟁의 한생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뜨거움은 가슴속에 고패치며 흐르나니

비오면 찬비 다 맞으시며  
눈오면 찬눈 다 맞으시며  
어머님은 오늘도  
혁명가의 한생은 어떻게 빛나야 함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계십니다

아, 조국 위해 이룩한 제 몫이 없이는  
쉬이 어머님앞에 설수 없고  
어머님의 다정한 그 눈길은  
터놓는 가슴속 티물은 량심도  
순식간에 깨끗이 씻어주시는듯

나는 보았습니다  
창공높이 솟은 대성산혁명렬사릉우에  
거연히 서계시는 위대한 모습  
수령님 옹위하신 친위전사의  
불굴의 기상을

사람마다  
걸어온 한생을 여기서 총화하고  
내릴 때에는 내릴 때에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실 한마음  
뜨거운 맹세로 굽이치나니

오고싶어 오를 때마다  
뵈고싶어 찾을 때마다  
혁명가의 자세와 의지를 키워주며  
위훈과 투쟁으로 불러 이끄시는  
아, 혁명의 어머님 거룩한 모습이여!

## 만강에 올려퍼진 《사향가》

노래가 없는 혁명은 승리할수 없으며 노래없는 나라는 흥할수 없다는것,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조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수많은 노래들을 창작하시였으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혁명의 노래, 추억의 노래를 부르시여 사람들에게 굳은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들중에는 그이께서 남달리 사랑하시던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가 있다.

주체25(1936)년 봄에 있는 일이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부대는 마안산밀영을 떠나 만강에 머물고있었다. 숙영지가가이에서는 개울물이 해빛을 싣고 즐거운듯 조잘대며 흘렀고 숲속에 피어난 갖가지 꽃들에선 연한 꿀내가 향기롭게 풍겼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강에로의 행군을 앞두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대원들의 숙영지를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를 추억하시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어느날 나는 동강회의에 내용을 보고문준비를 끝내놓고 개운해진 기분으로 경계초소들을 돌아보며 강기슭에 나갔다. 그런데 어디선가 향수를 자아내는 청아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노래소리가 나는 뚝쪽 시내가에 올라가니 버들숲속에서 녀대원들이 빨래를 행구고있었다. 그중의 한 대원이 김정숙이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

봄의 정취에 한껏 김정숙동지께서 빨래를 행구며 어릴적에 부르던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였다.

노래가 끝나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도 고향생각이 나는 모양이군!》**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제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울가에 나오신것을 아시고 녀대원과 함께 일어서시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시였다.

**《조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고향의 봄이 각별히 그리운 법이요. ... 우리 조선은 이맘때면 참 아름답소.》**

이렇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을 그리시는듯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윽하여 고향 만경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였다.

**《대동강에 얼음이 풀리고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면 만경봉에 진달래가 붉게 피고 초가집 울안에도 복숭아꽃이 피군하였소. 4월의 만경대는 꽃속에 묻혀 그림처럼 아름다웠소.》**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시장철 푸르싱싱한 소나무와 갖가지 꽃속에 묻힌 아름다운 만경봉, 그 기슭에 오봇이 자리잡은 키낮은 초가집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승엄한 마음으로 그이의 말씀을 듣고계셨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을 떠나오시던 때의 일이며 아버님과 어머니에 대해서도 감회깊이 회상하시였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걸으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 이국땅에서 중환으로 돌아가신 일이며 강반석어머님께서 김형직선생님의 유언을 받드시고 수령님을 공부시키기 위해 병깊으신 몸으로 샷빨래, 샷바느질을 하며 고생하신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그 가슴아픈 추억이 안겨오는듯 피로움을 삭이시려는듯 자주 말씀을 끊으시고 먼산을 바라보기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갓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를 이끄시고 원정의 길을 떠나시기에 앞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뵈던 비통한 사연도 이야기하시였다. 병깊으신 어머니님과 어린 동생들을 이국의 한적한 산골, 거치른 갈밭속의 외로운 초가에 의지없이 남겨두시고 기약없는 싸움의 먼길을 떠나야만 하였던 경애하는 수령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던가. 그러나 자신께서 떠나시는 그 길이 바로 어머니께서 바라시고 온 나라 인민들이 념원하는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는 길이라는 큰 뜻을 가슴에 새기시고 결연히 집을 나서시였다.

어머님의 뜨거운 바래움속에 남만원정을 떠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준령을 넘고 밀림을 헤치는 험난한 행군길에서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을 다시금 느끼시고 눈굽을 적시시였다.

어머님께서 머리태를 잘라 신발밑에 남모르게 깔아주신것을 보시였던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인줄 그 어이 아셨으랴...

말씀을 끊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이윽도록 개울가를 거니시였다. 그러시다가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나직이 노래를 부르시기 시작하였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돌아가신 부모님과 두고오신 동생들을 그리시면서 아름다운 고향과 조국을 생각하시는 수령님의 그 은은한 노래는 김정숙동지와 녀대원의 가슴속에 떠나온 조국에 대한 이룰수 없는 숭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노래를 끝마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우리 인민이 것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조국강토를 두고 바람 세찬 이국땅에 와서 해매

게 된것은 피맺힌 원썩 일제침략자들때문이며 조국을 찾는 길은 오직 일제를 때려부시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이후에도 쓰라린 상실의 아픔을 겪으시며 혈전만리 피바다를 헤쳐가시던 간고한 항일혁명의 나날을 더듬으실 때면 자주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를 부르곤하시였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곧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며 그 소중한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아름답고 숭고한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사향가》는 오늘날도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해 준마타고 구보로 달려가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 혁명의 노래로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

## 고향벌에 울리는 발동소리

한기운

낮에도 밤에도  
시창가에 붉은기 날리며  
줄줄이 뻗지어 땅을 다스려가는  
불도젤동음소리

아 흐르는 세월속에 사연도 많던  
그 꼬부랑두령들을 쭉쭉 펴가며  
전변의 새 언덕 너머  
아득히 펼쳐지는  
고향벌의 새 모습이어

바라볼수록 새롭구나  
천평짜리 논배미들  
일매진 규격포전들  
꿈만 같아

바라볼수록  
꿈이 아니라고  
불도젤 발동소리  
이 가슴을 두드리며

못잊을 그 새벽을 안겨주거니

아 나라일이 바빠도  
인민들을 잘살게 하려고  
이고장에 자주 오신다고  
두령 많은 벌을 쭉쭉 밀어  
새 땅을 찾아내자고  
뜨겁게 쏘아부으신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뜻을 안고  
낮에도 밤에도 울리는 발동소리  
이 땅 이 농토에서  
세월의 마지막주름살까지 지워가는  
저 발동소리

가슴가득 안겨오는구나  
온 조국땅 별마다 《청산리》가 되어  
강성대국의 새 모습으로 들어설  
새 세기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 사랑의 바다, 생활의 탐구

-문학작품집 《경례를 받으시라》에 실린 세편의 단편소설들을 중심으로-

리용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정치는 혁명적군인 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달리고 또 달려 주체 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친 정성옥영웅과 같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수많은 낳았으며 전체 인민이 견인불발의 투지로 일떠나 강성대국의 새 아침을 향해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리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고있다.

선군혁명명도로 **김일성**민족이 가장 위대하고 강한 민족으로 세상에 우뚝 솟아 빛나고있는 성스럽고 위대한 시대가 우리 소설가들을 부르고있다.

시대의 부름에 화답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위대한 장군님의 군령도엄적을 형상한 소설창작에 힘을 넣어 그것을 본보기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작품이 혁명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우며 온 사회에 혁명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이 차넘치게 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어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으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이 안겨오는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생활이라는 새로운 주제분야에 낯을 돌릴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가슴 뜨거워지는것은 병사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병사들에 대한 사랑, 그것은 사상적기초에 있어서나 그 폭과 깊이, 열도에 있어서 최상의 경지에 이른 사랑이며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위대한 사랑이다.

단편소설창작에서 이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감동 깊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장군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 덕망의 위대성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을 탐구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쉬임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부대현지시찰의 길은 감동의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수많은 사랑의 전설로 수놓아지고있다.

정녕 장군님께서 깊이도 기슭도 헤아릴수 없는 깊고도 넓은 사랑의 바다를 지니시고 병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이야기는 빛과 향기가 서로다른 꽃송이처럼 무한히 다양하고 이채로운 가지가지

사연들로 하여 만사람의 가슴을 후덥게 하고있다.

생활탐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흔히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로 형상화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최근 위대한 장군님의 군부대현지시찰을 내용으로 한 단편소설들을 활발히 창작하기 시작한 때에 나온 문학작품집 《경례를 받으시라》에 실린 단편소설 《감》(최학수 작), 《붉은 눈보라》(리희남 작), 《기다리고계신다》(김청남 작)가 독자들속에서 사랑을 받는 원인의 하나도 작품들에서 오늘의 생활을 옹계 탐구하여 형상한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적품모를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한 생활탐구에서 우리가 우선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의 하나는 장군님과 병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형상이다.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해빛같은 사랑과 두터운 믿음으로 하여 병사들의 가슴가슴은 충성과 효성의 맹세로 불타고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최고사령관이시기전에 친아버이가 되시여 병사들을 보살펴주시며 병사들은 그이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고있다. 하기에 장군님과 병사들의 관계는 혈연적인 관계,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로 되고있다.

이 인간관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만 장군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주는 생활을 펼쳐보일수 있다.

단편소설 《감》이 좋은 경험을 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장군님께서 《감나무중대》, 녀성해안포중대를 찾으시여 대를 이어 총을 쏜 녀병사와 그의 부모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세상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를 펼쳐보이고있다.

하지만 독자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와 같은 흥미와 감동을 가지고 소설의 마감장을 번지게 된다.

그 형상적비결의 하나가 인간관계의 탐구에 있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단편소설에서는 두세명 정도의 인물을 등장시켜 생활을 형상하였다.

단편소설에는 남녀 두명 정도의 인물설정이 리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이 낡은 경험과 이론에 포로되어서는 장군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원만히 형상할수 없다.

소설의 첫부분에서는 장군님과 해안포중대 녀병

사들과의 관계가 펼쳐지고 다음부분에서는 장군님과 상등병 석영실이와의 관계, 마감부분에서는 장군님과 석영실의 부모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작품에서는 매번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여 새롭게 장군님과 관계가 맺어진다. 얼핏 보면 인물관계가 토막나고 일관된 인간관계의 심화발전과정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모든 인물관계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를 보여주는 폭넓고 거세찬 흐름을 이루고있다. 그것은 매번 새롭게 맺어지는 인물들과의 관계가 장군님의 고매한 덕망의 새로운 면모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여주기때문이다.

어찌하여 장군님께서는 알섬방문을 마치시고 일정에 예견되지 않았던 녀성해안포중대에로 방문로정을 바꾸시는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섬까지 왔던 기회에 녀성해안포중대에도 들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제작년초에 거기 갔을 때 녀성포병들이 너무 떨어지기 아쉬워하기때문에 감익는 계절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빠서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감계절까지 못가주면 절해고도나 다름없는 외진 해변가에서 지내는 그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습니까.》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다.

병사들에게 약크림도 보내주시고 감계절에는 금시계와 모포를 안겨주시고 평양견학에 평양랭면까지 맛보게 해주신 장군님, 오늘은 그들과의 약속을 것처럼 귀중히 여기시니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그 사랑의 손길로 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이며 교양실을 일일이 보아주시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르면서도 독자들의 생각은 깊어진다.

서방의 어느 한 정책은 정치가는 사랑이나 증오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타산이 아니라 사랑에 따라 움직이며 리기가 아니라 심장으로 선군혁명정치를 펴나가는 특출한 성품을 지니신분이시다.

소설은 이 부분에서 장군님의 특출한 인간적품모가 안겨오도록 형상하였다.

소설의 다음부분에서는 장군님께서 수십년전에 어버이수령님께 꽃다발을 올렸던 녀성군인의 딸, 어머니가 섰던 초소에서 대를 이어 총을 잡은 석영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생활을 형상하였다.

그의 나이며 고향, 생활경력을 물어주신 장군님께서 노래를 들어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장면들을 읽는 독자들의 눈앞에는 천하를 굽어보며 대지에 핀 작고 이름없는 한송이의 꽃에도 아낌없이 빛을 뿌려주는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매 병사들에게 미치는 장군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심하고 섬세한것인가를 가슴뿌

듯이 느끼게 된다.

며칠후의 생활이 펼쳐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앞서와는 다른 장소에서 장군님과 새로운 인물들과의 관계가 맺어진다. 머나먼 북방의 대련합부대에 가서 그곳에 사는 석영실의 부모들을 잊지 않고 찾으시여 딸의 소식도 알려주시고 훌륭하게 딸을 키웠다고 인민군장병들을 대표하여 감사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초소에 심은 감나무열매까지 맛볼수 있도록 관심을 돌려주시니 장군님의 사랑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이 부분의 생활은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사랑, 그것은 언제나 병사들을 마음속에 안고계시는 사랑이며 우리 병사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시며 본인들도 모르고 지내는 애국적량심과 고결한 넋을 찾아주시는 웅심깊은 사랑이며 그칠새없이 련이어 베풀어주시는 끝도 기슭도 모르는 사랑이라는것을 절절히 보여주고있다.

소설에 련이어 새롭게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군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랑, 전설과도 같은 사랑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장군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로 지향되었고 복종되었다.

소설은 끝났어도 독자들의 가슴속에서 감동의 줄기찬 흐름은 멎을줄 모른다.

매 인물관계를 통하여 새롭게 펼쳐지는 생활사실들이 제각각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의 사상정서적흐름을 이루어 장군님의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는것으로 된 또하나의 형상적요인은 신비한 자연현상에 대한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 《나》의 느낌을 인물관계발전을 이어주는 고리의 하나로 삼은데 있다. 사랑의 이야기들은 모두 까치의 아침울음소리, 서리 내리는 마가일에 핀 해당화, 퍼붓는 소낙눈과 더불어 펼쳐진것이다. 동화나 전설에서 볼수 있는 신묘한 자연조화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의 생활내용과 그리도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장군님께서 병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세계자체가 하늘이 낸 위인이 줄수 있는 신화적사랑, 전설적사랑의 절정을 이루는것으로 형상되었기때문이다.

소설의 첫시작부터 마감까지 펼쳐지는 신비한 자연현상에 대한 《나》의 느낌은 인간관계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것은 없어도 새롭게 맺어지는 인물관계속에서 우러나오는 생활사실들을 하나의 일관된 감정정서적흐름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소설에서는 혈연적관계로 이어지는 장군님과 병사들사이의 관계를 깊이있고 특색있게 탐구하여 군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선군혁명정치를 펼쳐가시는 장군님의 덕망의 위대성을 감동깊게 보여줄수 있었다.

생활탐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묘사하는것이 중요하다.

수령의 인간성은 행동이나 대사에서도 나타나지만 내면세계를 펼쳐보이는데서 뜨겁게 발현된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인간적풍모를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간적풍모를 그럴 때 장군님의 풍부하고도 극적인 체험세계, 심리적굴곡과정을 진지하게 파고들지 못하고 군부대시찰의 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척척 풀어주시는 외형적인 모습만 형상해서는 안된다.

사실 장군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련과 마음고생을 많이 겪어오시는분이다.

아버이수령님을 잃고 크나큰 슬픔과 아픔을 가슴속에 안고계시는 우리 장군님앞에 얼마나 많은 난관과 시련이 나섰던가.

단신으로 《고난의 행군》의 앞장에 서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에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이신들 왜 가족들과 단란하게 명절과 휴식일을 보내고싶으신 생각이 없으시며 힘들고 춥고 무더운줄 모르시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지켜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시려는 일념으로 쪽잡과 제기밥으로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선군혁명정치를 펼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입니다.

소설들에서는 장군님의 풍부하고 극적인 체험세계, 굴곡있는 내면심리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묘사해야 한다.

독자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불어오는 한줄기의 눈보라인양 잊혀지지 않는 단편소설 《붉은 눈보라》.

소설에서는 주체86년, 온 나라가 설명절을 즐기는 새해 첫날에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펼쳐진 생활은 불과 몇시간밖에 안되는것이다. 이렇다 할 구체적인 인물관계와 일관된 사건도 없다.

하지만 소설에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그리는 절절한 체험세계가 폭넓게 그려졌으며 3대에 걸치는 만경대일가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대한 폭과 깊이 가진 극적인 생활, 내 나라의 오늘과 래일, 내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거창한 사변적인 생활사실들이 펼쳐지고있다.

그 생활을 통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골간으로 역세계 준비해가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원한 뜻을 가지고있는가를 밝힘으로써 장군님의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대답하게 장군님의 체험세계를 정면에서

파고들어 비범한 철학세계, 지성세계가 느껴지도록 내면심리를 묘사하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고 만경대혁명학원으로 가시는 장군님의 내면심리를 주로 수령님을 모시고 지낸 잊을수 없는 지난날에 대한 추억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날들에 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느낌이 안반침된 철학적이고 분석적인 사색으로 일관되게 묘사하였다.

만경대어구에 이르신 장군님의 눈앞에 떠오른것은 몇해전인가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던 진달래꽃 만발한 봄날이었다. 그날 유서깊은 만경대에 오르신 수령님께서 학원을 내려다보시며 깊은 감회에 잠겨 혁명의 피줄기를 이을 공간을 키우느라고 세운건데 은을 낸다고, 세상에 보기 드문 이 원종장에서 호랑이들을 키워 어제오 늘도 래일도 대를 이어 혁명을 해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장군님의 가슴을 그리도 세차게 두드리는것이 아닌가.

대를 이어 혁명을 해야겠다는 그 말씀을 새겨보시는 장군님의 사색은 혈통문제에로 번져가신다.

《혁명에서 혈통문제란 생명과도 같은것이다.

수령님께서 이 사활적인 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바로 이때문에만도 만민이 수령님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있는것이다....

장군님께서 절절한 느낌을 안으시고 해방후 어머님과 만경대를 찾으시였을 때 김보현선생님이 내놓으신 붓, 어제날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이란 필적을 남기시였고 수령님께서도 《조선독립》이란 글을 쓰신 붓으로 자신께서 《김일성장군만세!》라는 필적을 남기시였던 일을 회상하신다.

의미심장한 나날들을 새기시며 그 어떤 눈보라도 헤치고 만경대의 혈통을 대를 이어 튼튼히 이어갈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는 장군님의 내면심리를 만경대에 장엄하게 솟아있는 소나무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내면심리묘사를 두고 독자들은 생각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총대로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완성함으로써 주체혈통을 뜻깊이 이어가시려는 장군님의 혁명적신념, 강철의 의지와 더불어 숨쉬고 맥박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혁명무력의 골간으로 역세계 준비해가는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철학이 있는것이다.

웅심깊은 세계를 받아안으며 우리는 선군혁명정치와 새 력사와 더불어 펼쳐지는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에 깃든 깊은 뜻을 새겨보게 된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서세계도 깊이있게 그려내었다.



사실 감정정서는 사상, 의지와 함께 내면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소설의 내면 심리묘사에서 감정정서를 옹계 그려야 생활을 감동적으로 형상할 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심리묘사를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서세계를 깊이 탐구하여 위대한 인간세계의 높이에서 펼쳐보여야 한다.

이 소설에서 사연깊은 만경대의 눈보라를 혁명의 붉은 눈보라로 느끼시는 장군님의 심리정서세계를 얼마나 깊이있게 그려내었는가.

어린 시절부터 눈보라와 깊은 인연이 있는 장군님께서 만경대의 눈보라를 두고 력사의 온갖 풍파를 헤쳐오신 김형직선생님과 수령님의 한생을 그려보신다. 그 눈바람소리에서 전진과 투쟁을 갈망하는 비상한 열정, 눈보라와 길동무가 될 운명의 호소를 들으시는가 하면 대를 이어 안아와야 할 장구한 미래도 안아보시는 장군님, 그 눈보라를 두고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지켜갈 사명감, 책임감으로 불타는 장군님이시기에 자신계로 달려오는 원아들의 붉은 넥타이, 정복에 친 무수한 붉은 줄이 어울려 훔날리는 눈발들을 붉은 눈보라로 느끼신다. 21 세기는 붉은 눈보라를 가진 우리의것으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신다.

장군님의 이 정서세계는 뛰어난 시인도 쉽게 감득할 수 없는 숭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체험세계이다!

이 묘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장군님께서 지니신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심원한 뜻을 커다란 감흥을 가지고 받아안도록 하는데 이바지되었다.

단편소설에서는 내면심리묘사를 짧게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가 폭넓고 깊이있게 느껴지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풍부한 인정세계는 심리묘사를 길게 하여야만 펼쳐보일 수 있는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대한의 함축과 비약으로 간결하게 생활을 형상해야 할 단편소설의 특성으로 하여 장편소설에서와 같이 내면세계묘사를 길게 할 수도 없다.

단편소설 《기다리고계신다》에서는 판문점시찰을 통하여 장군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용맹,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시는 로고와 헌신성의 요인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고있다.

장군님과 판문점초병들사이에 펼쳐지는 생활은 많지 않다. 장군님과 연고관계가 있는 인물도 없으며 병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내면세계도 간결하게 묘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 초병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가슴뜨겁게 안아보게 된다,

소설에서는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를 미리 까밝혀 묘사하지 않았다.

바다물속에 잠긴 빙산의 거대한 몸체를 서서히

드러내듯 웅심깊은 사랑의 세계를 점차적으로 펼쳐보일 수 있게 장군님의 심리를 묘사하였다.

판문각 로대에서 내리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초병들을 만나시었을 때 장군님의 심리를 저 미더운 판문점초병들을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이곳 군인들은 최고사령관이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만나 보고싶었는지 다는 모를것이라는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

장군님의 초병들에 대한 관심과 절절한 그리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뒤부분의 심리묘사에서 점차 해명해들어가고있다.

장군님께서 어제 만나본 초도방어대동무들도 여기 동무들도 맨먼저 결사전을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에 잠기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련속 치밀어오르는것을 느끼셨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그것은 어느 한순간도 잊은적 없는 조국통일의 절절한 감정이었고 강렬한 의지였다.》

이 내면심리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초병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는 관심이며 믿음이라는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믿음과 관심이 얼마나 심원한 뜻을 가지는가는 다음부분의 내면심리묘사에서 깊이 펼쳐보이고있다.

장군님께서 판문점초병들에게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고 사색에 잠겨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신다. 그이의 사색속에는 저 멀리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시였다. 수령님께서 깊은 심려를 안으신채 남녘겨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지금도 편히 쉬지 못하고계실것이며 조국강토에 통일의 환호성이 진감할 때, 그때라야 수령님께서 시름을 놓고 편히 쉬실것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렇다. 판문점초병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 그것은 가장 어렵고 위험한곳에 내세운 자식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심정일뿐아니라 남녘땅을 잊지않고계시던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와 맥맥히 이어지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 다함없는 사랑인것이다.

이것이 소설의 길지 않은 심리묘사를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병들에 대한 웅심깊은 사랑의 세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하기 위한 생활탐구에서 인간관계와 내면심리묘사에 주의를 돌려야 하지만 여러가지 형상수단과 수법들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일부 수령형상소설들에서 생활이 기쁨이지 못하고 딱딱하고 메마른것은 형상수단과 수법을 옹계 활용하지 못하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된다.

작품에서 시점설정도 다양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생활을 작가나 제3의 인물시점에서 그럴 수 있

으며 수령의 시점에서 깊이있게 그리기도 하여야 한다.

적지 않은 단편소설들에서는 흔히 측근인물의 시점에서 생활을 그리고있으며 수령의 시점에서 생활을 그리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매우 조심스럽게 격식화하여 소극적으로 그리고있다.

둘이켜보면 수령형상단편소설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소설들이 당시 우리 인민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주는데 한몫 하였으며 이후시기 수령형상단편소설 창작에 귀중한 경험을 넘겨준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성과를 두고 만세만 부르고있을수 없다.

이 작품들가운데서 수령의 시점에서 수령의 내면 세계를 파고들어 생활을 그린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날이 갈수록 더욱 절절히 느껴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은 결코 구태의연한 형상 수단과 수법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옹게 그려낼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이 집약되어있는 선군혁명정치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현실은 그이의 인간적품모를 옹게 형상할수 있는 형상 수단과 수법의 활용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올것을 요구한다.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대담하게 형상 수단과 수법을 활용하여 장군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그려낸것이 단편소설 《붉은 눈보라》이다.

소설에서는 장군님의 내면심리를 정면에서 파고들어 회상과 환상, 상상,련상의 수법들을 자유분방하게 활용하면서 장군님의 사색의 폭과 깊이, 숭고하고 아름답고 풍부한 정서적체험세계를 원만히 그려내었다. 이는 사상도 의지도 감정정서도 장군님을 닮으려는 작가의 불같은 지향과 노력의 산물이다.

단편소설 《감》은 1인칭형식으로 장군님의 덕망의 위대성을 보여주고있다. 적지 않은 소설들에서 흔히 쓰는 형상수법이지만 그것을 작품의 사상 주제적내용과 형상생리에 맞게 효과있게 활용하였다.

소설에서는 일관된 사건이 없고 고정된 생활무대도 없이 장군님의 녀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를

감정정서가 질게 펼쳐보여야 하였다.

격이 있는 인물이면서도 감성적인 최고사령부작전 지휘성원인 《나》의 느낌과 사색을 통하여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가 의미깊은것으로 형상되게 하였으며 여러 생활사실들을 하나의 감정 정서적흐름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소설들의 경우는 대담하게 형상수단과 수법을 새롭게 활용하는것이 필요하며 흔히 쓰는 형상수단과 수법도 작품의 내용에 맞게 적극 활용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기다리고계신다》는 사상주제적내용을 무게있게 형상하기 위하여 여러 인물의 시점을 엮바꾸어가면서 생활을 립체적으로, 분석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하여 복잡하지 않고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조국통일사에 길이 남을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의 력사적 의미를 깊이있게 해명하였을뿐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거인적 인간상, 위인상을 웅당한 높이에서 형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한 이 단편소설들의 생활 탐구에서 보여준 성과와 경험은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끊임없이 탐구의 세계를 헤쳐가는 우리 작가들이 한층 도약할수 있는 발판으로 된다.

사실상 군부대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선군혁명정치를 떠나가시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 그것은 퍼내도 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바다와 같이 끝이 없으며 닦을수록 빛나는 보석처럼 파고들면 들수록 그 아름다움으로 하여 황홀하다. 그 황홀함을 우리는 세계 《마라손녀왕》 정성옥선수에게 베풀어주시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만을 두고도 절감하고있다.

절세의 위인의 숭고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인간 세계를 형상대상으로 하는 우리 작가들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차고 긍지로운 작가들이 어데 있으랴.

이 사랑의 세계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되어 선군혁명정치를 높이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작가들, 거둔 성과를 토대로 하여 생활탐구의 길을 새롭게 열여가는 작가들에 의하여 독자들앞에 더욱 눈부시게 펼쳐질것이다!

## 봄안개 흐른다

김진욱

### 밀영에 날아든 희소식

눈보라!  
눈보라!

채찍 같은  
칼날 같은  
눈보라, 눈보라...

땅이, 수림이  
얼음같이 쨍쨍 터갈라지는  
밀영의 밤

그 비명소리를, 그 신음소리를  
가슴저미는 아픔으로 들으시며  
눈발속에 서계시는 **김일성**장군님!

눈우에 찍으신 무수한 자욱  
그 깊은 자욱자욱우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실으시였는가

빼앗긴 땅, 짓밟히는 땅  
얼음같이 쨍쨍 터갈라지는  
그 땅, 그 수림들...

그 비명소리, 그 신음소리  
구원을 바라는 부르짖음!  
소생을 바라는 부르짖음!

앞당겨와야 하리  
앞당겨와야 하리  
그 구원의 새봄을!  
그 소생의 새봄을!

다시 자욱을 찍으시며  
한그루 이깎나무앞에  
걸음 멈춰서시는 장군님

터갈라진 밀둥  
그 상처를 쓰다듬으시는데  
보초소쪽에서 달려온 대원  
거수경례 올리고 보고드리여라

《장군님, 보초소에 손님이 왔습니다  
길성촌농민협회 회장이라면서  
장군님을 꼭 만나뵙겠습니다》

《길성촌농민협회 회장이라면  
내가 잘 아는 강명준동무요  
어서 안내하도록 하오!》

《예, 알겠습니다》  
반기시는 장군님의 안색에서  
그 무슨 희소식을 예감해서인가  
나래돌쳐 달려가는 대원...

이윽고 눈발속에서  
희색이 만면하여 다가서는 중년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강명준동무,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이밤 70리길을  
눈보라를 헤치면서까지?...》

《장군님, 기뻐해주십시오  
장군님께서 주신 특별과업을 수행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특별과업? 아, 그렇지  
박덕삼동무의 약혼문제로구만  
그래,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그날 밤 장군님께서  
박덕삼동무의 일을 두고  
그처럼 가슴아파하신 사실을  
길성촌이 줍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썽  
마을의 좌상로인 되는분이  
보옥이라 이름짓고 애지중지 키운 증손녀를  
선뜻 주겠다질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구만!  
그렇게 풀렸구만!  
명준동무, 큰 일을 하였습니다  
희소식중의 희소식입니다!》

기쁨에 넘치신 장군님께서  
명준의 손을 다시금 잡으시는데  
부대의 후방부관이 황급히 다가서라  
《장군님, 손님이 왔다가에...》

《잘 왔소, 찾으려던 참이었소  
만석동무가 매사를 앞질러 생각하며  
이렇게 한걸음 앞서 와주니 고맙소  
어서 인사를 하오》

장군님께서는 명준의 앞에  
만석이를 내세우시여라  
《우리 부대 후방부관동무입니다》

만석이와 명준이 얼싸안을듯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눈뒤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시고  
불무지에 다가가시여라

《여기에 앉읍시디  
앉아서 이야길 합시다》  
쓰러진 진대우에 걸터앉으시며  
만석이를 옆으로 부르시는 장군님

《만석동무, 내 일전에  
길성촌에 들러 수일간 묵었댔소  
그때 명준동무네 집에서  
신세를 많이 졌댔소

저녁마다 마실군들이 모여왔는데  
남녀로소가 차고넘쳤댔소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별의별 질문을 다 하였댔소

장군님 군사가 총 몇명인가?  
속사포도 있다는데 사실인가?  
일본이 언제 망하는기?  
...

그런데 하루는  
머리를 뽀뽀 깎은 30대 청년이  
사람들 틈에 끼워있었소

상씨름군같은 허우대에 비해선  
지나치게 솟되고  
너무도 어리무던한 사람이었소

그 젊은이는  
남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병긋병긋 웃음만을 지었댔소

그러다가도 나와 눈이 마주치면  
앞사람의 등뒤에 몸을 숨기며

고개를 움츠리는것이었소

무엇인가 말할듯하다가도  
기가 죽어버리는걸 보면  
그가 혹시  
병어리가 아닌가 생각되었소

옆에 앉은 한 로인이  
그를 대신하여 입을 열었댔소  
<장군님, 이 사람은 머슴이외다  
혈혈단신 로총각으로 지냈지요

이름은 박덕삼이라고 하는데  
남도출신이라는것만 알지  
고향도 부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어림쳐서  
서른안팎이라고만 하지  
확실한것은 모릅니다>

가까이 다가앉아  
손을 쥐여보니 복두갈구리같았고  
어깨를 만져보니 나무등걸같았소

사람이 천대받고 억눌리면  
심장도 돌처럼 굳어져버리고  
온몸도 나무처럼 터갈라지는것이었소

조혼에다 매혼까지 성행하는 때이니  
그자리엔 열살난 새서방도 있었더랬소  
그의 나이 세곱이 되도록  
짹없이 늙어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소

마실군들이 다 헤어진 다음  
나는 이 명준동무에게 물었댔소  
저 사람이 아직까지  
장가를 왜 못갔는가고?

이 명준동무의 대답이  
머슴살이처지이니  
누가 그에게 딸을 주며  
누가 그를 사위로 맞겠는가 하는거였소

나는 그날밤  
나라 없는 우리 민족  
천대받고 억눌린 한 인간을 두고  
너무나도 가슴아파 잠들지 못하였소

그래서 생각해낸것이  
이 명준동무에게 준  
특별과업이었소

그런데 이 명준동무가  
그 특별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이렇게 밤길을 달려왔구만!》

《장군님!...》  
한 인간의 불행을 가져주시려고  
그처럼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장군님앞에  
머리를 숙이는 만석이...

그 사랑을 꽃피우려는 한마음  
신바닥이 닳도록 마을을 돌고돌며  
사람들의 가슴속에 불씨를 심어준 명준이  
장군님께 말씀드리여라

《장군님, 인젠 만식름을 놓으십시오  
우리 농민협회에서 힘을 모아  
산기슭 양지에 집도 짓고있습니다

초가삼간이긴 하지만  
그 집을 완공하는 날을  
잔치날로 정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새 집에, 신랑신부라...  
길성촌의 대경사입니다!

초가삼간 새 집!  
그 집을 완공하는 날이  
언제쯤이겠습니까?》

《늦잡아 이달 그믐날입니다  
터전을 닦고  
주춧돌을 앉혔습니다》

기쁘시여, 기쁘시여  
자리에서 일어서신 장군님께서서는  
명준의 두손을 잡아일으키시여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안고온 명준동무를  
여직껏 이렇게 붙잡아두다니  
후방부관동무, 어서!...》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 귀빈으로 환대하렵니다》  
명준이를 높이높이 목말이라도 태울듯  
그의 손을 이끌고 사라져가는 만석이...

## 장군님 마련하신 레장감

봄빛 흘러드는  
사령부귀틀집 방안  
방금 부르신  
만석이와 자리를 같이하신 장군님

등잔불아래 심혈을 쏟아 무르익히시고  
새벽빛속에 힘있게 그으신 붉은 화살표  
국내진공작전도를 잠시 옆에 밀어놓으시고  
마음깊이, 생각깊이 말씀을 पे시여라

《...이달 그믐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후방부관동무,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예,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부대에서 한두명의 대표를 보내어  
결혼식을 축하해주었으면 합니다》

《대표를 보내어 축하한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 좋구말구!  
하지만 무엇이든 더할수 없을가?》

《...》

《우리의 마음을 중히 여겨  
옥이야 금이야 하던 증손녀를  
선뜻 내준 좌상로인을 봐서두 그렇구...

산기슭 양지에  
마음과 힘을 합쳐 새 집을 짓고있다는  
길성촌사람들의 그 성의를 봐서두 그렇구...

내 눈앞엔  
일떠서는 그 새 집이  
일떠서는 그 초가삼간 새 집이  
보이는것만 같소》

자리에서 일어서신 장군님께서서는  
마음 진정할수 없으신듯  
작전탁앞을 몇번이고 오가시여라

《후방부관동무, 전리품중에서  
레장감으로 쓸만한것이  
무엇이든 없겠소?...》

《예? 레장감말입니까?》  
용수철에 튕기듯  
벌떡 일어서는 후방부관  
어안이 뱅뱅해져라

《그렇소. 레장감!

신랑이 신부를 위해 마련하는  
결혼식례장감말이요》

또박또박 뜻을 담아 하신 말씀을  
만석이 어찌 새겨들지 않았으랴만  
작전탁앞에서 하신 말씀이었기에  
너무나도 귀에 설어 곳곳해져라

총과 탄약…  
군복과 군량…  
이것만을 머리속에 생각하고  
이것만을 눈앞에 그려보며  
이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후방부관

전투와 행군…  
행군과 전투…  
총이 울고, 칼이 우는 결전장에서  
어찌 온실에 피어나고 풍겨나는  
꽃과 향기를 생각할수 있을것인가

《장군님, 전리품이라야  
전투와 행군에 필요한것뿐  
례장감으로 쓸만한것은…》

《없단 말이지…  
례장감으로 쓰자면  
신부의 옷감과 이불감…  
그래, 비단천이라야지.》

당황한 기색으로 굳어져있는  
만석의 마음을 녹갯혀주시려  
미소를 띠우시는 장군님

《후방부관동무, 안되었소  
무기고와 탄약고를 가진 사람에게  
꽃을 내라고 요구했으니…》

사람의 마음을  
순간에 그려취시고, 순간에 풀어주시는  
장군님의 한량없는 기지와 친화력…

그 너그러운앞에서  
무엇을 재이라, 무엇을 주저하라  
가슴속 덩어리를 터치는 만석이

《장군님, 저는 후방부관으로서  
전우들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졌기에  
이자리에 서있을수 없는 놈입니다》

《그건 무슨 뜻에서 하는 말이요  
부대에 이름난 후방부관답지 않게  
새삼스럽구만!》

《장군님, 우리가 그 결혼식에  
례장감을 꼭 보내야 하겠습니까?》  
《보내야지, 보내야 하구말구!  
마음이 내키지 않는게로군》

《총잡고 전장에서 싸우던 전우들은  
지금까지 밥 한그릇을 놓고  
결혼식을 하였습시다

후방부관으로서… 그걸 생각하면  
그 결혼식에… 례장감을  
보내고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난생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밀림속 한지에서  
한그릇의 밥으로… 그렇게 굶배고  
최후를 마친 전우들이 얼마입니까!》

목구멍을 메우는 돌과 같은 덩어리를  
남김없이 토하고토하였건만  
아직도 그 무엇이 가슴속에 묻혀있는듯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떠는 만석이…

최후를 마친 전우들!…  
그 얼굴 하나하나를 되새기시는듯  
살을 찢고, 뼈를 깎는 피로움을  
애써 참으시는 장군님

《우리가 산속에서 밥 한그릇으로  
결혼식을 굶뎠다고 해서  
인민들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소

하긴 인민들속에서도  
결혼식을 그렇게 치르는 사람들이  
적지들 았다고 하오

나는 그제 분해서 그러오  
물론 밀영창고의 전리품으로  
조선민족전부를 구제할수 없소

하지만 민족재생의 결심을 품고  
손에 총을 든 조선의 혁명가들이  
박덕삼, 그 한사람의 결혼식이야  
성의를 다해 차려주지 못하겠소》

열어제긴 뵈창가에 다가서시여  
봄빛 완연한 밀림의 한끝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만석에게로 다시 돌아서시여라

《그날밤 단 한번 만난 사람인데  
그가, 박덕삼이가 어찌하여  
내 가슴을 이다지도 파고드는지 모르겠소

자기의 의사표시도 못하는 사람이  
마실방에 제발로 찾아온걸 보면  
유격대사령관이 보고싶어 온것인데  
나는 그의 입을 중시 열어주지 못했소

나이 서른이 되어 드는 장가인데  
이 경사의 날에조차  
그의 가슴이 얼어붙어있어서야 되겠소

나는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를 낳은 친부모가 된 심정으로  
돌처럼 얼어붙은 그 가슴을 녹여  
심장을 뛰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하자는거요  
그래야만 결혼식이 결혼식으로 되고  
그래야만 신랑이 신랑으로 될것ियो

후방부관동무, 우리 크지 않게  
소리를 내잔 말이요  
수송대 같은것을 하나...》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 일을 위해서, 레장감을 위해서  
전투까지 조직한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전투까지!  
이틀테면 소부대에 의한  
특수작전이라고 할수 있소》

작전탁우에 놓여있는 작전도  
방금 불이 되어 내달릴듯한 화살표!  
거기에 시선을 못박았던 만석이  
신중한 기색으로 장군님을 쳐다보아라

《장군님, 그 특수작전으로 하여  
국내진공작전에 영향을 미친다면...  
작은것때문에 큰것을!  
저는 그걸 우려하고있습니다》

《나도 그 점을 생각해보았소  
그것이 결코 작은것이 아니요  
국내진공작전을 위해, 그 승리를 위해  
이 특수작전이 필요한거요!

전투는 내가 지휘하겠소  
후방부관동무는 빈틈없이  
전리품을 로획해주기 바라오

아까도 말하였지만  
첫째도, 둘째도 레장감이요  
신부의 치마저고리감!  
이불등과 안감 그리고 솜!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것은  
신부를 치장해줄  
화장품과 거울이요...》

《...장군님!  
명령의 뜻을 알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하겠습니다!》

《이 크지 않은 전투는  
우리 항일무장투쟁사에  
이채로운 한 절로 남게 될것ियो》

다시금 피창가에 이르신 장군님  
그이의 등뒤에 다가선 후방부관  
아득한 시야에 펼쳐진 밀림  
아, 끝없이 설레이는 밀림의 바다...  
아, 끝없이 설레이는 사랑의 바다...

## 봄안개 흐른다

봄안개!  
봄안개!

숨같은  
입김같은  
봄안개, 봄안개...

산발을 쓰다듬고  
골짜기를 메우며  
부드러이, 따사로이 흘러내리여라

새 집  
초가삼간 새 집  
길성촌을 덮어주고 감싸주어라

그 새 집이 보고싶으시여  
그 초가삼간 새 집이 보고싶으시여  
이밤 70리를  
안개발을 안고오시는 장군님!

고개길을 내리시며  
굽인돌이에 이르신 장군님께서  
따라서는 만석이를 돌아보시여라

《날이 밝기전이니  
여기서 지체하며  
련대장의 이야기나 마저 합시다》

길가의 잔디우에  
몸을 실어앉으시며  
만석이를 옆으로 부르시여라

《련대장동무가 레장감을 전하자  
그 소식은 삼시에  
길성촌지경을 지나  
린근마을들에까지 퍼졌다고 하오

바람같이 구름같이  
결혼식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혁명군의 레장감이 어떤 것인가를  
저저마다 보려고 앞을 다투었다고

그 레장감인 신부의 치마저고리를  
그 레장감인 목화숨 양단이 불을  
그 무슨 신기한 보물처럼  
저저마다 쏘아보고 쏘아보았다고 하오

그 레장감인 화장품으로  
얼마나 희한하게 치장했던지  
선녀같은 신부를 황홀하게 쳐다보며  
저저마다 경대속에 얼굴을 비쳐보았다고 하오

청실홍실 늘인 줄에  
백년가약술을 신랑 신부가 들제  
신랑은 황소처럼 엉엉 울음 터치고  
신부는 눈가에서 손수건을 떼지 못하여  
온 식장이 분화구의 눈물바다로 뚫었다고 하오》

장군님 말씀속에 비껴오르는  
그 뚫어번지는 결혼식장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눈시울을 적시는 만석이...

장군님 말씀속에 고동쳐오는  
그 신랑 신부의 가슴터치는 울음소리  
귀전에 그대로 울리어  
격정으로 목메이는 만석이...

《장군님, 제 생각이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어찌 총과 탄약만이 무기이겠습니까!  
앞으로 서간도청년들의 레장감은  
우리가 다 말도록 하겠습니다》

《서간도청년들의 레장감을!...  
좋은 생각이요. 후방부관다운 생각이요  
민족을 재생시킬 그 힘은  
친부모도 따르지 못할 혁명군의 사랑이요!》

친부모도 따르지 못할 혁명군의 사랑  
그 사랑을 한몸에 지니신 장군님!...  
장군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었을 때  
마을에 내려갔던 한 대원이 다가서라

《장군님, 길성촌농민협회 회장이  
장군님을 마중하려고  
막 뛰어올라오고있습니다》

《회장동무가, 강명준동무가  
우리를 마중하려고  
달려온단 말이지. 어디, 어디...》

어서 빨리 그의 손을 잡고싶으시여  
장군님께서서는 달리시듯 굽인돌이를 돌아

비탈길을 내리시여라

저만쯤에 나타난 명준이  
어푸려질듯 달려오른 그를  
두팔벌려 안으시는 장군님

《명준동무! 명준동무!  
길성촌이 그리워, 길성촌이 보고싶어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안고오신 사랑의 안개발이  
우리 길성촌을, 우리 길성촌을  
파사로이 덮어주고 파사로이 감싸주고있습니다》

장군님의 두손을 놓지 못하는 명준이  
길성촌의 마음과 마음을 모두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여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아니라  
길성촌사람들이 받아야 합니다

나는 길성촌이 마음합쳐 피워올린  
두송이의 아름다운 꽃!  
덕삼동무와 보옥동무의 새 모습에서  
민족재생의 그 봄날을 보고있습니다》

아, 민족재생의 봄날!  
아, 민족재생의 봄날!  
명준의 눈앞에도  
백화만발하는 그 봄날이 펼쳐져라

《장군님,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길성촌은 새 마을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도 새 사람으로 되여가고  
산천도 새 산천으로 되여가는것만 같습니다

아버이장군님의 은성속에  
일떠선 새 집이, 태어난 새 가정이  
길성촌모두를 이렇게 변모시켜갑시다

온 마을사람들이  
너도나도 한결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장군님을 받들자고, 장군님을 돕자고!

돌잔치도 60생일도, 제사도...  
관혼상제 일체를 생각 밖에 두고  
쌀자루를 메고 집집승을 물고  
저의 집 마당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성촌의 그 성의를  
다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우리 유격대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장군님을 받들어야 민족이 재생됩니다!  
장군님을 도와야 민족이 영생합니다!

장군님은 진정  
민족재생의 어버이이십니다!  
민족영생의 어버이이십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  
오늘에 이르러, 오늘에 이르러서야  
민족재생의, 민족영생의 어버이를 모시여  
우리 겨레는 **김일성**장군의 민족으로 되었습니다》

두팔 들어, 목청 터쳐  
세상에 대고 만세라도 웨칠듯  
홍분과 격정으로 장군님을 우러르는 명준이

《이러지 마시오  
이러지 마시오  
너무 요란합니다

민족을 재생시키고  
민족을 꽃피우자는것이  
우리 혁명일진대  
혁명가들의 심장이 달리아 뿔수 있겠습니까!

어서 마을로 내려갑시다  
길성촌에 일떠선, 길성촌에 태어난  
신혼부부의 새집, 새 가정으로!

그 새집에, 그 새 가정에  
인생의 참된 꽃이 만발하고  
인생의 참된 열매가 주렁지도록  
덕삼동무와 보옥동무를 축복해줍시다!

이것은, 이것은  
민족재생의 축복입니다!  
민족복락의 축복입니다!》

장군님께서 앞장서시여  
성큼 큰 걸음 내짚으시자  
명준이도 만석이도  
그 위대한 자옥우에 자옥을 따라찍어라

동트는 려명-  
동트는 새날의 려명-

봄안개!  
봄안개!

숨같은  
입김같은  
봄안개, 봄안개...

장군님의 한품에  
안겨온, 안겨온  
사랑의 봄안개, 사랑의 봄안개...

길성촌의 높고낮은 산밭을 쓰다듬고  
길성촌의 깊고얕은 골짜기를 메우며  
부드러이, 따사로이 흘러흐른다

아아, 사랑의 봄안개! 사랑의 봄안개  
얼음같이 터갈라진 땅을 숨이불로 덮어주며...  
얼음같이 터갈라진 수림을 비단으로 감싸주며...

×

전진하는 대오!  
전진하는 대오!

장군님 그으신 화살표따라  
진군해간다! 진격해간다!  
조국으로, 조국땅으로...

선두에서 후미까지, 후미에서 선두까지  
하나의 불줄기로 이어지고 타번지는듯  
거세찬 불바람을 일으켜간다!

얼굴에는 비지땀, 비지땀...  
잔등에는 줄기땀, 줄기땀...  
가슴과 가슴을 뚫이는 대원들!  
심장과 심장을 달쿠는 대원들!

그 앞장에서  
대오를 이끄시는 **김일성**장군님!  
압록강가의 바위등판  
그 한끝에 이르시였을제

아, 봄안개!  
아, 봄안개!

장군님의 한품에  
안겨온, 안겨온  
사랑의 봄안개, 사랑의 봄안개...

조국땅의 높고낮은, 산밭을 쓰다듬고  
조국땅의 깊고얕은 골짜기를 메우며  
부드러이, 따사로이 흘러흐른다

길성촌의 새집을 숨이불로 덮어주고  
길성촌의 새 가정을 비단으로 감싸주며  
부드러이, 따사로이 흐르던 봄안개!

아아, 민족재생의 봄안개 흐른다! 흐른다!  
얼음같이 터갈라진 땅을 숨이불로 덮어주며...  
얼음같이 터갈라진 수림을 비단으로 감싸주며...

아아, 민족영생의 봄안개 흐른다! 흐른다!

## 특이한 《화형식》

1855년 7월 어느날 미국의 어느 한 거리에서는 보기 드문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대낮에 그것도 거리 한복판에서 때아닌 《화형식》이 진행되고있었던것이다. 오가던 사람들이 큰 구경거리라도 만난듯 웅기중기 모여들어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제노라고 하는 이른바 문학의 대가들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엄숙히 거행하는 전례없는 《행사》였다. 한열에 더미더미 책무지가 쌓여있는데 다들 손에 잡히는대로 책을 집어서 활활 키를 쏘구며 타오르는 불길속에 던져넣고있었다. 그러고보면 《책의 화형식》이라고 해야 할는지...

미국문단의 역사에 특기할 이날의 《화형식》은 다름아닌 12편의 시가 수록되어있는 94페이지짜리시집 《풀잎》때문에 급작스레 이루어진것이였다. 아직 인쇄잉크냄새가 풍기는 시집은 해빛을 보기 무섭게 불의 세례를 받았다.

시단에서 남달리 대가연하는 자가 기고만장하여 책 한권을 집어들고 후룩후룩 책장을 번졌다.

《나를 통해 장구한 세월  
침묵속에 묻혀있던 말들이 세상에 전해진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깃뻛혀온  
노예들과 죄인들의 말이,  
병약한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말이,  
비천한 최하층의 말이

허. 이 무슨 상스러운 소리요. 이젠 잡문에 지나지 않는것이요.》

그리고는 기가 막히다는듯 찢찢 웃는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옆에 있던자가 제격 받아 넘겼다. 《정말이지 우리 시단을 심히 우롱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엉터리시인한테 즉시에 책자를 되돌려보냈습지요.》

《그 휘트먼인지 뭔지 하는 녀석은 대체 어떤 작자요? 시라는걸 알긴 아는 놈이요?》

《알짜 무식쟁이지요. 소학교도 나오지 못한...국문이나 겨우 깨쳤겠는지...》

《허참!》

모두가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또 책들을 집어 불속에 던져넣었다. 하나, 둘... 책들이 재로 변해버린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인들의 얼굴에 저으기 안도의 미소가 비낀다. 어찌 안그러랴.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단이

더럽혀질번한것을 제때에 막아버렸으니...

그러나 분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지...

《발칙한, 무엄한.》

한 시인이 숨이 꺾 막히는듯 뒤말을 못잇는다. 얼굴빛마저 퍼릿하게 질렸다.

《걱정스럽소. 이런따위가 또 버젓이 얼굴을 쳐들고 나타날가봐...》

곧 지상과 연단을 통하여 격렬한 비난이 퍼부어졌다.

《무의미한 단어의 라렬.》

《시 아닌 시.》

《휘트먼이 예술을 모르는 정도는 돼지가 수학을 모르는것과 같다.》...

36살의 젊은 시인 윌트 휘트먼(1819~1892)의 첫 시집은 이렇게 선을 보이자마자 《일류》시인들의 얼음장같은 뺨대를 받았다. 그럴만도 한것이 휘트먼의 시는 당시의 시단에서는 있어본적이 없는 《반칙적인것》이였다.

실지로 휘트먼은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12살에 소학교마저도 중퇴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니 시단의 비방중상은 응당한것이기도 했다. 더우기는 시에 맥맥히 흘러넘치는 민주주의사상과 귀족풍의 딱딱한 정형시형식을 부정해버린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시형식이 그들의 비위에 맞을리 없었다.

그러나 그의 시집이 악평만을 받은것은 아니였다. 당시 미국을 지배하던 중세기적인 노예사상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을 소리높이 구가하였으며 락천주의사상으로 일관된 시집은 나오자마자 민주주의사상에 불타고있던 광범한 독자층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커다란 열풍을 몰아왔다. 하여 휘트먼은 열렬한 민주주의시인으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때로부터 20여년후에야 비로소 휘트먼은 유럽문단의 경의를 모을수 있었다. 19세기전반기에 바 이론시풍이 휩쓸고 지나간 유럽땅에 그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무식쟁이시인》 휘트먼열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러나 1882년까지도 미국에서는 시집 《풀잎》이 발행과 판매금지를 당하고있었다. 그만큼 시인의 혁신적태도가 미국의 반동적문단에 가한 타격은 컸던것이다.

한류덕

# 신한번쎀

류도희

진섭로인은 등에 진 수수쌀자루가 한쪽으로 기울어 처져내리는것을 연방 추슬러올리며 부리나케 언덕길로 걸음을 다그쳤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아래 주름이 그물처럼 덮인 넓은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저만치 눈아래에 석양이 비낀 상춘부락이 내려다보였다. 로인은 먼저 마을북판에 자리잡고앉은 홍주사네 집부터 눈여겨보았다. 누런 옷을 입은 군대들이 솟을대문으로 들락날락하는것이 첫눈에 알렸고 다른 집들에서도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것이 잎떨어진 나무사이로 보였다. 뿐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어디라없이 느껴지며 한적했던 산골마을전체가 활기를 띠고 흥성거리는것 같았다.

(우리 군대들이 왔다는게 틀림없군!...)

그는 집바를 고쳐메고는 쉬지도 않고 고개길을 내려기 시작하였다.

인편으로 기별을 받고 어제아침 일찌기 집을 떠나 명동촌의 준보령감네 집에 온 그였다. 체기를 받은것 같다는 그 집 며느리에게 침도 놓아주고 또 오래간만에 준보령감과 두어밤 함께 지내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다가 래일저녁때쯤 돌아올 심산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 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로부터 어제아침에 재경마을에 혁명군대가 들어왔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어제 떠날 때까지도 아무런 기색이 없던 마을이었다.

《그게 사실인가?》

로인은 웬일인지 마음속 한구석에서 알지 못할 불안이 불쑥 머리를 쳐드는것

을 느끼며 다우쳐 물었다. 젊은이는 못마땅한 눈길로 로인을 바라보며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왔노라고 장담하였다. 그바람에 로인은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리하여 서둘러 환자에게 다시한번 침을 놔주고는 《난 가봐야겠네.》 하고 움쭉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더라도 점심이나 자시고 가라고 그 집 사람들이 굳이 권하였으나 그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집 안로인이 꾸려주는 수수쌀자루를 돌려메고 부랴부랴 떠나오는 길이었다.

(이제 오늘따라 이 길이 왜 이리 먼고...)

걸음을 다그치는 그의 머리에 어찌선지 몇해전 언젠가 독립군이 마을에 왔던 일이 되살아나며 그

의 걸음을 더욱 재촉하였다.

그때 한개 중대가량의 군대들이 집집에 들어 한달나마 묵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떠나간 뒤의 마을형편은 참으로 말이 아니었다.

진섭로인의 집만 해도 식량이 떨어졌을뿐아니라 로인내외가 어미, 애비 없이 자라는 어린 손자 광호를 위해 공들여 키웠은 다섯마리나 되는 닭이 한마리도 남지 않고 모조리 없어졌다.

총 든 사람들이 그것도 나라를 위한다는 명색으로 요구하는것을 마다할수 없어 그들이 요구하는것을 있는것 없는것 구해다 바치느라고 이만저만 고생하지 않았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알알하고 기가 막혔다.

(틀림없이 집에도 군대들이 들었겠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집을 떠날게 뭐람... 일도 참 공교롭게는 됐지. ... 로친이 있었을테니 별일은 없겠지만... 혁명군대니까 전에왔던 군대와는 물론 다를게고... 암 다르구말구, 아무려면 그들과 같을라구...)

로인은 혼자소리를 하면서 착잡하게 갈마드는 불안한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애쓰고 달래며 부리나케 마을길을 걸었다. 그저 한시바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하촌마을 막바지에 있는 자기 집에 당도한것은 땅거미가 안개처럼 밀려들기 시작할무렵이었다.

(영?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립문앞에 우뚝 선 로인은 눈이 둥그래서 두리번거렸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틀림없는 자기 집이었다. 허나 너무도 달라져있었다.

여러해를 살아오면서 로인의 몸에 배고 눈에 익은 집-그것은 꺼떻게 고작은 이영이 당장 흘러내려 허물어질듯한 지붕이며 큰물이 지나간 꼴짜기처럼 어수선하게 패인 토방, 금방 넘어질듯 기울어진 울바자... 한마디로 사람사는곳 같지 않은 오막살이였다.

록손이 넘은 로인내외가 어린 손자 하나를 데리고 살고있느니라 젊은 사람의 손이 가야 할 일들이 묵고 쌓여 황폐할대로 황폐화된 집이었다.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려 한시도 속이 편안치 않던 로인이였다.

그런데 지금 로인의 눈앞에는 번듯한 《새집》,

그가 마음속에 그리며 그로록 바라오던 바로 그 《새집》이 솟아있지 않는가.

흘러내린 이영에 가리워 보이지 않던 추녀가 건뜻 하늘을 향해 머리를 쳐들고 솟아올랐으며 새로이 은 지붕에서는 싱그러운 새초냄새가 온 마당을 진동시켜 더욱 생신한 맛을 돋구어주었다. 또한 토방은 매질한듯 매끈하게 다져지고 큼직하고 넓적한 토방돌까지 제자리를 차지하고 보기 좋게 놓여있지 않는가. 그리고 고루게 다져진 마당에는 깨끗이 비질까지 되어있고 마당 한옆에는 뿔나무까지 무드기 쌓여있는것이 꼭 남의 집에 온것만 같았다.

뿐만아니라 그때까지도 여러명의 군대들이 기울어진 울바자를 바로 세우노라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것이였다.

문밖에서 이 모든것을 놀란 눈으로 한동안 바라보고 서있던 로인은 이윽고 사립문을 열고 문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먼저 마당 한쪽구석에 놓여있는 닭장부터 살펴보았다. 세마리가 다 제대로 있었다.

(무사했구나!...)

로인은 자기도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웬일인지 모든 시름이 말끔히 가신듯 홀가분해지는것을 느꼈다. 다음순간 아까부터 마음속 한구석에서 떠나지 않던 그 까닭모를 불안이 바로 이것때문이었었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자 로인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혀를 찼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치받쳐오른것이다.

로인이 문안으로 들어서는것을 보자 《주인할아버님이십니까?》 하고 내의바람으로 일하던 한 젊은 군대가 허리를 펴며 물었다.

《예! 예! 하, 이거 군대어른들이 이렇게 큰 수고를...》

로인은 어쩔줄 몰라하며 어정쩡하게 말하면서 비질해놓은 마당을 살얼음판 지나듯 조심스럽게 가로지나 부엌문을 열었다.

《아니?! 어떻게 벌써 돌아오슈.》

수수쌀을 능구고있던 안해가 의아한 눈길로, 그러나 매우 반기는 기색으로 올려다보았다. 래일쯤에나 돌아올줄 알았던 령감이 뜻밖에 일찍 돌아왔으니 그럴만도 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यो?!》

로인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안해에게 되물었다.

《아유, 말도 마슈.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또 있겠수.》

안해는 로인이 떠난후의 자초지종을 서둘러 이야

기하였다.

어제 진섭로인이 명동촌을 향해 떠난지 얼마 안되어 마을에 혁명군대가 들어왔다. 집집에 몇명씩 나누어 들었는데 이 집에 든 군대들은 어디서 알았는지 주인집에 젊은이들이 없다는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와서 배낭을 벗어놓기가 바쁘게 뒤산에 올라가 새초를 여라문단 베여다가 낚을대로 낚고 고삭은 이영을 걷어내고 새초로 지붕을 깨끗이 갈아 이었다. 뿐만아니라 오늘은 아침을 먹기가 바쁘게 토방을 고쳐 쌓고 울바자를 손질하였으며 나무도 여러짐 해다가 패서 마당 한쪽에 가려놓았다. 너무도 송구해서 그만두라고 아무리 만류해도 막무가내로 일손을 다그쳐 집을 몰라보게 꾸려놓았다는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보 령감! 이번 군대는 일만 잘하는것이 아니라 마음은 또 얼마나 곱겠수. 글썄 쌀이 없어 어제부터 수수죽을 대접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달게들 드시는지...막 죄스러워 혼이 났수다. 그뿐인줄 아슈, 저 씨암닭이 알을 낳고 꼬꼬댁거리자 <허, 네가 오늘 이 집에 또하나 기쁨을 주었구나>. 하고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들 합디다. 그리고는 알을 잘 전사하라고 등우리에서 꺼내 주기까지 하지 않겠수. 언젠가 전에 왔던 군대와는 판판 다르다니까요.》

안해도 그때 일이 잊혀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아무리면 혁명군대를 그들에 비기겠소? 원!》

로인은 나무람하듯 말했으나 이것은 사실 자신에게 하는 소리였다.

《그런데말ियो.》

안해가 한걸음 다가서며 나직한 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령감! 들리는 말에 이번에 온 군대의 대장이 김일성장군님이시랍니다.》

그러자 진섭로인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다우쳐 물었다.

《뭐라구? 그게 정말ियो?》

《아까 저 아래마을에서들 그러디다.》

《그래 장군님께서 어느 집에 드셨다우?》

《그건 모르겠소만 장군님께서 오신것만은 분명한가 봅디다.》

로인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면 그럴겠지. 과시 들던바와 다름없군! 장군님의 군대가 아니고서야 누가 우리같이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큰 수고를 하겠소.》

로인은 고개를 돌려 달라진 토방이며 지붕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게말이요. 정말 고마운 어른들이지.》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몰라보고 옥생각하다니… 내가 미쳐도 크게 미쳤지…》

진섭로인은 혼자소리처럼 뇌이고는 쫓쫓 혀를 찼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안해가 눈이 둥그래지며 되물었다.

《…》

《무슨 일이 있었소?》

재차 캐물어서야 로인은

《아무 일도 아니요. 여보! 거 방에서 담배쌈지를 좀 내다주요.》 하고 손짓으로 방을 가리켰다. 안해는 령감이 별로 즐기지 않는 담배를 찾을 때에는 필경 속이 편안치 않은 모양이라고 눈치채고 아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곰방대에 씨레기를 다져 넣고 불을 붙인 로인은 불이 훌쩍해지도록 한모금 크게 빨고는 길게 연기를 내뿜었다. 그리고는 뿌리 박힌듯 앉은 자리에서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저녁상을 물린후에도 진섭로인은 어두운 방 안에서 담배만 피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왜놈들 등쌀에 견디다 못해 늙은 안해와 아들의 손목을 이끌고 눈물속에 고향땅을 떠난 그였다. 발불일곳을 찾아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을 정처없이 헤매다가 여기 재경마을 하촌막바지에서 울장을 박고 피나리보짐을 풀었다. 그러나 가난은 찰거미처럼 떠나지 않아 굶기를 부자집 밥먹듯하며 갇은 고생을 다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이어왔다.

그후 가난속에서나마 아들을 장가들여 며느리의 큰절을 받으며 눈물짓던 일이며 손주가 태어나자 그를 안고 기뻐하던 일… 그리하여 뒤늦게나마 인생의 재미를 맛보는가부다 했는데 광호가 두돌도 되기전에 기동처럼 믿어오던 아들이 폐를 몰다가 잘못되어 비명에 저세상 사람이 되고말았다. 그뿐 아니라 옆친데엿친다고 그 이태후에는 또 마음씨 무뎠던 며느리마저 장길부사를 앓다가 덜컥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줄지에 아들내외를 잃고보니 눈앞이 캄캄하였다. 의지할 살붙이 하나 없는 늙은이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간단 말인가. 그는 자기의 기박한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도 해보았다. 허나 팔자는 어쩔든지간에 어린 손자는 살려야 했다. 로친이나 자기는 살만치 살았으니 이젠 죽어도 크게 한이 될것도 없지만 손자만은 어떻게나 살려 밝은 앞날을 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로인은 있는 힘을 다해 땅도 뿌지고 굶었을 때 배운 침구술로 마을사람들에게 침도 놔주고 닭도 키우면서 버드럭

거리며 살아가고있는 터였다.

한때 마을에 독립군이 드나들던 초시기에 진섭로인은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었다. 조선이 독립돼야 광호의 앞날도 열릴터이니 그들이야말로 손자의 운명을 건져줄 군대들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내고보니 그렇지 못했다. 마을에 오기만 하면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걸핏하면 백성들에게 호통질이였다. 내라는 물건을 바치지 못한다고 가난한 집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기가 일쑤였다. 진섭로인네도 여러번 그런 일을 당했었다. 이러한 과정에 그들에게 품었던 로인의 기대는 완전히 허물어지고말았다.

그랬던것이 그후 어찌된 일인지 점차 그들의 걸음이 뜸해지더니 요 몇해동안은 아예 발길이 끊어지고말았다.

몇해째 김일성장군님유격대에 대한 소문이 날을 따라 퍼져왔다.

신출귀몰의 전법으로 왜놈군대를 요정냈다는 통쾌한 소문이 련이어 들려오는가 하면 왜놈들에게는 사자와 같이 사나운 그들이 인민한테는 끝없이 랑순하며 가난한 사람들의것이라면 바늘 하나, 실 한 오리일지라도 절대로 해를 주지 않을뿐아니라 마을에 들리기만 하면 비자루부터 들고 주인집 일손을 도와준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고 들려왔다.

이러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어서빨리 그들을 만나보았으면 하고 애타게 기다려온 로인이였다. 그러던 군대가 마침내 온것이다. 그러나 로인은 반가움에 앞서 뼈아픈 자책속에 빠져들었다.

(세상에 이런 큰 죄가 어디 있담… 그처럼 고마운 사람들을 깨כות 마음으로 반갑게 맞을 대신… 그까짓 닭 몇마리가 뭐라고… 이게 무슨 놈의 더러운 심보란 말인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만 아는 추물이 되었던 말인가…)

그는 자기가 더없이 혐오스러웠고 군대들에 대해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자신을 가차없이 타매하고있는 로인의 입에서는 신음소리마저 새어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처럼 속을 태우슈.》

안해가 근심스럽게 물어서야 로인은 잠겼던 생각에서 벗어났다. 그리고는 안해에게 자기 속을 털어놓고나서 《내가 왜 이렇게 앉아만 있을고…죄를 졌으면 씻을 생각을 해야 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정신이 나갔군…》

하더니

《여보! 불을 좀 가지고 나오우.》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온 로인은 허리를 구부정하고 서서 잠시 옷방의 동정을 살폈다. 조금전까지 두런 두런 들려오던 말소리는 끊어지고 코고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창 젊은 나이들이는데다가 겹쌍인 피곤때문인지 코고는 소리는 여간 요란하지 않았다.

(됐다! 모두 잠이 든게로군!...)

로인은 입가에 느슨한 웃음을 띄우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리없이 토방을 내려섰다. 그리고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닭장으로 들어갔다. 안로인이 비쳐주는 광술불빛에 해대에 올라앉은 닭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드러났다. 로인이 골라잡느라 손더듬을 하는데 놀랜 닭들이 갑자기 뻘을 치며 구구거렸다.

《쉴! 이놈! 조용하지 못할가?!》

로인은 다급하게 입속말로 중얼거리면서 닭을 끄집어냈다.

이때 옷방문이 열리며 젊은 군대가 밖을 내다보더니

《아, 주인집 할아버님이지군요. 난 또 족제비가 닭을 채가는가 해서...》하며 토방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밤중에 닭은 왜 끄집어내십니까?》

《예! 예! 좀... 요긴하게 쓸데가 있어서...》

로인은 몹시 당황해하며 어물어물 대답하면서 닭 두마리를 꺼내었다. 한마리는 수닭이고 한마리는 살진 암닭이었다. 그 닭은 진섭로인 내외가 알을 받아모았다가 봄에 병아리를 깨우고 그걸 키워서 광호에게도 먹이고 살림에도 보태려고 공들여 키워오고있는 이를테면 이 집의 귀중한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것이였다. 그 귀중한것들이 로인의 손에 들려있는것이였다.

《앵이, 조용히 하자던 노릇이... 그놈이 뻘을 치는 바람에... 쫓쫓...》

로인은 중얼중얼하며 노끈으로 닭의 두다리를 동여매더니 암닭은 부엌에 넣고 수닭은 옆구리에 끼고 황황히 문밖으로 나섰다. 그의 뒤로 안해도 따라나섰다.

## X

집을 나선 진섭로인은 곧바로 마을 복판에 있는 지주 홍주사네 집으로 찾아갔다.

여느때에는 함부로 드나들기를 저어하게 되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으나 오늘은 그 집에 든 군대를 찾아가는만큼 로인은 서슴없이 솟을대문을 열고 문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마당에서 군대 하나가 눈에 띄였다.

《여보슈 군대어른! 말 좀 물읍시다.》

그러자 군대는 무슨 일인지 어서 물으라고 하였다.

《임자네 대장의 성함이 **김일성**장군님이라는 말

을 들었는데 그게 옳소?》

《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 어른이 이 집에 드셨겠는데 좀 만나뵙자고 그래네다.》

그러자 그 군대는 로인의 차림새며 옆구리에 낀 닭이며 뒤에 선 안로인을 유심히 여겨보더니

《장군님이 이 집에 드셨다고 누가 그러니까.》하고 물었다.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 짐작에 그럴것 같아서...》

《로인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말인가. 우리 집은 이 마을 저 막바지에 있네.》

군대는 웬일인지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띄우며 로인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그러시다면 공연한 걸음을 하셨나봅니다.》하는것이였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로인은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 다급하게 되물었다.

《장군님은 이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 옷쪽 어느 집엔가 드셨나본데 저도 딱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집에는 안계시단 말이겠소.》

《네. 틀림없습니다.》

로인은 등위로 대답을 들으며 대문을 나섰다.

(원 그럴리가 있나. 대장이라면 마땅히 제일 크고 좋은 집에 들게 마련일텐데...)

그는 중얼거리며 부지런히 걸음을 다그쳤다.

로인이 다음으로 들린 집은 동네에서 두번째로 큰 마름네 집이였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대장은 들지 않았다는 같은 대답이였다. 로인은 다리맥이 풀리는것을 느끼며 허청허청 발걸음을 옮겼다.

(이상하군... 틀림없이 그 두 집중 어느 한 집에 드셨겠는데... 혹시 비밀때문에 대장의 행처를 숨기자는게 아닐가? 군대들의 일이니 그럴수도 있겠지... 허지만 내 죄를 씻고 은혜를 갚자고 나섰던 길이니 온 마을을 다 뒤져서라도 기어이 그분을 찾아뵙고 큰절을 올리고야말리라.)

이렇게 다시금 마음다진 로인은 안해를 신칙하며 동네집들을 차례로 돌기 시작하였다.

다섯집... 열집... 스무집... 이렇게 도는 과정에 밤은 퍼그나 깊어졌다. 그러나 장군님의 행처는 알수 없었다.

많은 집 사람들이 아님밤중에 닭을 옆구리에 끼고 집집을 훑으며 대장을 찾는 로인내외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몇몇 집들에서는 급한 일이 아니면 밝은 새날에 찾아뵈오는것이 어떤가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어느 한 집에 든 군대는

《아니, 로인님은 집에다 그분을 모시구있으면서  
여기 와서 찾으시면 어찌자는겁니까.》하고 어이없  
다는투로 말하는것이였다.

《예끼 이 사람! 늙은이를 놀리는건가.》

로인은 가뜰이나 지치고 맥이 빠진데다가 엉뚱한  
소리까지 듣고보니 그만 노여운 생각이 들어 버럭  
화를 내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다른 몇집  
에서도 듣게 되자 로인은 새삼스럽게 자기의 옷주  
제며 옆구리에서 늘어져있는 닭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의지가없이 가난하게 사는 늙은이라고  
온 마을이 팔세한다고 서글퍼지기까지 하였다. 그  
러나 로인은 마지막까지 마을을 돌았다.

로인내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닭을 옆에 낀채  
집으로 돌아왔다. 문안에 들어서보니 젊은 군대가  
토방에 나와 앉아있었다. 아까 초저녁에 닭이 똥을  
치는 소리를 듣고 족제비가 물어가는가 해서 내다  
보던 바로 그 차림새였다. 집주인이 오기를 내내 기  
다리고있었던듯 몹시 반기는 기색으로 물었다.

《어디 가셨다가 이제야 오십니까.》

《말두 말게. 온 동네 쉬나문집을 다 돌고 오는길  
일세.》

로인은 옆에 끼고있던 수닭을 토방에 내려놓으며  
힘없이 말했다.

《무슨 일이 생겼기에 내외분이 밤중에 그런 수고  
를 하십니까.》

《임자네 대장의 성함이 **김일성** 장군님이라는 말  
을 들었네. 그래 이때까지 그분이 숙식하시는 집을  
찾아다니다가 종시 못찾고 돌아오는 길일세.》

로인은 피곤이 실린 눈길로 젊은 군대를 바라보  
았다.

《그 집은 왜 찾자고 하십니까.》

그 군대는 호기심어린 어조로 물었다.

《임자네들의 소행이 하도 기특하고 고마워서 대  
장께 여쭙고 우리 령감로친의 큰절을 올리자구했네.  
임자네들의 신세를 지구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  
서야 어디 도리가 됐나. 약소한대루 대장께 닭이라  
도 한마리 대접하자구 했더니 글썄...》

하고 로인은 홍주사네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온마  
을 쉬나문집을 빼놓지 않고 모조리 돌아본 이야기  
며 온 동네가 의지가없이 가난하게 사는 늙은이  
라고 자기네를 팔세하더라는 설분을 토로하였다.

《하기는 촌늙은이가 이런 꼴을 하고 어떻게 대장  
앞에 나서겠나. 허지만 좀 너무해. 글썄 제집에 그  
분을 모시고도 여기 와서 찾으면 어찌우 하고 놀려  
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이보라구 젊은이, 자네  
네 대장이 정말 어느 집에 드셨나. 솔직히 말해주게,  
제발 부탁이네.》

로인이 하도 간절히 부탁하자 그 군대는 로인앞  
에 마주서며 그의 손을 더듬어잡았다.

《로인님! 이거 인사가 늦어서 안됐습니다. 엇그  
제는 로인님이 안계셨고 어제는 옷을 벗어붙이고  
일을 벌려놓다보니 인사를 드릴 계제가 되지 못하  
여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제가 바로 로인님이 밤새  
찾으시던 그 **김일성**입니다.》

그러자 로인은 펄쩍 뛰며

《원, 무슨 그런 통을 하나... 그럼 젊은이가 대장  
이란 말인가. 그럴수 없네. 임자도 역시 우리를 업  
수이 여기고 그분의 행처를 숨기고있는게 분명하  
이.》 하며 몹시 노여워하였다. 머리속에서 그로오  
던 장군님과는 너무도 달랐기때문이었다.

《하 이거 야단났군! 도무지 우리 말을 믿으려하  
지 않으시니...》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난처한 웃음을 띄우시었다.

《믿을만한 소리라야 믿지, 어디 끝이 듣게 됐  
나?》

사실 진섬로인으로서의 믿을수가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군대에 대한 기성관념  
이 그로 하여금 이 엄연한 사실을 믿을수 없게 하  
였으며 노염까지 타게 하였던것이다.

《그래 임자가 정말로 대장이라면 응당히 마을에  
서 제일 크고 잘사는 집에 들어가 했을터인데 좋은  
기와집을 뒤두고 어떻게 나같은 못살고 루추한 집  
에 들었겠는가 말일세. 그리고 또 대장이라면 부하  
들에게 일을 시켜도 될터인데 어떻게 대장이라는  
사람이 땀을 흘리며 이영을 갈아주고 토방을 쌓는  
일을 하겠는가 말일세. 어디 그뿐인가. 독립군같으  
면 중대장쯤만 되어도 흰쌀밥이 아니면 밥상을 받  
으려 하지 않았고 소를 잡아놓고 저녁마다 술추렴  
하기가 일쑤겠는데 어떻게 대장이라는 사람이 수수  
죽을 달게 들수 있겠는가. 더구나 밤중에 닭이 똥을  
치는 소리를 듣고는 주인집 닭을 족제비가 물어가  
지 않나 걱정이 돼서 나오기까지 했는데 그런 마음  
을 쓸줄 아는 대장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난  
여직껏 그런 대장을 본 일도 없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일도 없네. 그래 이래도 날보고 믿으란 말인  
가.》

진섬로인은 자기나름의 논리와 주장을 내대며 설  
분해하는것이였다. 이런 로인이니 **김일성** 동지께서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보이는 자기 집을 우정 플라  
숙소를 정하셨다는것은 더구나 알 까닭이 없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내내 웃으시며 로인의 이야  
기를 듣고계시다가

《됐습니다. 로인님! 그 대장인지 **김일성**인지하는  
사람은 밝은 날에 찾아보기로 하고 그만 들어가서  
눈을 붙이십시오. 오래지 않아 날이 밝겠는데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먼저 옷방으로 들어가시었다.

로인은 잠시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영문을 모르

졌다는듯 고개를 몇번 기웃거리고는 토방에 내려놓았던 수탉의 다리에서 끈을 풀고 닭우리에 넣어준 다음 부엌에서 암탉을 꺼내여 역시 다리에 댄던 노끈을 풀고 닭우리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진섭로인은 집에 들어있는 전령병들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옷방에 모신분이 다름아닌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고 펄쩍 놀랐다. 처음에는 그저 애젊은 전령병들이 또 룡을 하는거겠거니 하고 끝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하도 근기있고 완강하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말해주는 바람에 로인의 머리속에 안개처럼 질게 서리여있던 의혹의 장막이 한꺼풀한꺼풀 벗겨져나가면서 어제부터 보고 체험한 사실들 하나하나가 이때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머리속에 되살아오르는것이였다. 지어 자기를 업수이 여긴다고 노엽게 생각했던 그 말까지도... 그리하여 점차 생각을 고쳐먹게 되고 마침내 굳게 닫졌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것이다.

《헛참! 이렇게 눈치없다구야... 그러니 제집에 모신 장군님을 선한번재만애야 찾아뵙게 된셈이군!》

로인은 허거픈 웃음을 웃었으나 가슴속에서는 견잡을수 없는 기쁨이 북받쳐 오르는것이였다.

(내 집에 장군님을 모시다니...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담...)

그러나 다음순간 매우 난처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당황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전령병들이 돌아나가자 로인은 한동안 빈방에 홀로 남아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너무도 엄청난 기쁨과 함께 가슴어이는 죄책감을 한꺼번에 안고 로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몰돌바를 몰랐다.

얼마후 로인은 결심한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옷방으로 올라가 장군님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장군님! 이 눈치없는 늙은것을 용서하십시오. 제 집에 모신 장군님도 몰라뵙고 무엄하게 행동한 죄를 어떻게 벌여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그는 이마를 방바닥에 대고 큰절을 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손에 들고 보시던 책을 일른 내려놓으시고 급히 로인에게로 다가가시어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에게 왜 이리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로인의 두팔을 잡아 일으키시였다.

《장군님! 글썽 이 늙은게 눈이 멀어도 뽀수가 있지 제 집에 모신 장군님을 몰라뵙다니요. 어디 그뿐입니까. 장군님께서 친히 신분을 밝히시기까지 하

셨는데 그래도 믿지 않고 것처럼 무례하게 굴었으니 이 죄를 어찌하면 종단 말입니까.》

로인은 눈물이 그렇게서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로인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 고정하십시오. 로인님의 심정을 리해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로인님뿐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지난날의 군대들과는 전혀 다른 새형의 군대이기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로인을 진정시키려 원심을 쓰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주시니 그 바다같은 은혜를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로인은 어깨를 들먹이며 한동안 고개를 푹 떨구고 앉아있었다.

《그런데 장군님!》

로인은 이윽고 고개를 들고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왜 그러십니까?》

《무엄하지만 한가지 여쭙어볼 일이 있어서...》

너무도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장군님의 너그러우신 인품에 끌려 로인은 용기를 내어 말꼭지를 떼었다.

《무엇입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호기심을 안으시고 물으시였다.

《제가 알기엔 대장이라면 마땅히 마을에서 제일 잘사는 집을 두고 어찌하여 이런 루추한 집에서 대원들과 똑같이 수수죽을 드시는지... 또 부하들에게 시켜도 될 일에 어찌하여 몸소 손을 잡그시고 것처럼 로고를 바치시는지 이 늙은이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그 까닭을 알수가 없어서 그렇니다.》

로인은 자기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대장도 바로 인민의 아들인데야 뭐 까닭이란게 따로 있겠습니까. 모두가 조국을 해방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싸우는 형제들이며 혁명동지들입니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똑똑히 알겠습니다.》

여직껏 가슴속 한구석에 집요하게 남아서 떠나지 않던 마지막옹어리가 뿌리채 뽑히고 눈앞이 환히 트이는것만 같았다.

(대장도 바로 인민의 아들인데야.

과시 하늘이 낸 위인이시구나!)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크나큰 격정의 파도가 쇠잔해가던 심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온몸에 세차게 퍼져흐르는것이였다.

(예로부터 명장 밑에 약한 군사가 없다고 하였거늘 저렇듯 걸출하고 위대한 명장이 이끄시는 우리



군대를 어느놈이 감히 당한단말인가. 어느놈이...  
아, 우리 나라에 대통령이 났구나. 대통령이 났어!)

## X

며칠후 떠나가는 군대들을 멀리 고개마루에까지  
나가 바라우고 돌아오는 진섭로인의 걸음은 전에 없  
이 가벼웠다. 마을은 갑자기 텅 빈것처럼 호젓해졌  
으나 로인에게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이 마을에 팽팽히 차고넘쳐 세차게 약동하고있는듯  
이 느껴졌다. 로인의 가슴은 장군님에 대한 생각으  
로 가득차있었다.

《로인님! 닭이랑 먹이면서 광호를 잘 키우십시오.  
왜놈들은 틀림없이 망하며 로인님은 반드시 고향  
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날을 믿으시고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로인은 장군님께 큰절을 올리며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오직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여직껏 자기를 의지가없고 팔자사나운 불운한  
늙은이라고만 생각해온 로인이었다. 그리하여 아무  
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한숨만 쉬면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온 그였다. 외롭기는새려 온 마을사  
람들모두가 한집안식구처럼 정답게 느껴지며 마음  
이 든든하였다. 그는 한껏 부른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사립문앞에 서서 장군님께서 손수 이으신  
이영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있는데 갑자기 씨  
암답이 동우리에서 내려오며 꼬꼬댁거렸다.

생각에서 깨어나 닭장에 눈길을 돌린 로인은 입  
가에 뜻있는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날  
마다 들어오던 소리였으나 오늘따라 그 소리가 많  
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사실 그동안  
장군님께 닭을 잡아 대접하려고 몇차례나 애썼는지  
모른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래년에 다시 올테니 그  
때까지 잡지 말고 알을 받아 모았다가 광호에게도  
먹이고 살림에 보태라시며 그렇게 하는것이 닭 몇  
마리 잡아먹는것보다 더 기쁘다고 절절히 말씀하시  
며 기어이 못잡게 하시는 바람에 번번이 뜻을 이루  
지 못하였던것이다.

《위인을 만난 덕에 네 명이 길어진줄 알거나 하  
니?》

그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는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어찌지 못해 저도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웅켰다.

《대통령이 났어! 우리 나라에 대통령이 났단말이  
여!》

하늘을 향해 두손을 뻗쳐든 진섭로인의 머리우에  
서 찬란한 태양이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있었다.

## 상식

# 총의 역사

우리 인민은 총을 사랑한다. 총대에 의해서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지켜지고있다.

총은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 15~16세기경  
에 최초의 총인 화승총이 전쟁마당에 나타났다.

최초의 화승총들은 총이라고는 하였지만 사실상  
창이나 칼보다 못한 점이 많았다. 총에 화약을 다져  
넣고 불뿔치를 가져다대고 한참 기다려야 발사되었  
다.

1630년경 스웨리에에서 총으로 된 탄피가 나왔  
으며 1738년에 탄피와 탄알이 결합된 총탄이 만들  
어졌다.

19세기 전반기에 격발장치를 발명해냄으로써 총

은 복잡한 사전준비가 없이 비가 와도 쓸수있는 그  
야말로 총다운 총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1867년에 오늘의것과 비슷한 낫쇠로 된 총탄이 나  
왔고 1884년에 이르러 무연화약이 발명되어 쓰이  
게 되면서 드디어 총신직경이 11mm, 8mm 정도로  
가늘면서도 1,000m 까지 유효사격을 할수 있는 총  
이 나오게 되었다.

최근년간에는 현대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총들이 구상되고있거나 만들어지고있다.

총에는 사상이 있어야 한다. 총의 사상은 사수의  
사상이다. 사상이 없는 총은 막대기만 못하다.

## 집에 대한 생각

김은희

나는 철들기전에 집을 떠났다.

젊은 안해와 올망졸망한 어린 자식들을 뒤에 남겨두고 너무도 때이르게 이 세상을 떠나간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뜻밖의 사변이 아니라면 나의 운명은 달리 흘렀을지 모른다.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큰 사변을 감수하기에 너무도 작은 유년의 심장이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졸도한 어머니를 보던 그 무서운 날에, 팔배개하고 밤마다 옛말얘기로 어린 딸을 잠재워주던 그 두런두런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영영 울리지 않는다는것을 인식한 그밤들에 나는 어머니에게 더 꼭 의지하고 앞으로 내가 이 집을 떠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운명은 달리 흘렀다.

한 평범한 대학교원의 사망을 가슴아프게 여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형제모두를 당에서 맡아키우자고 하시며 만경대혁명학원과 남포혁명학원(당시)에 보내도록 하시였다.

그 은정깊은 조치에 따라 어느 여름날 나는 남포로 가는 열차에 앉아있었다.

그때 나는 철모르는 나이였다.

당의 배려를 고마움속에 감수하기보다는 엄마품을 떠나 낯선곳으로 가는것이 더욱 싫은 철없는 소녀였다.

방금전에 헤어진 어머니의 물기가득한 눈, 떠나는 딸자식앞에 눈물을 보이기 싫어 자꾸 눈을 습벅이며 고개를 뒤로 젖히곤하였지만 어느새 차오르고 차올라 열차가 떠날 때에는 중시 불편으로 줄지어 구울러떨어지던 호수같은 나의 어머니의 눈을 차창에 그려보며 나는 자꾸 울며 앉아있었다.

《엄마! 나 엄마하고 집에 있을래.》 열차에 오르며 애타게 어머니에게 하소하던 그 말마디들을 계속 입속으로 뇌이며 나는 쏜살같이 달리는 이 열차에 실려 내가 이렇게 낯선곳으로 자꾸자꾸 가는 한 영영 집을 떠나게 되었다고 서글프게 생각하였다.

그렇다. 때이르게 유년시절과 작별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집을 멀리 떠나 서먹서먹한 감정을 품은 자그마한 소녀가 남포혁명학원이라는 낯선 《집》에 들어섰다.

낯선 집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소녀는 동무들과 선생님들에게 속을 주지 않고 말도 한마디 하지않고 주시하기만 하였다.

여기는 어떤곳일까.

그러던 어느날 과의운동시간에 교실창턱에만 붙어있는 소녀를 동무들은 마당으로 끌어냈다.

소녀들은 즐거이 줄넘기유희를 하고있었다. 《손

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줄넘기를 하고있었다.

지긋게 인내성을 발휘하여 계속 반복하여 부르는 《손님, 들어오세요.》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소녀는 줄넘기에 뛰어들지 못하고있었다. 이때 처녀담임선생이 다가왔다. 《은희, 선생님과 같이 할가.》 선생님을 올려다보는 소녀의 눈엔 미심쩍은 빛이 있었다.

그 미심쩍은 감정을 동심이 이겨냈는지 소녀는 살며시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그러곤 뛰어들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선물에 발 맞추어.

이렇게 나는 어머니의 정을 기울여 내 마음을 돌려세우려 애쓰는 선생님과 동무들의 자애깊은 손길에 이끌려 학원이라는 크나큰 집의 문턱을 넘어섰다.

정녕 학원은 나만이 아닌 수많은 원아들을 따듯이 품어안아주고 키워주는 크나큰 집이었다.

그 수천의 원아들의 생일을 하나하나 헤아려 갖가지 음식들로 성대한 생일상도 차려주고 멀리 떨어진 어머니도 알지 못하는 취미까지도 속속들이 헤아려 음악소조며 문학소조, 체육소조에 넣어 앞날의 전도까지 맡아주었다.

아이들의 눈은 사진기와 같이 아이적일은 죽을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도 눈감으면 너무도 생생히 떠오른다.

정향나무꽃향기가 자욱한 넓은 구내길, 매끼마다 특색있게 차려지는 식찬의 냄새를 흐뭇이 들이키며 줄지어 들어가던 넓다란 식당, 나의 첫 작품이 실린 《새 희망》잡지를 손에 들려주며 그리도 기뻐하던 처녀선생님의 체취가 금시라도 어려오는듯 싶은 3층의 낮익은 교실...

그 집에서 수년간 자라며 나는 웃음많은 팔랭이 소녀로 자랐다.

한해에 두번 차례지는 방학때면 며칠만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있다가도 빨리 학원에 가고싶어, 동무들과 침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쫓고까불고 웃고싶어 서둘러 열차에 오르곤하였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원 애두, 참엔 그리도 가기 싫다고 울더니...》 하며 가볍게 웃곤하였다.

그 시절에 철들며 나는 알았다.

내가 집을 영영 떠난것이 아니었다는것을, 다만 당의 해빛 따스한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지붕아래 어머니 계시는 작은 집으로부터 더 크고 더 다심하고 더 따뜻한 학원이라는 크나큰 집으로 옮겨왔을뿐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그 하늘아래, 그 지붕아래 나는 어디가나 외롭지 않았거니 나의 인생에는 이런 《집》들이 정말 많았다.

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할 때에는 《우리 학부》, 《우리 학급》이라는 집이 있었다. 순수한 학문의 세계를 뛰어넘어 동지적인 의리로 뭉어지고 철없던 소녀시절의 마음을 조국이라는 숭엄한 거울앞에 비쳐보며 철들게 하고 닦게 하던 혁명적수령관의 세계로 뭉쳐지던 대학시절의 집!

3대혁명소조시절에는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낯설은 대학생들이 모여 또하나의 《집》을 이루었다. 그 집안에 무슨 일들이 없었으며 무슨 이야기들 나누지 않았으랴.

사상도 폭격도 덕망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으려는 격동찬 시절에 그 집에서는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축하의 잔들을 들었던 밤도 흘러갔고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가 맡았던 농장에 영원히 뿌리내리기로 결심한 처녀소조원을 환영하던 날들도 흘러갔다.

이런 행복한 집에서 집으로 옮겨앉으며 나는 성장하였다. 이 성장의 나날에 나는 사회주의라는 그 크고 심오한 세계를 리념으로서만이 아닌 감정으로, 생활로 받아안게 되었거니.

아니,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치고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렇다. 우리 인민은 행복한 인민이다.

사회주의라는 크나큰 집의 울타리안에 싸여있는 우리 인민은 정말 두렵없고 걱정없고 세파를 모르는 인민이다.

우리 민족사에 다시 없을 사변적인 나날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더욱 새삼스레 느꼈다.

모든것이 부족한 형편에서도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부모없는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고 영예군인들의 안해가 되고 전사한 동지를 대신해 스스로 아들, 딸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풍조로 된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가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굳건히 지켜가시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있어, 이 사회주의덕분에 우리 인민은 한겨울밤에도 불밝은 가정의 저녁시간을 즐기며 문득 이 행복감을 새삼스레들 느끼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다. 우리의 집이다.

이 행복한 집의 모든 가정들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고있어, 한집의 가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듯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있어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과학으로, 생명으로 자부하고있다.

매 사람의 심장속에 감정적으로, 혈연적으로 뿌리내린 우리의 사회주의!

뿌리가 든든한 나무가 폭풍에도 끄떡없듯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하나로 이어진 마음의 토양에 굳게 뿌리내리어 우리의 사회주의는 과학이기에 굳건하며 생명이기에 영원하며 생활이기에 무궁번영할것이다.

나의 이 마음을 확인하는듯 록음기에서는 행복한 선율이 흘러나온다.

...

랄랄랄라라 사회주의는  
랄랄랄라라 우리의 생명  
랄랄랄라라 사회주의는  
로동당 그 품이여라

## 가사

# 해병의 작은 수첩

박화준

넓은 바다 지켜가는 애젊은 해병  
작은 수첩 소중히 안고산다네  
장군님 결사옹위 바다의 영웅이 될  
입대의 그 맹세를 첫장에 새긴 수첩  
아 충효의 바다가 갈피갈피 출렁이네

푸른 파도 헤쳐넘는 훈련의 향로  
밤낮없이 땀에 젖는 나날을 적네  
산악같은 큰 파도도 발밑에 잠을 재운

만능병사 그 자량이 커가는 작은 수첩  
아 용맹의 바다가 갈피갈피 출렁이네

장군님 결전으로 부르신다면  
수첩장의 그 맹세 격량이 되리  
어뢰되어 번개친 그 삶을 비껴안고  
크나큰 저 바다로 펼쳐질 작은 수첩  
아 위훈의 바다가 갈피갈피 출렁이네

## 우리 시대의 요구와 참된 당일군의 형상

-장편소설 《산촌의 화불》에 대하여-

안희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압압살책동이 전례없이 계속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소설문학은 마땅히 혁명적군인 정신,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며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시대의 참된 전형을 창조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투쟁에 고무적힘을 주어야 한다.

장편소설 《산촌의 화불》(박찬은 작)은 오늘의 이러한 절실한 시대적요구에 응답을 주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장편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못살고장으로 불리우던 우리 나라 두메 산골 명신땅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군당책임비서 림동훈의 형상을 통하여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 한몸 불태우는 화불이 되어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감동깊게 밝혀주고있다.

장편소설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정서적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사상정신적양식을 주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인 군당책임비서를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충신, 인민의 총복으로 훌륭히 전형화한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에 그려지는 당일군의 형상은 마땅히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충신으로, 인민의 총복으로 전형화되어야 한다.》**

소설작품에 그려진 림동훈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한 충신의 전형이며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복이다. 주인공 림동훈은 장군님께서 친히 접견해 주시고 명신군이 전국의 시, 군들가운데서 가장 못하는 군으로 수령님 수첩 첫자리에 적혀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인민생활에 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보다 더 크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절절하게 하신 말씀을 자나깨나 심장깊이 새기고 명신땅을 일떠세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다.

명신땅은 옛날부터 사람못살고장으로 소문난곳이다. 얼마나 땅이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고장이었으면 옛날 여러 고을 원들이 모여 제고장 자랑을 하는데 명신고을의 원은 하도 자랑할것이 없어 궁

해빠진 나머지 방오석(방씨성이 많고 까마귀가 많고 돌이 많은것)을 자랑했다는 말까지 전해져내려 오겠는가. 우리 시대에 와서 당의 인민적시책으로 절대다수 산골군들도 벌방부럽지 않게 잘살고있었지만 원래 척박하기로 소문난 명신군만은 생활수준이 훨씬 뒤떨어져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못살 명신산골에 태어난 울분과 억울함을 참다 못해 타지방으로 떠나가군했다. 하지만 명신군의 일군들은 이것을 피할수 없는 운명적인것으로 여기면서 앉아서 고장타발, 조건타발, 사람타발만 하였고 혁신할 생각을 하지 않고있었다. 명신을 개변시키자면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곳에서 식량문제를 우선 풀어야 하며 뒤떨어진 낙후성을 퇴치하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했다.

군당책임비서 림동훈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군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며 토지건설, 강하천정리, 주택건설, 읍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무연탄, 자금 등 모든것을 군자체로 해결해나가자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직접 조직집행해야 할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로형도는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정무원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책임비서가 새로 와서 괜히 멋도 모르고 사람들만 들볶는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광풍세는 주인공이 새땅을 많이 찾고 논을 많이 풀어 산골사람들의 소원인 흰쌀밥을 먹게 하고 훌륭한 문화주택을 지어주자고 할 때 명신사람들에게는 잡곡밥이라도 덜 구지 않고 먹이면 다행이라고 하면서 달가와하지 않았으며 자체로 석탄을 찾아내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림동훈에 대해서 뒤에서 코웃음을 쳤다. 또한 한창 벌려놓은 읍공업품상전집설에 대주기로 되어있는 자동차와 로력을 제대로 대주지 않아 애를 먹였다.

주인공 림동훈은 당의 의도를 받들려는 자세와 립장,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관점과 립장이 바로서 있지 못하고 제힘으로 살아나가려는 립장이 서있지 못한 일군들에 대한 꾸준한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면서 사업의욕이 높고 성실하며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젊은 청년들을 대담하게 믿고 명신의 참된 일군으로,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로 키워주며 그들이 명신산골을 개변시키는데서 핵심

적역할을 하도록 한다. 림동훈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자기 한몫을 그대로 내대며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을 모르는 일군이다.

하기에 그는 책임비서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때에 운포리로 버를 실러 갔던 자동차가 사고난 현장에 나가서 오랜 세월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던 애창강가마소 매물전투를 현장에서 조직하여 그 사고의 근원을 없애버리게 한다. 발가운데 떠엄떠엄 있는 집들을 산기슭의 비경지로 옮기는 일도 명신군에서 제일 사람못사는 고장으로 소문난 태흥리로 정하고 태흥리 양산부락에 최상급의 시범문화주택을 건설하고 전군에 일반화하도록 한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투철한 당일군이였기에 당에서 것처럼 믿고 키워주고 지배인으로까지 내세워준 방준각이 석탄을 가지고 외부기관들과 교섭을 하는 과정에 공급 천원을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고 한개 농장 온실에 주어야 할 석탄공급량을 미달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대하여 용서할수 없었고 엄한 비판을 주며 책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동무는 석탄미공급량이 적거나 공급의 액수가 작은건 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누만. 그것이 크나큰 인민의 재산이라는건 생각해보지 않았소? 십전짜리 한개라도 그것이 나라의 재산, 인민의 재산일 때는 자기 몸무게에도 대비가 안되게 귀중히 여길줄 아는 거기에 일군으로서의 인민성이 있는거요. 바로 이것이 결여된 사람은 동무처럼 천원도 부스럭 돈으로 보이고 농장에 석탄을 못주고도 가책을 느낄줄 모르는 법이요. 그렇게 보는 눈은 인차 커져서 서슴없이 인민의 재산을 막대하게 탕진할수 있소.》

방준각지배인이 석탄을 캐서 그것으로 벌어들이는 돈액수에 비하면 돈 천원은 너무도 적은 액수였다. 하지만 천원이라는 돈속에 혼자서는 다 지고 일어날수 없는 인민이라는 지구덩이의 질량보다도 더 큰 무게가 실려있어서 그리도 무겁다는것을 방준각이 망각하고있는데 림동훈은 그것이 가슴이 아팠다.

작품의 주인공 림동훈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일군이다. 군당책임비서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것이 거의 없던 명신군은 식량을 자급자족하고도 해마다 많은 량의 식량을 타군에 넘겨주는 고장으로 되었고 석탄폭포 쏟아지고 세멘트도 생산하여 군건설을 자체로 하고도 남게 되었고 황금산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군살림살이를 풍족하게 꾸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명신군은 사람못살고장으로부터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는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되었다. 그 공적

에 대한 응당한 평가로 군당책임비서 림동훈은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렇지만 림동훈은 성과에 만족할줄 몰랐고 영웅이 된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명신군을 현지에서 지도하실 때 림동훈에게 동무는 영웅이 된 다음에도 많은 일을 했다던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물으심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올리였다.

《장군님,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는 만족이 있을수 없고 정해진 한도가 없기때문입니다. 그 한도를 저희들은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될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자기 한몫 불태워 많은 일을 해놓고도 만족과 자족을 모르는 사람, 이런 일욕심이 많은 일군이 바로 인민의 참된 총복이다. 주인공 림동훈의 위훈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것이다.

우리의 일부 일군들속에서 무엇을 좀 해놓고는 큰것이나 한것처럼 허리띠를 풀어놓고 앉아서 건달을 부리며 평가나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않은 조건에서 작가가 탐구한 주인공의 형상은 참으로 의의가 큰것이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만족을 모르고 끝없는 충성의 열정을 쏟아부으며 한몫을 그대로 불태우는 림동훈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당의 참된 충신, 인민의 참된 총복의 모습을 보는것과 함께 당에 끝없이 충실한 충신의 피는 절대로 식지 않는다는 생활의 참된 철리를 깨닫게 된다.

장편소설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또한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어렵고 힘든 일에서 언제나 앞채를 메고 달리는 당일군의 전형을 훌륭히 형상한데 있다.

오늘의 벽찬 현실은 일군들이 뒤에서 《돌격앞으로!》의 구호를 웨치면서 군중을 앞으로 달려나가라고 호소만 할것이 아니라 《날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면서 돌격전의 맨 앞선에서 앞채를 메고 달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면서 말보다도 실천을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시대 당일군의 중요한 품성이며 기질이다.

작품에 그려진 림동훈은 생김새와는 달리 담이 크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는 당일군으로 전형화되었다. 림동훈이 군당책임비서로 처음 부임인사를 했을 때 군급 간부들의 반향은 각이했다. 40대의 한창나이는 좋지만 책임비서가 너무 곱고 얹전하게 생겨서 거악스러운 명신땅을 꽤 주물러내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산이 커야 그들이 크다고 구척장신에 눈섭이 시꺼멓고 코마루가 우뚝한 산악같이 드

센 사람, 눈빛이 형형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나이가 와야 명신의 왕장노릇을 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려하는 축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중에는 암전하고 곱게 생겼지만 두눈빛을 보면 푹푹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 축들도 있었다.

하지만 명신산골토배기들이 부질없는 걱정을 앞세웠던 것이다. 새 책임비서가 처음 와서 하는 일잡도리에 명신산골사람들의 눈이 대번에 뒤집혀졌다.

군의 실태료해끝에 책임비서가 군당확대집행위원회에서 가까운 몇해안에 해결해야 할 당면목표를 발표했을 때 일군들은 어리둥절했다. 새 책임비서가 펼쳐놓은 식량문제해결, 문화주택건설, 읍도시건설, 강하천정리, 황금산의 종합적리용 등에 대한 설계도는 너무도 방대하고 요란했으며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것을 군자체의 힘으로 10년안팎에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설계도는 온 군에 삽시에 퍼져 명신평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려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책임비서는 결코 말로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장군님 배짱에 맞는 실천가형의 일군이였다. 그가 얼마나 담이 크고 통이 큰 작전을 벌리는 일군인가 하는것은 칼벼랑산을 단 한번의 발파로 통채로 날려 그 깊이를 헤아릴수 없었던 애창강가마소를 메워버리는 전투를 조직하여 단 며칠사이에 해제긴데서 표현되였다. 칼벼랑산을 통채로 날려보내는 대발파소리, 이것은 수천년 잠자던 명신평의 위대한 전변의 서곡이였으며 거약스러운 명신평을 거느릴 주인이 이제야 나타났음을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메아리였다.

군당책임비서 림동훈은 《명신평비리》로 알려진 충흥리의 강녕이발 수백정보가 예상치 않게 갑자기 쏟아진 눈사태에 파묻혀 온 농장별이 울음바다를 이루었고 군경영위원장도 농장관리일군들도 일년농사를 순간에 망친 분함으로 어찌할바를 모르고 주저앉아있을 때에도 현지에서 비상협의회를 조직하고 온 군을 동원하여 단 하루동안에 리의 그 많은 강녕이발면적에 직파를 끝냈다. 그가 읍도시건설설계를 펼쳐놓았을 때 일군들은 책임비서를 환상가, 공상가로 치부하기까지 했다. 이런 담과 일본새로 끝없이 설계도를 펼쳐놓았고 군살림살이를 통이 크고 판을 크게 벌려놓았다.

소설의 주인공 림동훈은 일판을 크게 벌려놓고는 공격서열의 맨앞에서 앞채를 메고 달리는 당일군의 전형으로 형성되였다.

명신에서 제일먼저 새벽길을 걷는 사람이 림동훈 책임비서였다. 아침밥을 짓는 녀인들마저 깊은잠에 들어있는 이른새벽에 늘 남먼저 찬바람을 맞으며 읍공업품상점건설장과 주택건설장, 강하천작업장

을 돌아보는것을 림동훈은 생활화하였다. 군행정경제위원장 로형도가 식전에 읍공업품상점건설장을 돌아보려고 나오면 책임비서는 벌써 건설장에 나와 있었다. 깊은 밤중에도 건설장들이 걱정되어 나가 보군했다. 이 과정에 한밤중에 도착한 세멘트 한자동차를 인수원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창고까지 다 겨나르기도 했다. 두번째로 왔던 전문탐사대들까지 끝내 석탄을 찾아내지 못한채 떠나가버리자 자력갱생탐사조를 못하고 방준각탐사조장과 함께 강녕이뺨떡배낭을 메고 광대산 깊은 산속을 헤매며 확인탐사까지 떠났던 이야기는 정말 뜨거운 감동을 금할수 없게 한다. 림동훈은 자신이 직접 석탄탐사와 관련한 수많은 책들을 구해다가 밤을 지새우며 연구도 해보았고 탐사조와 함께 험한 산속을 헤매며 바줄을 타고 험한 벼랑을 뚫아오르기도 했고 벽계수를 받아다 돌아가마에 불을 피워서 석탄이 있는 지대인가, 없는 지대인가를 확인도 해보았으며 천연동굴에서 고깔불을 피워놓고 가랑이를 깔고 쪽잠도 잤다. 탄맥을 찾아 400m 굴진을 할 때에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질통을 지고 한밤을 꼬박 새우며 일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어렵고 힘든 일에 언제나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림동훈이였기에 아주머니들이 다들 하지 않겠다고 하여 돌림식으로 하고있는 체송원직업을 자기 안해에게 맡겨주며 그가 손달구지를 끌게 한다. 그리고 읍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건설로동자로 직업을 다시 바꾸게 했다. 고등중학교를 갓 졸업한 아들 창현이도 가장 힘들고 험한 직업인 석회석채석장에 보내어 채석공으로 일하게 한다. 체육관건설도중 반쪽짜리 철트라스 2개가 공중에서 흔들거리다가 우연히 맞붙어 제멋대로 《조립》됨으로써 용접으로 붙어 해체하지 않고서는 작업을 계속할수 없게 되었을 때 생명을 담보할수없는 아찔한 기증기팔끝에 매달려 작업을 해야 하는 그 위험한곳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창현이를 올려보낸다.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중에 체육관건설장에 나와 아버지는 밑에서 신호를 하고 아들 창현이는 아찔한 기증기팔끝까지 기여나가 기증기팔에 매달려 철트라스 해체작업을 하는것을 보게된 순간 로형도의 가슴은 뜨거운것이 차올랐다.

이렇듯 자신만이 아닌 온 가족이 명신평을 개변시키기 위해 화불이 되어 앞장에 섰는데 어찌 이곳 일군들과 군중들의 심장에 불이 지펴지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주인공 림동훈은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 한몸 불태우는 화불이 되여야 한다는 작품의 심오한 종자를 안고있는 인물이며 그 종자에서 꽃피난 우리 시대의 참된 당일군의 전형이다.

장편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일꾼들이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군중을 이끌어 나갈 때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으며 점령 못할 고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주고 있다.

장편소설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은 또한 주인공을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고 운명도 미래도 끝까지 책임져주는 참된 당일군의 전형으로 형상한 데 있다.

림동훈은 군에 가면 사람을 잘 끌라 명신을 떠메고나갈 주인으로 잘 키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행정경제 일꾼들을 믿고 내세워주며 동시에 대가 바르고 성실하며 실력이 있고 주인다운 태도가 높은 청년들을 대담하게 믿고 키워주고 내세워준다. 장공장 회계원인 제대군인청년 조원태를 장공장지배인으로, 석탄전문학교 졸업생인 군안전부 안전원 방준각청년을 석탄탐사조 조장, 탄광지배인으로, 탐구심이 강하고 기계기술에 밝은 박유진청년을 불도젤작업 반장으로, 운명의 곡절을 겪고있는 자재인수원 송국형을 황금산산업소 지배인으로 믿음을 주고 키워주고 그들의 운명도 미래도 끝까지 책임져준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공장지배인 조원태가 공장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 압시험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을 때 자포자기상태에있는 그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생산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료양을 보내어 장기치료를 받고 지배인사업을 계속하도록 한다. 송국형이 일부 일꾼들의 경솔한 처사로 억울한 루명을 쓰고 자재인수원으로 강직되어 고민속에 나날을 보내고 단란하던 가정까지 흩어져 불행을 당하고있는데 대해 누구보다도 가슴아프게 생각한 것이 책임비서였다. 그는 송국형에게 황금산산업소 지배인의 사업을 맡겨주고 주택입사증까지 주어 가족이 다시 모여살도록 해주고도 그의 가정에 남아있는 《후유증》까지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 무진애를 쓴다. 송국형의 처가 눈병이 심한데다가 심장병까지 겹쳐 생의 희망을 잃고있을 때 림동훈은 유능한 의료집단이 있는 중앙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대책을 다 취해주며 그가 수술할 때에는 명절상품인수로 출장을 간 남편대신 책임비서가 평양까지 출장을 가서 수술립회를 선다. 림동훈이 출장을 떠날 때는 로환으로 누워 위급한 병세에 있는 늙은 누님이 림종을 앞둔 때였다. 림동훈책임비서가 송국형의 처 차추월의 수술이 성과적으로 됐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군에 내려왔을 때에는 어머니대신 모시고있던 누님이 동생이 보고싶다며 찾다가 운명을 한 뒤였다.

작품에는 당일군으로서의 주인공 림동훈의 뜨거

운 동지적사랑, 숭고한 인간애를 보여주는 감동깊은 장면들이 많이 그려졌다. 처가 남편의 쇠약해진 건강을 회복시켜보려고 산삼 한뿌리를 넣고 정성껏 닭곰을 만들어주었을 때 림동훈은 그것을 자기가 다 먹었다고 하고는 녀성돌격대장으로 탄광개발공사에 참가하여 밤낮없이 일하다가 허약해진 처녀에게 단지채 보내주어 몸을 회복시켜준 이야기, 림동훈이 건강이 매우 나빠져 양덕병원에 입원해있을 때 향곡리 원정학리당비서가 몸보신하라고 가져온 산삼 한뿌리를 읍에서 사는 전쟁로병 특류영예군인에게 보내어 몸을 회복시켜준 이야기, 행정경제위원장 로형도의 죽은 전처 부모들의 생일 일흔둘때 평양의 친구들에게까지 부탁하여 옷감일식을 갖추어주고 큰상을 차려주어 로형도도 그의 후처 류선희도 뜨거운 눈물을 쏟게 한 이야기 등은 그 실례로 된다.

림동훈의 이런 인간미에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만 생각해오던 로형도는 그의 인간미에 매혹되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내면독백으로 터뜨린다. 책임비서가 선임자들이 하지 못한 큰일을 몇년사이에 제껴나가는 그 힘과 지혜의 원천은 곧 당에 충실하고 인민에게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로 일꾼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준 데 있다. 이렇게 이끌어준 일군이어서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찾을 줄 알고 험한 고개길도 웃으면서 헤쳐갈 줄 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자기의 낡은 사고방식, 낡은 관점을 없앨 결심을 다졌다. 경영위원장 광풍세는 명신을 한가슴으로 안아키운 림동훈의 그 불같은 열정, 언제나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키워주고 내세워주며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림동훈의 인간미에 점점 끌리어 자기 주위에 겹겹으로 둘러쥔 본위의 울타리, 보수의 때절은 담장이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져나감을 가슴저리게 느꼈다. 림동훈의 인간미에 이끌리어 그들만이 아닌 수많은 명신의 일꾼들의 사상전환이 일어났으며 새 세대 청년들이 명신땅의 주인으로, 기둥으로 자라나 온 명신군을 일떠세우는데 앞장에 섰다. 여기에 또한 명신땅에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를 창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참으로 주인공 림동훈의 형상은 우리 시대 당일군이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와 특질, 사업방법과 작풍, 일본새를 체질적으로 체현한 주체형의 참된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다.

장편소설 《산촌의 해불》은 예술적형상화에서도 작가가 사색을 기울이고 탐구한 몫이 뚜렷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작가는 우선 우리 시대 참된 충신의 모습,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당일군의 성격적특성과 사상정신적

풍모를 감동깊게 보여줄수 있게 모든 형상요소들을 복종시키고 형상수법들을 적극 탐구이용하였다. 인민을 위해 벌리는 군당책임비서의 활동범위는 매우 넓고 인간관계는 복잡다양한것이다. 작가는 그 복잡다양한 인물관계들과 사건들중에서 당의 충신,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주인공의 성격미를 부각시켜 보여줄수 있는 인간관계, 사건들만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그렸다. 이와 함께 작품에서 주인공과의 직접 및 간접적인 관계속에 있는 시점인물들을 설정하고 그 시점인물들을 통하여 주인공의 숭고한 인간미, 사상정신적풍모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태흥리 양산부락의 박근보로인, 우만숙녀성 그리고 청년의 진정이 담긴 당중앙검열료해그루빠에 써보낸 신소편지를 통해서인 인민의 사랑과 존경, 신뢰를 받고 인민의 보증을 받는 참된 당일군의 풍모를 부각시켜준다. 검열료해그루빠책임자인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시점을 통해서인 당의 의도를 받드는 충신형의 일군, 깨끗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높은 당적수양을 지닌 참된 당일군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준비정도를 부각시켜주고있다. 또한 주인공과 상대인물들의 내면독백과 성구속담의 적극적인 활용 등으로 인물들의 내적체험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보여주고있는것도 주인공의 성격창조에 이바지된 좋은 시도였다고 볼수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또한 원형인물의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전형화를 실현하는 작품의 생리와 구성의 원리에 맞게 구성작업을 독특하게 개성미가 나게 하였다. 작품에서는 당의 충신,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주인공의 성격적특성이 집중적으로 발현된 명신 땅을 개변시킨 70~80년대의 10여년간의 생활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때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1990년대 후반기의 생활, 현지지도를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높은 평가의 말씀을 받는 영광을 받아안게 되는 주인공의 생활을 종장부분으로 설정하여주었다. 이러한 구성형식은 당의 의도를 받들어 커다란 공적을 이룩하고도 자만자족이 아니라 더 높은 열정을 가지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길, 변함없는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충신의 풍모를 실감있게 보여주는데서 효과적인 구성수법이라고 볼수 있다. 주인공과의 인맥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관계를 극성을 자아내는 인정적인 관계로 맺어주고 주인공의 사색과정을 깊이있게 그린것은 지성도가 있고 인정미가 넘쳐나는 당일군의 형상창조에서 작가가 보여준 묘기이며 귀중한 창작경험이다.

작품은 군당책임비서와 행정경제일군들과의 관계를 정치사상적인 관계, 혁명적인 동지관계로 좀더 깊이있게 맞물려주고 행정경제일군들의 사상전환과정을 좀더 설득력있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리고 소설의 뒤부분에서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적구성미가 돋구어질수 있게 구성작업을 좀더 세련시켰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작가들은 시대미학적견지에서 창작활동을 적극 벌려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진짜배기 충신, 인민의 총복들을 더 많이 형상해냄으로써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나가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사상정신적량식을 주어야 한다.

## 가사

# 병사의 가슴속에 설레는 나무

리호

가렬한 결전의 그 자욱이런가  
오늘도 파편나무 고지우에 서있네  
포화에 잎새는 타버렸어도  
병사의 가슴속엔 푸르려있네  
아 분노의 아지를 무성히 펼치고

내 조국 삼키려던 원썬들 잊지 말라  
무수한 파편안고 세월 넘어 서있네  
포탄에 허리는 끊기였어도

병사의 가슴속엔 자라고있네  
아 복수의 줄기를 억세게 뻗치며

원썬들 또다시 불구름 몰아오면  
병사는 네앞에서 결사전에 나가리  
다시는 못다칠 이 땅의 나무들이  
병사의 가슴속에 설레고있네  
아 피로써 조국 지킬 그 맹세 불태우며



## 꺼지지 않는 메아리

림병순

며칠째 푸근한 겨울날씨가 계속되었다. 온 여름 설레이며 출렁이던 수풍호의 풍만한 물은 폭 꺼져 버린 호면밀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도도히 흐르고있었다.

하얀 눈까비들이 희끗희끗 날리는 어느날 털모자를 목덜미까지 눌러쓴 잠수작업반의 오랜 잠수공 최영진아바이는 언제우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모자며 어깨우에는 하얀 눈까비들이 수북이 내려쌓이였다. 그의 시선은 언제밀의 한곳에 박힌채 오래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찾으면 금시 물속에서 잠수모가 솟구치고 그안에서 보조개를 지으며 웃음짓는 젊은 반장의 얼굴이 나타날것만 같았다. 아무리 힘든 작업을 하고나서도 잠수복을 벗겨주는 반원들에게 먼저 웃음부터 지어보이던 사람이였다.

아바이는 두툼한 입술을 약간 움썔으며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으나 언제를 넘는 바람소리만 이 애처롭게 귀청을 울리였다.

영원히 곁을 떠나간 김기덕반장이였다. 살아온 나날보다 더 많이 살아야 할 생을 그대로 남겨둔채 그는 한몸이 육탄이 되어 장렬한 최후를 마친것이 다.

《...내 왜 그의 마음을 그리도 몰랐던가?...》

지금 아바이는 그를 대신하지 못한 아픔에 시달리며 젊은 반장의 생을 두고 번거로운 생각에 잠기고있었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어려운 때에 마지막 하루를 백년보다 더 빛나게 살기간 그의 지나온 나날들은 바로 그 마지막 하루를 위해 존재하였던가?

아바이는 그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참을길 없는 아픔과 쓰라린 회오에 젖어 레사롭게 흘러간 평범한 지난날의 회억속에 깊이 잠겨버리였다.

X

유난히 따스한 가을날이었다.

30대의 젊은 잠수작업반장이였던 최영진은 갓 들어온 잠수공들에게 잠수훈련을 주고있었다. 그날은 배기변을 조절하는 훈련이었다. 수십 m의 깊은 물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잠수공들에게 그것은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물속의 대상을 관찰하고 귀와 입으로 통화를 진행하면서 작업을 하자면 무엇보다 부력조절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반장은 호수가에 띄워놓은 잠수배우에서 전화기를 들고 물안에 지시를 주었다.

《더 깊이 침수하라!》

《알았다.》

전화기에 애어린 목소리가 울려왔다. 김기덕이였다.

그런데 물밑으로 내려가던 잠수공이 별안간 꺼꾸로 수면에 떠올랐다. 배기변조절을 잘못하였던것이 다. 잠수신발이 솟구쳐오르는 순간 갑판에서는 와-하고 큰웃음이 터져올랐다.

최영진은 대뜸 미간을 찌프리고 작업반원들을 향해 엄한 눈총을 쏘았다. 일단 잠수에 들어가면 매사에 엄격한 반장이였다.

반원들은 자라처럼 목을 움츠려뜨리였다.

반장이 다시 들어가라고 엄하게 소리를 지르자 김기덕은 하는수없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되어 다시 수면으로 솟구쳐올랐다.

반장은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0분이 채 못되었다.

(안되겠군. 진짜 애송이야...)

최영진반장은 그를 갑판에 끌어올리고 재빨리 잠수복을 벗겨주었다. 그는 추워서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가을이라 물속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인내력이 없이는 그 랭기를 감당해낼수가 없었다.

반장은 지체없이 옷을 갈아입히였다.

《어때? 물속이 뭐 룡궁인줄 알았나?》

김기덕은 말없이 뒤더수기를 굵적이었다.

《한번 들어가면 2시간동안을 일해야 하는데 넌 기껏 10분이야. 추운 겨울에는 더 급하지. 바로 이게 잠수작업이란 말이야.》

반장은 능글맞게 이죽거리였다. 첫번에 혼내여 로동과로 다시 찾아가도록 하자는 심산이었다. 처음부터 반장은 이 애송이청년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잠수장구의 무게에 비해 절반밖에 안될상실은 그가 아무래도 미심쩍게 여겨졌던것이다. 그래서 잠수공이 되겠다고 찾아온걸 돌려보냈는데 로동과에 가서 때를 써서 기어이 배치장을 받아냈던것이다.

《훈련을 하면 되겠지요.》

《흥, 물에 들어간다고 다 잠수공이 되는것도 아니야. 물안에 들어가 착암도 하고 기계조립과 연공작업도 해야 돼. 말하자면 남들은 한가지 일을 하지만 잠수공은 다기능공이 되어야 하거든. 혈한 일이 아니지.》

《배우면 되겠지요.》

김기덕은 불이 부어 옆으로 고개를 틀었다. 잠수 작업을 우주비행이나 하는것만큼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반장이 못마땅해졌던것이다.

《너 몇살이라고 했지?》

《열여덟살.》

《그럼 장독 뒤키투를 더 먹고 와.》

《반장동지도... 리수복영웅이 몇살에 화구를 막았는지 알아요?》

지나치게 당돌한 항변이었다.

《뭐? 그런 말은 쉽사리 하는게 아니야.》

반장은 억이 막혀 그저 입술만 땀그르느라였다. 온 녀석으로 그 뜻을 새기고 심장에 간직해야 할 그 말을 그는 너무나 쉽사리 하고있었다. 진짜 애송이 청년이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었으니 마음이 고무풍선처럼 잔뜩 뽐는지도 몰랐다.

반장은 그에게 아예 다른 직종을 선택하는것이 좋겠다고 타이렸다. 했으나 그것은 돌우에 바늘 꽂는 격이었다. 반장은 그자리에서 돌려보내려던 생각을 좀 늦추고 이틀날부터는 훈련강도를 한층 높였다. 호기심에 끌려 잠수공이 되었다가 몇번 물속에 들어가보고 제발로 다른데로 옮겨왔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은 계속되었다.

인내성을 키우는 훈련은 처음으로 잠수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훈련이었다. 한번 잠수하여 2시간이란 한계점을 유지하자면 보통의지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 고비를 넘기면 잠수공이 되는것이다.

김기덕은 첫날 훈련에서 웃음거리가 되어서인지 달라붙는 품이 달랐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뿐이었다.

반장이 주는 훈련과제를 끝내 수행하지 못하고 갑판에 오른 그는 몹시 실망하는 기색이었다. 그것이 측은하게 여겨졌으나 반장은 자기의 의도대로 일이 번져나가는것이 한편 다행스러워 혼자 시들히 웃음을 지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점심을 먹고 갑판에 앉아 잠시 해바라기를 하였다.

늦가을이지만 한낮의 해별은 따스하였다. 병풍처럼 둘러친 산발들에는 단풍이 들어 호수의 류다른 정취를 돌구었다.

반장은 오후작업을 위해 압축기며 장구류들을 점검하고있었다.

김기덕은 현동무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동무는 몇달전에 입직하여 이미 잠수작업을 독자적으로 하고있었지만 아직 작업반에 안착되지 못하고 요즘에는 다른데로 옮겨갈 생각까지 하고있었다.

《너 정말 잠수공이 마음에 드니?》

현동무가 기덕에게 물었다.

《그럼.》

《언제까지 잠수공을 할 작정이냐?》

《나이가 들어 잠수를 못할 때까지...》

그 말을 듣자 반장은 느슨히 미소를 지었다. 현동무의 마음속 동요를 감촉하고있는 반장은 그 말이 얼마나 대견스럽게 들리었는지 알수 없었다. 바로 자신이 해주고싶었던 말을 애송이청년이 하고있었다.

《넌 참 우리 반장과 신통히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제대되어 지금까지 잠수공을 하고있는걸 보면... 어김없는 쌍둥이지.》

빈정거리는 그 소리에 반장은 잠수장구를 거두다 말고 그들을 향해 던지시 한마디 말참네를 하였다.

《난 처음부터 잠수공이 되고싶어 된것이 아니야. 여기에 배치받았으니 시작한것이지. 그러나 난 후회하지는 않는다.》

등뒤에서 울리는 말에 현동무는 깜짝 놀라 씨물 씨물 웃으며 김기덕의 등뒤로 몸을 움츠리었다.

《그러나 기덕동무야 다르지. 내가 못한다고 쫓아보냈지만 때를 써서 잠수공이 되었거든. 그러니 기덕동무의 결심을 의심하거나 모욕해서는 안돼.》

그 말을 듣는것이 거북스러운듯 김기덕은 별정계 얼굴을 붉히었다.

웬만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는 최영진반장이었다.

그러나 김기덕이를 바라보는 반장의 눈길은 아직 달라진것이 아니었다.

몇해가 지나서 최영진반장과 작업반의 기본력량은 주체사상탑 건설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대동강밑에 배관을 늘이는 작업을 하고있었다. 이미 탑의 골조조립은 끝났다. 하늘높이 치솟은 탑우에서는 낮에도 밤에도 용접불꽃이 날리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잠수공들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 어렵고 힘든 과업이 바로 그들의 어깨에 실려졌던것이다.

온종일 잠수작업을 하고나면 밤에는 몸이 나른해지고 누우면 바닥에 그대로 잤다는듯싶었다.

반장은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가면 인차 잠자리부터 퍼놓았다.

《어서들 눕게. 잠을 푹 자야 몸이 거뜨해서 잠수를 할수 있네.》

최영진반장은 이렇게 타이르며 먼저 자리에 눕기가 일쑤였다.

그는 반원들이 눕기전에 잠에 깊이 푹아떨어지다 보니 김기덕의 침대가 비어있는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며칠이 지나서야 그것을 발견한 반장은 빙긋이 웃으며 물어보았다.

《자네 요즘 요정한테 홀린게 아닌가?》

《요정이란니요?》

잠수공들의 대화에서는 물과 비유한 말들이 자주 새나왔다. 줄곧 물속에서 사는 직업적인 특성에서였다.

《아무래도 룡궁공주한테 홀린게 틀림없어.》

반장은 김기덕의 마음을 중떠보듯 오금을 박으며 언지시 그의 기색을 살피었다.

이제는 처녀의 황홀한 눈길에 절로 가슴이 설레일 좋은 시절이었다.

《아무렴 내가 처녀한테 홀리우겠어요?》

김기덕이 언덕을 부리었다.

《주의하게. 그런 일은 심중해야 하네. 자칫하면 실수할수 있네.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야.》

반장은 년장자다운 신중한 어조로 타일렀다. 밤마다 없어지는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켜기였던것이다.

아침식사를 일찌기 하고 작업장으로 나가던 최영진은 무심히 길옆의 속보판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대문짝같은 속보판에 김기덕의 이름이 나붙었던것이다.

《<룡궁>에서 온 용접공.》

그밑에 밤마다 주체사상탑 건설장에 가서 일손을 돕고있는 그의 아름다운 소행이 소개되어있었다. 류다른 제목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반장은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자기의 상상으로는 그 사실을 부인할수도, 그대로 인정할수도 없었다. 아무리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 해도 낮에 그토록 어려운 잠수작업을 하고 밤에 또 공사장에 나갈수가 없었다.

(모를 일이야. 거 혹시 같은 이름이 있는게 아닐가?...)

때마침 김기덕이 식당에서 나오자 반장은 그를 가까이 불렀다.

《저 속보판에 난 김기덕이가 자네 이름이 옳은가?》

그는 대답을 피하고 빙그레 웃음만을 지었다, 언제나 투명한 정기가 떠돌던 그의 눈에 피발이 서있었다.

《허 참, 돌격대원이 돌격대를 지원한단 말이지. 놀랍군. 이거야말로 진짜 특보감이군그래...》

반장은 혼자 뇌이며 고개를 주억거리었다. 그런것도 모르고 오금에 바람이 들었다고 걱정을 하고있는 자신이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도대체 이사람한테서 그런 힘이 어디서 생겨난단 말인가?

《가보니까 용접공들이 일손이 팔려 야단이더군요. 그래서 한번 탑에도 올라갈겸 해서 사다리를 탔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용접불꽃을 날리고있지않겠습니까. 대번에 마음이 끌리더군요. 아마 요정이 아니라 하늘의 선녀한테 반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는 너스레를 떨며 소리내어 웃었다.

반장은 코숨을 내쉬고 눈만 껴먹이었다. 엉뚱하

기 그지없었다. 요즘 와서 반장은 그걸 수시로 체험하고있었다.

배관매몰작업의 어려운 구간이 끝나는 날이었다.

김기덕은 반장과 한교대가 되어 아침부터 일손을 다그쳤다. 그들은 매번 잠수작업의 한정시간에 계획되었던 배관을 훨씬 넘쳐 매몰해나갔다. 그런기세로 나간다면 공사기일은 열흘이상이나 앞당겨 끝낼수 있었다. 배우에서도 강밀에서도 잠수공들의 피발이 선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열기와 함께 번개같은 섬광이 튀기었다.

오후작업이 시작되어 한시간이 지났을무렵,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던 압축기에서 갑자기 아츠러운 소리가 들리고 이어 동음이 끊어져버리었다.

《압축기가 고장났다!》

누군가가 웨치는 소리에 갑판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일시에 압축기옆으로 모여들었다.

강밀에서는 김기덕이 작업하고있었다.

전화기를 들고 그에게 지시를 주고있던 최영진반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하였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다급히 목청을 높이었다.

《압축기가 고장났다. 빨리 나오라!》

《알았다.》

그러나 전화기에서는 여전히 쇠붙이들이 부딪치는 소음만이 들려왔다. 김기덕이 작업을 계속하고있었다.

《작업을 중지하고 빨리 나오라!》

《알았다.》

5분, 10분, 돌아가는 초침의 한초한초가 둘러선 사람들의 가슴을 마구 옥죄이었다. 바람이 중단되어 생명이 안전할 한계점은 이제 기껏하여 몇분밖에 없었다. 그것을 모르지 않는 김기덕이었다.

반장은 련속 전화기에 대고 목청이 터져라 고아대고있었으나 애타게 기다리는 잠수모는 수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화석처럼 굳어진채 수면을 관찰하고있던 최영진반장이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성난 목소리로 웨치었다.

《기덕이, 죽을라고 그래. 빨리 나와!》

그 순간 압축기의 고르로운 음향이 다시 울리면서 호스로 바람이 투입되었다. 그제야 반장은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며 그자리에 펄쩍 주저앉고말았다.

김기덕은 한시간이 실히 지나서 하던 일을 마치고 수면우에 나타났다.

반원들이 달려가서 다급히 잠수복을 벗기었다. 반장은 김기덕을 향해 대뜸 눈을 지릅뜨고 한바탕된욕을 퍼부었다. 쌓였던 분풀이를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김기덕은 얼굴에 불우물을 지으며 태연히 웃어보이었다.

《참 한심한 사람이군. 젊은 사람이 죽음도 두렵지 않소?》

반장의 얼굴에는 아직 노염의 기색이 풀리지 않았다.

《난 압축기가 살아나리라 믿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동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그들을 믿는단 말입니다...》

최영진반장은 턱을 들고 허거프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로 하여 반장은 하루종일 마음이 번거로웠다. 압축기가 고장났다는 위험신호를 받으면 누구든 하던 일을 중지하고 나오기 마련이다. 자신도 역시 그랬을 것이다. 허나 그 상황에서 7분을 남길 때까지 작업을 한 김기덕이가 생각할수록 놀라웠다. 그것은 모험이다. 그러나 다른 생각은 그것을 부정하였다. 그는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을 믿었고 갑판에 있는 동지들을 믿고있었다. 그런 신념이 없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

(정말 속이 깊은 사람인걸...)

최영진은 자리에 누워서도 졸곧 김기덕의 빈 칩대를 바라보며 산란한 생각에 잠겼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대동강변은 하나의 거창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 건설장에서 수백개의 용접불꽃이 경쟁이나 하듯 병긋거리면서 캄캄한 밤하늘에 꽃보라를 날리었다.

최영진은 강변의 의자에 앉아 취한듯 오래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반장동지, 아직 쉬지 않습니까?》

김기덕이었다. 공사장에서 돌아오는지 웃동을 벗어 한쪽 어깨에 둘러멘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번들거리었다.

《음, 왜 그런지 오늘은 잠이 안오는군. 또 공사장에 나갔겠나?》

《네.》

최영진반장은 옆으로 비켜앉으며 자리를 내주었으나 김기덕은 그대로 서서 주체사상탑 건설장을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야, 정말 대단하구만요. 이제 저 탑꼭대기에서 해불이 타오른답니다.》

《그래.》

《대동강에서는 대분수가 하늘높이 솟아오르고...》

오늘따라 그는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가름한 얼굴은 한껏 상기되어있었고 눈동자는 나어린 소년처럼 류달리 투명하게 빛났다.

《그 해불은 온 누리를 밝혀주는 주체의 해발이지요. 자주시대의 휘황한 등대란 말입니다. 세상사람들은 이 주체사상탑을 바라보며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 싸워나갈겁니다.》

반장동지, 우리 주체사상탑이 완공되면 가족들과

같이 와서 그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그런데 대분수도 배경으로 나와야 할텐데...》

《자넨 정말...》

반장의 마음도 자연히 흐뭇해졌다.

《허 참, 자네 오늘 몹시 흥분되었네그려. 웬일인가?》

그러자 김기덕은 다소 마음을 진정하듯 팔소매로 이마의 땀을 문다지고나서 오늘날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소문도 없이 주체사상탑 건설장을 현지도하시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비록 자기가 일하는 작업장에는 모시지 못하였지만 그이께서 구상하시고 친히 이끌어주시는 사업에 자신의 적은 힘이나마 보태고있다는 그 보람과 긍지로 하여 그는 그토록 걱정을 이길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주체사상탑을 찾는 사람들이 하늘높이 치솟는 대분수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나요. 그걸 바로 최영진잠수작업반원들이 만들었던 말입니다.》

《허참, 배관이야 강속에 잠겨 보이지도 않는걸...》

《아무렴 뭐래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후대들은 먼 후날에도 대분수를 보면서 김정일시대의 건설자들을 두고두고 추억할겁니다.》

최영진은 젊은 사람의 입에서 후대들에 대한 말까지 나오자 또다시 고개를 젓히고 너털웃음을 터치었다.

《왜 그러니까?》

《하긴 자네도 이제 장가를 들면 인차 아버지소리를 들을테니... 인생이란 그런거지. 잠간이야...》

그 소리에 김기덕은 잠시 입을 다물고 무엇인가 생각에 잠겼다가 빙긋이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반장아바이도 참... 그런 긍지가 없다면 오늘에 사는 보람도 없는게 아닐가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들이 오래오래 추억할수 있게 말입니다.》

《암, 그렇구말구.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야 하네. 젊어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산다고 했네.》

최영진은 그의 말에 공감되어 고개를 주억거리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한갓 년장자로서의 레사로운 타이름에 불과하였을뿐 김기덕의 마음속에 움트고있는 생의 깊은 철리를 이해할수가 없었던 것이다. ....

뒤에서 누가 찾는 소리에 최영진아바이는 회상에서 깨어났다.

직장부문당비서가 가까이 걸어들었다.

《눈이 오는데 그만 들어갑시다.》

아바이는 다 타버린 담배불을 바닥에 비벼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걸음을 떼놓았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눈이 녹아 질퍽해진 언제로서 묵묵히 걸어갔다. 아바이의 심정을 모르지 않는 부문당비서였다. 어린 사람을 받아서 어엿한 잠수공으로 키우고 얼마전에는 반장사업까지 인계한 입당보증인의

쓰린 가슴인들 오죽하랴.

《아바이, 또 김기덕동무를 생각하는게 아닙니까? 반장이 장하게 최후를 마쳤는데 너무 그러지마십시오.》

《아니외다. 내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미처 다 알지 못하였지요. 참 그때 내가... 어리석었었습니다.》

아바이는 치받치는 걱정을 참을길이 없어 한손으로 가슴노리를 쓸어만지었다. 눈곱에는 아픈인지 슬픔인지 모를 한방울의 뜨거운 물기가 고여올랐다. 그것은 한가닥 가슴을 허비며 떠나지 않는 자책의 그늘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실수가 있을것인가? 이제라도 김기덕이 소생되고 자신이 대신 갈수 있다면 그 쓰라린 그늘을 가실수 있으련만...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침묵속에 서로 아픈 마음의 대화를 나눌뿐 오래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어느덧 눈이 멎고 낮게 드리웠던 하늘이 좀 트이면서 그사이로 한줄기의 얇은 해별이 흘러내리었다. 방수도로 빠져나온 강물이 언제밀에서 사품치며 해별을 받아 아롱거리었다.

《저, 당위원회에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당비서는 아바이의 침통한 기색을 살피며 뒤말을 얼버무리었다.

《내가 참가하여야 합니까?》

《네. 반장이 없으니... 대신...》

아바이는 눈길을 떨구고 힘들게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긴장된 전력문제를 풀자면 하루라도 발전기의 보수기일을 앞당겨야 합니다. 협의회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미 그것을 짐작하고있는 최영진아바이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보수기일을 앞당겨 모든 발전기들에 만부하를 걸어야 한다. 그러자면 작업반앞에 제기된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여 보수공들의 작업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반장이 돌과구를 열었으나 피물과도 같은 취수구는 마지막발악을 하는듯 아직 앞을 가로막고있었다. 잠수공들은 저마다 취수구의 숨통을 눌러버리는 전투임무를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제기하고있으나 서둘러 결론을 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전투임무가 그만큼 무겁고 또한 위험이 동반하였기때문이었다.

부문당비서는 사무실이 보이는 갈림길에서 헤엄치면서 회의시간을 알려주었다.

한낮이 가까와오자 하늘은 더욱 푸르게 높이 들리었다. 강기슭을 따라온 찬바람이 언제밀에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세찬 파문을 일으켰다.

아바이는 무거운 걸음으로 가파로운 둔덕길을 내려 작업반실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비어있었다. 한쪽옆에 잠수장구들이 무뚝히 쌓여있었다. 긴 책상우에는 두툼한 작업일지가 놓여있었다.

아바이는 의자에 앉아 시름겨운 눈길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반장을 인제한 날이 어느날이었던가?

불현듯 이런 생각에 잠기자 아바이는 머리속에서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은 잠수작업이 제기되지 않아 장구들을 수리하고 기술학습을 하였다.

《자, 반게. 작업반사업이 여기에 다 적혀있네.》

아바이는 그날의 작업을 일지에 기록하고나서 그것을 김기덕이한테로 넘겨주었다. 손때가 묻고 보풀이 인 일지에는 매일같이 작업분공과 수행정형, 앞으로 해야 할 작업대상들이 기록되어있었다. 그것이 인제물의 전부였다.

김기덕은 무슨 보물이나 받아안듯 작업일지를 두손에 받쳐들었다.

《난 반장사업을 주먹구구로 해먹다나니 인제할 것이 그제 다야. 자네가 한번 본때있게 해보게.》

최영진아바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서운한 생각보다는 기쁘고 대견한 생각이 더 컸다. 잠수공으로 키우고 입당까지 보증한 사람이어서만이 아니었다. 손을 들어 그의 입당을 찬성할 때의 기대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과 믿음에서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젊은것들이 아바이의 속을 태웠지요.》

《그런 소릴...》

아바이는 당치 않다는듯 도리머리를 저었다.

《이제부터 아바이는 작업반의 고문입니다. 잠수는 안해도 그저 곁에 앉아만 있어도 우리에게겐 힘이 되는거지요.》

《고맙네. 하지만 이제는 성 쌓고 남은 돌인걸...》

아바이는 서거운 마음에 말끝을 더듬었다. 제대 배낭을 풀어놓고 잠수일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었다. 당조직에서 이제는 늙었다고 잠수작업을 만류하는것이 고맙기는 하였지만 한편 허전한 마음도 없지 않았던것이다.

《아바이도 참,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아직은 아바이가 작업반의 주인입니다. 젊은것들을 이끌어줘야지요.》

《히히...》

김기덕이 결코 위안하자고 그런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아바이는 어느덧 스스로의 위안과 안도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여생만을 생각해왔던것이다.

(진짜 성 쌓고 남은 돌처럼 살아왔지...)

가슴을 누르는 무거운 자책에 모지름쓰듯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창밖의 거창한 언제가 그의 시야를 막아나설뿐 답답한 마음은 조금도 트이지 않았다.

고개를 젖히고 모두숨을 내쉬는 아바이의 눈앞으로 신기루마냥 서서히 한척의 잠수배가 나타났다....

압축기의 소음과 함께 전화수가 긴장한 얼굴로

련속 잠수공에게 통화를 보낸다. 살을 에이는 듯한 사나운 바람이 두터운 얼음장을 핏으며 기승을 부리었다. 취수구를 틀어막을 육중한 구조물이 서서히 수중으로 가라앉았다.

이윽고 구조물이 무엇에 부딪치는 둔중한 소리가 전화기에 미쳐왔다.

《주의, 접근하지 말라!》

취수구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힘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있었다. 그 힘에 굶어들어 취수구에 삼키우는 물소리가 쉼-쉼- 전화기에 울려왔다.

《알았다!》

반장이 응답하는 목소리였다.

잠시 침묵속에 구조물을 유도하는 소음이 들리다가 별안간 왓! 하고 놀라는 소리가 들리자 갑판의 모든 눈길이 전화기에 쏠리었다.

전화수가 다급히 전화기에 대고 취수구에 접근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침묵... 긴장된 눈길들이 전화수의 얼굴에 쏠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호스를 당기려는 순간 전화기에서 반장의 말소리가 다시 울리는 바람에 굳어졌던 얼굴마다에 안도의 빛이 비껴왔다.

드디어 구조물이 취수구를 틀어막았던것이다.

반장은 그것을 확인하고 인차 수면으로 솟구쳐올랐다. 이제 보로를 가지고 틈새기들을 물이 새지 않도록 틀어막아야 했다. 그것은 구조물을 막는것 못지 않게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그것을 알고있는지라 전화수는 좀 휴식하였다가 교대할것을 지시하였으나 반장은 그 지시를 거절하였다. 누구에게도 맡길수 없는 작업이므로 반장은 교대하는것을 승인하지 않고 그자리에서 보로를 요구하였다. 갑판에서는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였다.

그는 커다란 보로를 받아들고 유유히 물속으로 사라져버리었다.

갑판에서는 또다시 평평한 분위기에 휩싸인채 모든 눈길이 전화를 주시하였다.

갑자기 전화기에서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동지

떠들떠들 울리는 노래소리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 사람들의 긴장된 마음을 늦추어주려고 그러는것임을 그들은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기어이 취수구의 숨통을 틀어막으려는 결사의 각오임을 왜 모르랴. 그래서 갑판의 모든 눈길은 전화기에 박힌채 움직이지 않았다. 물안에서는 줄곧 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전화수는 잠수공의 위치를 가늠해보며 전화를 으스스리게 틀어친채 유심히 물안의 정황을 지켜보았다.

언제우로 한사람이 허둥지둥 달려오고있었다. 배우의 시선이 그쪽에 쏠리었다.

《아니? 영진아바이가?...》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 최영진아바이가 잠수배를 향해 바삐 걸어왔다. 숨이 턱에 닿아 발걸음을 옮겨놓을 때마다 헤쳐진 솜등복안에서 퍼런 줄문양이 간 환자복이 내보이였다. 균형판취수구를 막는 잠수작업을 한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병원에서 부랴부랴 달려오는 길이었다.

반장의 속도 모르고 자기는 편안히 침대에 누워있다보니 한발 뒤늦게 이르게 된것이 여간 괴롭지 않았다. 하루라도 앞당겨야 발전기를 돌리게 된다는 김기덕의 내심을 왜 자기는 생각하지 못하였는지 알수 없었다. 며칠쯤 발전기를 세워놓는것을 레상사로 여긴 그 오랜 타성으로 하여 그는 이렇듯 마음의 고통을 체험하고있는것이였다.

아바이는 갑판에 오르자 지체없이 전화수한테 가서 전화를 받아들었다.

노래소리가 울리었다.

《아니 이사람이?...》

최영진아바이는 상상을 뒤엎는 노래소리에 낯간 사람처럼 전화를 든채 입술을 벌리었다. 그 노래소리가 어딘가 비장한 선물로 안겨왔다.

반장이 지금 최후를 맞이하고있다는 예감이 뇌리를 스치자 아바이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는 그 예감을 쫓으며 작업정형을 물었다.

《취수구는 막혔다. 보로작업이 남았다.》

전화기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었다.

《그만하고 올라오라.》

《아니다. 내가 마저 끝내겠다.》

아바이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반장, 나 영진이야. 말을 좀 들으라구.》

《아바이가?》

《자넨 이러자구 나한테 속을 털어놓지 않았네그려.》

《아바이, 하루가 급한데... 내 이제 일을 끝내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지요.》

《사람도... 참, 빨리 나와 나하고 교대를 하게. 어서.》

그러나 그 절절한 목소리에 이어 전화기에서는 다시 노래소리가 울리었다.

이윽고 전화기로 강물의 흐름소리인듯 쉼- 하는 소음이 들리더니 잠수공의 웨침인듯한 숨가쁜소리가 들리었다. 그와 함께 노래소리도 푹 잊어버리었다.

아바이는 다급히 호스를 주의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반장동무!》

아바이가 다시 큰소리로 불렀다. 숨을 죽이고 아

바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길마다에 불안감이 비껴들면서 갑판에서는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김기덕의 비장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세차게 울리었다.

《동무들, 취수구는 막히었다. 발전기를 부탁...》

최영진아바이가 호스를 당기며 반장을 애타게 불렀으나 김기덕의 목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다.

×

협의회에 참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최영진아바이의 발걸음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반장이 목숨으로 열어놓은 돌격로를 따라 누가 선참으로 잠수하여야 하겠는가?

그는 작업반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가 꺾어지는 길옆의 한 집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김기덕이네가 사는 집이었다. 자기집으로 오가는 길목이어서 사흘이 멀다하게 제집처럼 드나들던 집이었다. 그런것만큼 안해나 아이들하고도 혈육처럼 가까이 지냈었다.

아바이의 발걸음은 한자리에 얼어붙은채 떨어질 줄 몰랐다. 그대로 내쳐 걸자니 쇠덩이같은 무게가 발목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들어가자니 가슴 허비는 아픔이 앞을 막아나섰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고개를 젓히고 해빛에 번쩍이는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 창문에 금시 해맑은 안해의 모습과 아들의 또릿한 눈동자가 비껴오는듯싶었다. 현판으로 나어진 아이 하나가 다급히 뛰어내려왔다. 김기덕의 아들이었다.

《할아버지-》

《오, 윤혁이구나.》

《왜 거기 서있나요?》

《음, 그저... 어머니가 계시냐?》

아바이는 눈길을 떨구고 묵묵히 윤혁의 어린 어깨를 쓰다듬었다.

윤혁이는 별안간 눈물이 가랑가랑한 얼굴을 아바이의 옷자락에 파묻고 소리없이 어깨를 들먹이었다.

이윽고 아바이는 윤혁의 손목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 현관안으로 들어섰다.

방문을 열자 구들바닥에 한손을 짚고 앉아 무엇인가 읽고있던 김기덕의 안해가 옷깃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치원교양원을 하는 그는 폐절이 밝고 행동거지가 준수하였다.

그는 아바이를 아래목으로 자리를 권하고나서 조심히 두무릎을 꿇고 쫓그리고 앉았다.

책상우에 사진 하나가 틀속에 끼운채 세워져있었다. 결혼사진이었다. 지금까지 사진첩에 붙어있던 사진이었다. 고운 색시의 팔을 끼고 서있는 김기덕의 얼굴은 행복감에 잠겨 미소를 짓고있었다. 그래서 동무들은 그 사진을 보고 아무리 좋아도 결혼사진을 찍는데 체면없이 웃는 사람이 어데 있는가고 놀려주곤하였다. 그럴 때마다 안해는 귀밀을 빨강게 붉히며 남편을 향해 악의없이 눈을 할기었다.

그 사진이 이제는 사진첩이 아니라 책상우에 있

었다. 김기덕의 체취가 사라진 방안에 그의 미소가 상실감을 메우고 다시 방안의 밝은 분위기를 소생시키듯이...

아바이는 눈곱이 화끈거려 사진에서 눈길을 돌리었다.

《그건 무언가?》

《윤혁이 아버지가 쓰던 일기책인데...》

김기덕의 안해는 일기책을 아바이앞으로 밀어놓았다. 푸른색뚜껑을 한 두툼한 책이었다.

아바이는 책가위를 펼치었다. 첫장에는 선으로 정히 둘레를 친 리수복영웅이 남긴 글이 씌여있었다. 영웅이 몇살에 화구를 막았는지 아는가고 항변하던 김기덕의 목소리가 쟁쟁히 고막을 울리었다. 그런 말을 쉽사리 한다고 꾸짖은 그것때문에 아바이의 가슴은 또다시 쓰라리었다.

아바이는 아픈 감회에 잠겨 일기를 더듬으며 책장을 번지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쓴것도 있고 안변청년발전소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사를 보고 쓴것도 있었다.

어떤 날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이 활달한 필체로 웅근 한장을 채우고있었다.

...오늘이 있어 래일이 있는것은 하나의 세월의 법칙이다. 하지만 항일의 혈전에서 쓰러진 투사들과 육탄이 되어 적의 화구를 막은 영웅전사들, 그들은 오늘 영생의 높은 언덕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것인가? 오늘에 산다고 다 래일이 있는것이 아니며 오늘에 죽는다고 다 래일이 없는것은 아니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최영진아바이는 오늘에 사는 의미를 되새기며 마지막대목을 몇번이나 읽어보았다.

김기덕의 평범한 나날에 새겨진 그 신념이 쌓이고 응축되어 오늘의 한순간에 거대한 용수철처럼 튕겨오른것이 아니었던가?

아바이는 일기책을 켜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지막일기장을 번지었다. 어느날에 쓴 일기에 비해 좀 길고 글씨는 획이 바르지 못하였다. 날자를 보니 마지막잠수를 앞두고 쓴것이였다.

오늘 작업대상을 관찰하는 잠수를 하였다. 처음 당하는 일이다보니 몹시 긴장되였다. 안심하고 작업할수 없는 상태였다. 언제속에 매몰된 균형관을 보수하자면 관으로 홀러드는 물을 틀어막아야 한다. 취수구의 압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것이 가능할것인가? 그 생각에 온종일 마음이 번거로왔다. 위험하다고 물러설수도, 한시각도 지체할수도 없다. 빨리 균형관을 보수하고 발전기를 돌리자면 우리가 돌과구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동무들에게는 사실대로 말해줄수가 없었다. 몹시 긴장되어있는 작업

반의 분위기를 늦추기 위하여 점심참에 갑판에서 활동체조를 하였으나 모두 심드렁한채 흥취를 느끼지 못하였다. 혹시 내 얼굴에 근심이 비껴있어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입원중에 있는 최영진아바이와 의논해보자고 찾아갔으나 말을 꺼내자 대뜸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작업이 매우 어렵고 위험을 동반하게 된다는것을 감촉하였는지 아바이는 발전기를 며칠 돌리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완강하게 고집하였다. 해도 자기가 퇴원한후에 하자라는것이였다. 그자리에서 차마 거역할수가 없었다.

하느수없이 아바이앞에서 며칠후에 하겠다고 안심을 시키고 돌아왔다. 내가 아바이에게 거짓말을 한것이 처음인것 같다. 그것도 거짓이라고 할가? ...후에 사죄를 해야겠다...

최영진아바이는 여기에서 저도 모르게 눈을 꼭 감아버리였다. 금시 입이 열리기만 하면 놀리웠던 걱정이 쏟아져나올것만 같아 간신히 입술을 감싸물고 마음을 다잡았다. 자기보다 몇배나 더 아픔을 감수하고있는 김기덕의 안해와 아들이 옆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일기책을 놓고 타는 가슴을 달래이거나 하려는데 담배를 꺼내물고 한껏 연기를 빨아들이였다. 잠수훈련을 시키고 입당을 보증한 자신은 그보다 멀리 떨어져있었다. 자기는 비록 잠수기술을 배워주었지만 김기덕은 평범한 나날에 키워온 오늘에 사는 참의미를 가르쳐준것이였다. 그보다 몇십년을 더 살았지만 자기는 그것을 아직 신념속에 간직하지 못하고있었다. 반장을 인계하자련민의 눈길로 자신의 여생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지나치게 오늘이 우선시되여온 부끄러운 인생이였다. 이제라도 김기덕반장의 숭고한 녀으로 자신의 늙은 심장을 뛰게 할수는 없을것인가?...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잠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잠수배의 갑판우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그가운데 김기덕의 안해와 어린 아들이 있었다. 남편이 작업하는걸 한번도 보지 못한것이 후회된다고 애절하게 말하던 안해는 오늘 잠수복을 입은 아바이의 모습이이라도 보고싶은 마음을 누를길 없어 아들의 손목을 이끌고 여기로 나왔던것이다.

소한날씨치고는 류달리 온화하여 수면에서는 봄날처럼 젖빛안개가 떠돌고있었다.

최영진아바이는 갑판에 나서자 당비서에게 다가서서 말없이 두손을 움켜쥐였다.

《비서동무, 고맙습니다.》

아바이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된 고마움에 당비서에게 사의를 표시했다.

이 길만이 반장의 뒤를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꽃피우는 길이였다.

《아바이, 몸이 일없겠습니까?》

《일없습니다. 반장이 돌파구를 열었으니 이제야 혈한 작업인걸요.》

아바이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혼연히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작업대상이며 아바이의 기능과 건강상태를 깊이 료해하고 취한 조치였으나 당비서는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작업반원들이 잠수복을 들고 아바이한테로 가까이 다가섰다.

그 순간 김기덕의 아들이 최영진아바이의 품에 달려가 안기였다.

아바이는 두팔로 아들을 품어안고 수염이 꺼칠한 얼굴을 아이의 볼에 가져다댔다. 애리에리한 살결이 주는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자 김기덕이로하여 맺혔던 가슴속의 응어리가 다소 풀리는듯싶었다.

김기덕의 안해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굽을 문다지였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 아침 부엌에 있는 자기에게 소리없는 웃음을 남겨둔채 다시 돌아오지 못한 남편의 소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아바이였다. 그것이 고마와 안해는 아바이의 두손을 움켜쥔채 묵묵히 걱정을 삼키였다.

이윽고 잠수작업이 시작되였다.

아바이는 보로를 창검처럼 움켜쥔채 배기변을 조절하면서 물속으로 서서히 내려갔다. 왜 그런지 시창에 안개가 진듯 뿌옇게 흐려지는게 앞을 가늠할수가 없었다. 깊이 침수할수록 한겨울의랭기가 온몸을 한껏 조이였다.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집중하려고 하지만 번거로운 생각은 지긋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기덕이 병원에 찾아와 면도를 해주면서 너스레를 피우던 모습이 언뜻 눈앞에 스치였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였다.

그런가 하면 방금전에 배우에서 안겼던 아이의 귀여운 모습이 거기에 합쳐지고 기덕의 안해의 해맑은 모습이 덧쌓이면서 눈앞에 얼른거려였다.

그는 배우에서 보내는 통화소리에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주위를 살피였다.

드디어 작업지점에 도착하였다. 발전기의 소음과 함께 높은 압으로 취수구로 흘러드는 물소리들이 귀청을 울리였다.

아바이는 균형관취수구가 있는곳으로 한층 접근하여 날카로운 눈초리로 주위를 쏘아보았다.

그것은 이미 숨통이 눌리운채 마지막몸부림을 치면서도 끝까지 발악을 하듯 세차게 물을 삼키고있었다.

배우에서 취수구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



가 내려왔다.

그는 압이 작용하는 방향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금 더 접근하면서 변잡새로 보로를 날새게 틀어막았다. 그러나 보로는 세찬 물살에 실려 균형관안으로 형체도 없이 흘러가버리고말았다. 그렇게 되자 아버이는 하는수없이 뒤로 물러났다.

썩-썩- 물이 흘러드는 요란한 소음이 귀청을 울리면서 뇌리를 휘저었다. 좀더 접근하는수밖에 없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틀어막아야 한다는 비장한 생각이 들자 그는 다시 보로를 틀어잡고 취수구를 노려보았다.

배우에서는 숨막힐듯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전화기에서는 물소리와 발전기의 소음인듯싶은 음향만이 어렴풋이 들려올뿐 잠수공한테서는 아무런 신호소리가 울려오지 않았다. 원래 아버이는 잠수작업을 할 때 쓸데없이 통화를 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애타게 전화수의 얼굴만을 살피었다. 이따금 작업을 하는듯한 소음이 들리었다.

전화수가 인내성을 잃고 독촉신호를 보내자 드디어 안에서 분명치 않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당비서가 전화기옆으로 와서 귀를 기울이었다.

《무슨 말이요?》

전화수는 돌연히 얼굴을 이그러뜨리고 가슴을 들먹이었다.

《비서동지, 아버이가 안전신호로 노래를 부릅니

다. 반장동무가 부르던... 그 노래입니다...》

그러고보니 느리게 한마디씩 울려오는것은 바로 김기덕반장이 마지막으로 부르던 노래가 분명하였다. 오락회때 노래를 부르라면 십리씩 도망가던 아버이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목소리는 자주 끊어지고 몹시 갈리었다.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동지

...

마지막하루를 백년보다 더 빛나게 살고 간 김기덕반장의 송고한 녀이 가슴에 꿰는 최영진아버이가 그 길을 걷고있었다. 반장이 못다 부른 그노래를 이어 부르며...

어느덧 작업반원들이 따라부르고 당비서도 김기덕의 안해도 아이도 눈물을 머금고 터져오르는 감격에 휩싸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한겨울의 호반을 울리며 멀리 퍼져가는 그 노래소리는 작업이 끝났다는 신호가 울리고 최영진아버이가 무사히 갑판에 올라오는 순간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더 높이 터져올랐다. 오늘의 행군길을 신념으로 헤치며 부르던 김기덕의 노래소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삶의 메아리로 되어 저 멀리 맑게 개인 조국의 푸른 하늘로 울려퍼져있다. 호수가의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무성한 수림을 흔들며...

## 상식

#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유선 TV 방송

TV 의 보급률이 더욱 높아지고 시청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선 TV 방송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으며 그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다. 유선 TV 방송기술은 영상신호가 제일 잘 잡히는 지점에 공용안테나를 설치하고 거기로부터 까뻬선을 늘어 수많은 TV 와 연결함으로써 가장 질좋은 TV 화면을 볼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유선 TV 방송기술을 받아들이면 우선 TV 화면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할수있다. 유선 TV 방송에서는 공용안테나를 설치하므로 모든 TV 들에 화면의 질이 똑같이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되지만 무선 TV 방송에서는 모든 TV 들이 안테나를 제가끔 각이한 지점에 설치하는데가 잡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화면의 질이 높지 못하다.

또한 TV 방송통로의 수를 훨씬 늘일수 있다. 유선 TV 방송에서는 통파대역이 넓은 동축까뻬이나 빛섬유까뻬로 신호를 전송하므로 한꺼번에 많은 통

로로 방송할수 있다. 통로의 수를 늘이면 TV 교육통로, 어린이지능교육통로, 체육경기 현시실황중계통로 등 전문통로들을 더 내울수 있으므로 시청자들의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고 TV 방송의 리용률을 훨씬 높일수 있다.

또한 TV 방송의 폭을 넓히고 종합통신봉사망을 쉽게 꾸릴수 있다. 유선 TV 방송망으로는 위성으로 중계하는 TV 방송뿐만아니라 주파수변조소리방송도 할수 있고 상품주문이나 임의의 TV 방송프로그램을 요구할수도 있으며 TV 회의 및 전화도 할수 있다.

이밖에 유선 TV 방송기술을 받아들이면 한개의 공용안테나에 수천대 지어 수만대의 TV 를 연결하므로 개별적으로 쓰는 안테나를 만드는데 드는 많은 자재와 로력이 절약되며 도시미화에도 좋다.

이와 같은 유리성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유선 TV 방송 기술을 받아들이고있다.

## 초석

차승철

온 바다를 뒤엎으며 산악같은 파도를 일으키던 거센 바람은 나홀째되는 날에야 기진한듯 잠잠해졌다. 겨울철물고기기를 몰아온다는 태풍이 물러간 바다는 초록빛주단을 펼쳐놓은듯 잔물결 하나 없이 고요하였다.

룡포수산사업소 기사장 신흥규는 배들을 출항시키느라 분주했다. 부두의 앞뒤로 공튀듯 뛰어다니면서 선장과 어로공들을 다그어대는 그의 입에서는 《빨리빨리! ...》 하는 다급한 재촉소리가 련발되었다. 지금 신흥규의 귀에는 X수역에 두께가 매우 두터운 큰 물고기떼가 나타났다는 수산관리국지휘선의 어황통보만이 증폭된 수신기에서처럼 웅웅거리었다. 출항준비에 바쁜 프랄선, 만능선, 운반선의 마스트며 탐지기안테나가 숲처럼 솟은 부두의 관벽결에서는 연록색차체를 번쩍이는 방송차가 모두를 강성대국건설에로 부르는 격조높은 행진곡을 연신 불어대고있었다. 그 선물에 텅기운듯 어로공도 보장부문 성원들도 활기차게 뛰며 뿔어번지었다.

닷을 감아올리는 권양기의 동음이며 조타실의 지령기소리들이 요란스레 울리는 속에 배들이 앞을 다투어 항구밖으로 쏟아져나갔다. 바다로 나가는 배들을 한참동안 바라고난 신흥규는 종합청사의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서둘러 뛰어들어갔다. 그는 방 한쪽구석의 사품함에서 장화며 비옷을 꺼내여들었다. 수산사업소의 지휘선격인 프랄선 《미산봉》호를 타고 승선지도를 나가자는것이다. 요즘 《미산봉》호에서는 신흥규가 주동이 되어 새로 발명한 어로방법인 《조준예망프랄》을 실험하는중인데 큰 고기떼가 나타난 이 기회에 그 우월성을 본때있게 떨치자는것이였다.

신흥규가 방에 찾아온 참모부서성원들에게 몇가지 지시를 주고 밖에 나가려 할 때였다.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며 지령원이 한 녀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신흥규는 의아한 눈길로 녀인을 마주보았다. 해풍과 간물에 썩들고 고기비린내 풍기는 드세찬 바다사나이들만 사시절 나들던 이 방에 웬 녀인이 이렇게...

저으기 놀라와하는 신흥규에게 지령원이 다가섰다.

《동진선박설계연구소 부소장동지입니다. 기사장동지를 꼭 만나보자고 일부러 먼길을 찾아왔습니다.》

《나를?!》

신흥규는 곳곳했던 상체를 둔각으로 꺾으며 녀인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여보이였다. 그러면서 자기의 바쁜 걸음을 멈춰세운 녀인을 슬며시 훑어보았다. 풍신 좋은 몸에 어울리도록 푼푼스레 지어입은 흑곤색양복의 목깃우로 보기 좋게 굽이쳐내린 뒤통리는 고개를 좀 젓혀보이게 하였고 초점이 똑바른 오목할사한 눈은 상냥하면서도 도고한 인상을 자아냈다. 분명 어떤 사연으로 눈에 익힌 얼굴같은데 그것이 어디서 무슨 일로였는지 선뜻 기억되지 않았다. 동시에 어로생산과는 별로 련관이 없는 선박설계연구소 부소장이 무엇때문에 일부러 자기를 찾아왔을가 하는 의문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녀인은 혼연한 인사치레로 마지 못해 의자를 권하는 신흥규의 낮에 눈길을 멈추었다.

《저를 영영 잊으신가보군요. 제 우월선입니다. 전 이전의 <미산봉>호 선장을 대하자마자 첫눈에 알아보겠는데 거기선...》

퍼그나 서운해하는 녀인의 그 한마디 말에 신흥규는 눈이 번쩍 띄었다. 머리속에 끼였던 혼미한 안개가 걷히며 꽤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방금 있는 일인듯 생생한 추억을 선명하니 드러냈다.

우월선! 바로 이 녀인은 26년전에 프랄선 《미산봉》호를, 이곳 룡포수산사업소의 대들보격이며 신흥규의 준마와 같은 《미산봉》호를 설계하고 무은 선박설계가였다.

...강철부재를 물고 팔을 분주히 휘둘러대는 기중기, 용을 쓰며 으르렁대는 권양기와 무수히 병긋거리는 용접불꽃, 선체건조가 마감고비에 이른 《미산봉》호의 배밀판에 교예를 하듯 묘하게 붙어서 용접불꽃을 날리는 조선공들과 섞여돌아가는 한 젊은 녀인이 있었다. 처녀선박설계가 우월선이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우월선은 이곳 조선소에 속한 선박설계연구소에 배치되어오자바람으로 견고하면서도 실용성있는 새형의 화물선을 설계해내어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뒤이어 수산업을 더욱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아래층, 웃층 어업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만능프랄선의 형태도안을 내놓았다.

《화물선이나 어선이나 선체공학상의 원리는 같다. 기와집을 짓는 대목이면 궁전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힘을 내어 설계를 완성하라.》

연구소집단에서는 월선이를 적극 고무해주었다.

처녀설계가 재능을 인정한 지도일꾼들과 전문가들이 만능프랄선의 과제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초기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 등의 진행을 협력해주었다. 드디어 총조립도가 완성되자 그의 첫 시제품이라 할수 있는 《미산봉》호 건조에 착수하였다. 월선은 선체공학상의 요구로나 실용적으로나 조금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어선을 최상의 수준에서 무어내리라는 열망으로 배무이장에 노상 나와 살았다.

《100일전투》가 세차게 벌어진 때였다. 《100일전투》기간에 《미산봉》호를 진수시키려 뚫어번지는 조선공들의 충천한 기세는 월선으로 하여금 자기가 못는 배에 대한 더욱 공고한 신심을 갖게 하며 보다 높은 과학의 영역으로 돌진해가려는 리념을 현실적인것으로 확신케 하였다.

월선은 지구를 움직일 지점을 찾기라도 한듯 힘에 솟아 일에 몰두하였다.

그무렵 신흥규는 월선이네 조선소에 가있었다. 월선은 배무이장에 밤낮 불박혀 조선공들의 작업을 직심스럽게 돕는 신흥규에게 물었다.

《수산사업소 선장동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배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설계가동무의 창조물인 이 <미산봉>호가 벌써 우리에게 배정되었단 말입니다. 바다사람 누구나가 군침을 삼키며 욕심내는 최신만능프랄선을 명칭하니 앓아 기다릴수 있나요. 자칫 어물거리다간 남에게 빼울수 있으니깐요.》

서글서글한 신흥규의 실토에 월선은 방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전공은 달라도 둘다 같은무렵에 대학을 나온 공통성으로 하여 무뎠없이 소통하며 가까이 지냈다.

월선은 처음 대할 때에는 꽤나 도고하고 쌀쌀한 것 같았으나 일단 서로간 마음이 통하고보니 제심중을 에둘림없이 곧잘 터놓곤하였으며 그만큼 남의 진속을 예민하게 알아맞추기도 하였다.

월선은 수산대학을 갓 졸업한 전도양양한 젊은 어로기사이며 선장인 신흥규가 바다를 종래의 관념과는 다른 자기다운 감각과 의지로 대하며 새롭게 개척리용하려는 열망에 차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였다.

《...저도 배수리를 하러 온 룡포수산사업소 사람들에게서 선장동무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학강당에서 바다로 진출하자바람으로 많은 일을 했더군요. 울봄에는 전과 다른 특색있는 탐색방법으로 깊은 바다에서 새 어장들을 찾아냈다면요? 성공의 중요한 비결은 목적의 확고부동성에 있다는데 앞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두리라 믿어요.》

어느날 저녁 하루일을 끝낸 신흥규와 우월선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합숙으로 향했다. 배무이장에서 합숙까지 가는 구내길은 멀지 않았으나 도중에 만난 많은 사람들이 월선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무엇을 묻기도 하고 의논을 하기도 하는 서슬에 극상 10분이면 갈수 있는 길이 1시간이나 실히 걸리었다. 그 짧은 길에서 월선이가 마주한 술한 사람들속에는 엄격한 얼굴의 조선소 지배인도 머리흰 로설계자도 있었다.

신흥규는 월선을 부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존대속에 산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학계의 원로들인 박사과 교수들, 권위있는 선박설계가들의 주목속에 있고 자기가 해당 부문에 당당하니 기여할수 있는 존재로 되었다는것이상 더 높은 자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어린 그 말속에는 월선이가 오늘의 이 모습대로 20대청춘기에 획득한 영예로운 이 위치를 한생 시들지 않게 빛내여가기 바라는 뜻이 어려있기도 하였다.

하나 우월선은 먼구스러이 낯을 붉히었다.

《저는 아직 그런 자격을 지니지 못했어요. 다만 제가 한 별치 않은 자그마한 일을 것처럼 중히 여겨주는 마음들에서 앞날의 보다 큰 의무를 느낄뿐이에요.》

그들은 합숙앞의 바다가를 함께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뿐이 아닌 먼 앞날에 대해서도...

그날 이야기하던 앞날인 오늘, 우월선이가 뜻밖에도 신흥규앞에 불쑥 나타난것이다.

우월선은 찾아온 용건을 꺼내기 서둘지 않고 깊은 정회가 어린 눈으로 신흥규를 쳐다보았다.

《늦지 않았구만요. 팔팔하던 젊은 때의 모습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월선의 말은 옳았다. 신흥규는 선셋나이에 이르렀지만 혈색좋은 불그레한 불편과 이마는 주름살 하나 보이지 않고 평평하였으며 술많은 머리칼은 흰오리 하나 없이 까만 윤기가 돌았다.

그에 비하면 우월선은 퍼그나 늙어보이었다.

수밀도처럼 희맑은 살결에 노을빛 홍조가 어리였던 처녀때의 갈솔한 얼굴은 간곳없이 스러지고 몸이 나며 둥그스름해진 얼굴의 불편과 턱은 긴장이 풀린듯 주글주글했다. 다만 영채를 뿜는 오목할사한 눈만이 젊은 때의 정기를 그대로 보존하고있었다.

오랜 세월 헤어져있다가 뜻밖에 만난 사람들사이에 있을수 있는 몇마디 회포를 성급하니 나누고났을 때 월선은 정색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모두가 한창 바빠 뛰는 대목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건 좀 류다른 동기에서입니다.》

월선은 곧은 코마루의 둥그스럼한 볼의 룬판이 더욱 뚜렷해진 얼굴로 방바닥의 어느 한 점에 눈길을 떨구었다.

…섬광같이 번쩍이는 《100일전투》의 나날은 흘러 계획기일을 앞당겨 건조를 끝낸 《미산봉》 호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자랑을 싣고 바다에 띄워졌다.

룡포수산업소의 신흥규네가 선참 접수해간 《미산봉》 호가 산업적가치를 여실히 나타내자 편이 수습척의 만능프랄선이 무어져 전국각지에 퍼졌다. 그때로부터 스물다섯해만 세월이 지나 월선이 선박설계연구소 부소장으로 사업하는 얼마전의 어느날이었다.

월선이에 연구소가 속해있는 조선소에 어선 한척이 갑작수리를 하러 들어왔다. 배밑창에 구멍이 뚫려 절반가량 침수된 배였다.

《…물고기잡이에만 눈이 팔려 물밑에 숨겨진 압초를 가려보지 못했습니다. 수리비를 변상하던 법적처벌을 받던 제가 다 책임지겠으니 배부터 살구어주시오.》

선장은 울퉁불퉁하니 생김 모양이 감때사나와보이는 사나이였으나 죽을 죄를 지은듯 머리를 낮추숙이고 사정하였다.

월선은 상가대에 끌어올린 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무은지 20년이 넘었다는 그 배는 월선이 설계한 만능프랄선과는 구조가 다른 중형프랄선이었는 데 룬골밀판의 용접부위가 한뼉가량 벌어져있었다. 압초에 부딪친 자리였다. 천이나 만번중에 한번 있으나마나한 그 사고는 월선의 가슴을 놀래우며 오래전 《미산봉》 호를 못던 때를 랭정하니 돌아켜보게 하였다.

사실 월선은 《미산봉》 호를 건조할 때까지만 룬골의 일반적중요성과 안전강도만을 념두에 두었을 뿐 어떤 압초에 부딪쳐도 끄떡없어야 한다는 높은 요구까지는 제기하지 못하였었다.

건조당시의 매 세부들까지도 꼼꼼히 되새겨보느라니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생을 선박설계가로 일해온 아버지는 대학졸업을 앞둔 딸을 앞에 불러앉히고 말했다.

《너의 어머니는 선박설계가가 너자직업으로는 함당치 않다고 하지만 과학의 세계에서 남자, 너자를 가리겠느냐. 내가 못다한 일을 네가 해야 한다. 그러한 너인만큼 꼭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다.

얼마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연구소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아직까지 전해내려오는 일반개념의 견지에서 보면 선박이란 상업적리운을 목적

으로 손님과 화물을 실어나르거나 물고기잡이를 하며 물우에 떠다니는 구조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성리론에서 벗어나 우리 식 배를 많이 무어내야 한다고, 우리 식 배란 오늘의 우리 실정에서 필요할뿐더러 모든것이 수시로 발전하는 먼 앞날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고 안전성을 잃지 않은 배라는것이며 거기에서도 각별히 중요한것은 항구적인 안전성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월선아, 배를 한척 무어도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뜻을 잊지 말아야한다.》

아버지의 당부이자 월선의 리념이라 할수 있는 이 요구에 비추어볼 때 《미산봉》 호는 어딘가 미흡한 구석을 지니고있는것 같았다. 계획했던 기일을 훨씬 앞당겨 설계를 완성하고 건조를 끝낸 놀라운 성과속에는 어느 누구도 채 가려보지 못한 흠집이 숨어있는것 같았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순간, 월선의 머리를 예리하게 때리며 떠오르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

당시에는 하지 않게 방임해버렸던 그 일이 모를 세우고 살아오르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미산봉》 호가 뜻밖의 변고를 당할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미산봉》 호를 찾아가 깨름한 그 부위를 살펴보고 싶었다. 하나 출창 바다에 떠서 돌아다닐 그 배를 어떻게 만날수 있단 말인가.

월선은 갑작수리를 하러 온 배가 수리를 끝내고 돌아간 다음에도 남모르는 불안과 위구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렇게 여러날 모대기던 끝에 《미산봉》 호를 찾아 떠나온것이였다.

신흥규는 우월선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강구어 들었다. 그의 말이 어찌도 진지하고 심각하였던지 신흥규는 방금전까지 바다에 나가려 급급해하던것과 달리 이제부터 자기가 헐치 않은 걸음을 한 우월선이를 위해 해야 할바를 찾게 하였다. 신흥규는 전화로 《미산봉》 호 선장과 선박지도원이 찾아 속히 오라고 했다.

잠시후 《미산봉》 호 선장 손정갑이와 선박지도원이 방에 들어왔다. 선박지도원은 신흥규가 시키는대로 옆구리에 끼고 들어온 서류철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미산봉》 호의 선박등록증과 경력카드, 수리견적서들이였다.

신흥규는 손정갑에게 우월선이가 찾아온 목적을 간단히 말해주고나서 서류철에서 선박등록증을 꺼내였다.

...

배 이름. 《미산봉》 호. 구조형식. 만능프랄선 건조날자. 주체6X(197X)년 11월 X일  
건조한곳. 동진조선소  
선적항. 룬포수산업소

...

다음장에는 선장등록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미산봉》호를 처음 접수한 초대선장인 신흥규로부터 이 배의 세번째 선장인 손정갑의 이름이 타자로 또렷하니 찍혀있었다. 배수리나 이동작업을 갈 때마다 늘 갖고다녔지만 펼쳐들 때마다 선장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거듭 엄숙히 느끼게 하는 증서였다.

신흥규는 간간한 눈길로 경력카드와 수리견적서의 내용들을 내려훑고나서 손정갑에게도 보라고 넘겨주었다.

손정갑이가 문서를 다 보고나자 우월선은 들고온 가방에서 한장의 신문을 꺼내 펼쳐놓았다. 보풀이인 신문의 3면 웃단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 모두의 눈에 비쳐들었다.

《강철의 의지를 지닌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요즘 《조준예방법》을 발명실현한 《미산봉》호를 소개한 기사의 복판에는 기사장 신흥규를 위시한 선원들의 사진이 큼직하니 받쳐져있었다. 신흥규의 눈에 익은 사진이었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자기가 젊어서 무슨 배가 오늘까지도 싱싱하니 살아 빛을 낸다는것이 눈물나도록 반가웠어요. 그래서 신문에 난 얼굴들을 거듭 여겨보았답니다. 거의 나가 팔팔한 청년들이더군요.》

애뜻한 정을 담아 울리는 월선의 말을 신흥규는 패히 긍정했다.

《백프로 청년들입니다. <미산봉>호 선원들의 평균년령은 올해 스물여섯살이니까요. 대부분 기사, 준기사들인데 탐구심과 의욕이 보통아니지요. 머지않은 앞날에 모두가 일등급의 어로전문가로 될겁니다.》

신흥규의 말에 귀를 기울이었던 월선은 한창때의 혈기가 발산되는 정갑의 다홍빛얼굴을 정차게 바라보다가 짐짓 쓸쓸한 어조로 뇌이였다.

《하지만 배의 주인들과는 달리 <미산봉>호는 나이가 퍼그나 들었지요. 바로 이 달이 무슨지 스물다섯해째 되는 달이니까 로년고비에 이른셈입니다.》

월선은 중요대목과 전문용어들에 밑줄을 그은 기사를 열추 일별하고나서 이었다.

《두루 알아보니 <조준예방법>이란 깊은 바다의 밑바닥으로부터 걸층의 고기떼까지 조준하여 그물에 몰아넣는 새 어로법이더군요. 작업할 때 바깥힘으로 인한 응력이 룡골에 집중적으로 가해진다는것도 알았어요. 솔직한 말로 건조당시에 보다 높은 완벽한 강도를 보장한것 같지 못한 룡골의 일부 부위가 <조준예망>시의 과부하를 계속 견디어내겠는지

의심이 갑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약했던곳에 병이 생겨 신고한다는데 <미산봉>호에서 제일 약한데가 거기가 아닌가 걱정되여요.》

검손하면서도 론거가 명확한 월선의 매 말마디에서는 철회하지 않을 녀려가 감득되였다.

신흥규는 월선의 내심을 여실히 느끼자 웅글게 추스린 목소리로 정갑에게 물었다.

《이젠 부소장동무가 왜 찾아왔겠는지 선장동무도 알았을테니 터놓고 의사를 나눕시다. 그래 룡골에 티눈만치라도 미타히 여겨지는데가 없소?》

신흥규는 이런 때엔 선장이 똑바른 립장을 취해야 한다는듯 손정갑이를 면바로 직시하였다.

정갑은 은근하면서도 날을 세운 신흥규의 암시에 자신을 가다듬으며 《미산봉》호의 수리견적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 대수리와 중수리 때의 기록들을 살살이 훑어보니 배의 적지 않은 부분이 보강갱신되었지만 월선이가 녀려하는 룡골만은 처음 무은 때의 그대로였다. 수리내용 말고도 신흥규와 손정갑이가 기억을 끄끔히 더듬으며 엄밀히 따져보았으나 배의 룡골에는 이상이 있는것 같지 않았다.

손정갑은 저들을 위해 쉽지 않은 걸음을 한 월선에게 좋은 대답을 주게 된것이 기뻐 씨원스럽게 말했다.

《우리 배 룡골은 끄떡없이 견고합니다. 견적서에 밝혀있는것처럼 25년간 단 한번의 수리도 없이 견디어냈다는건 아무런 기술상 결함도 없다는걸 확증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일없을테니 마음 폭놓으십시오.》

손정갑의 확언이 큰 효과를 낸듯 월선의 얼굴엔 한가닥 회심의 미소가 비끼였다.

모름지기 우월선은 자기가 젊어서 남긴 제판의 빈구석이 걱정되어 부러 먼길을 찾아오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배에서 아무런 흠집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을것이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것으로하여 지금 안도의 숨을 내쉬고있으리라.

신흥규는 결파라 기꺼운 표정을 짓긴 하였으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뜻밖에 월선의 출현에서 경이롭고 특이한 생활의 일단을 체험하게 되리라던 기대에 비할 때 월선이 역시 나이가 드니 실없는 걱정이 많은 보통 중년녀인에 불과하다는 서운함이 일었다.

이때 복도를 구르는 다급한 발자국소리에 이어 《미산봉》호 부선장이 방에 성큼 들어섰다.

《알섬앞바다에 큰 고기떼가 들어왔답니다.》

신흥규곁에 앉아있던 손정갑은 몸을 후닥닥 일으키였다.

《알섬수역에? 그게 사실이요?》

《관리국 탐색선에서 방금 날린 무선통보입니다. 우리 <조준예방법>의 먹음직한 과녁이 나타나셨구 만요. 빨리 출항합시다.》

부선장은 결볼 겨를없이 정갑의 팔을 잡아끌었다.

《왜 이렇게 덤벼치나. 영? 여기엔 고기떼도 가려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들이 앉아있는줄 아오? 가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구.》

부선장은 위압적인 기사장의 말에서 심각한 방안 공기를 느낀듯 고개를 기웃거리며 나가버리었다. 손정갑이는 몹시 등달아하는 빛이었다.

신홍규는 부선장의 《불법침입》이 미안한 모양 어쭙은 표정으로 월선에게 청했다.

《어서 얘기들 계속합시다.》

월선은 머리를 가볍게 숙여보이기는 했으나 다음 말을 선뜻 잊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가늘게 좁혀진 눈으로 손정갑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선장동무는 물고기떼가 나타났다는 바다를 앞에 두고 물에 머물러있는 이 시간이 가장 요긴한 때를 놓치게 하는상싶어 속이 달아오르겠지요?》

신홍규는 정갑이를 대변하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거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짧은 시절이 한 때인것처럼 유리한 어황이 조성된 성어기도 한때랍니다. 그때를 놓치면 다지요.》

《그러니 선장동무를 더 붙들고 앉았을수가 없군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구요.》

월선은 당장 자리를 일듯 신문을 접어 가방에 넣으며 신홍규에게 청했다.

《저도 선장동무를 따라 바다에 나가도록 해주세요. 기왕 여기까지 왔던 길에 제손으로 무은 배를 한번 타보고싶어 그러합니다.》

신홍규는 월선에게 대답은 주지 않고 정갑이를 던지시 바라보았다. 배에 사람을 태우고말고 하는 건 선장의 권한에 속한 일이라는 빛이다. 동시에 신홍규는 한낱 청원이라기보다 간절한 요구와 고집이 어린 월선의 얼굴을 스쳐보았다. 순간 월선이 굳이 배를 타고 나가자는 목적은 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할 때 선체에 미치는 중력과 진동을 통하여 룡골의 안전상태를 가늠하자는것임을 알았다.

신홍규는 저도 모르게 이마살이 찌프러졌다.

선체구조확상의 요구를 철두철미 준수하며 무어졌을 《미산봉》호가 제 수명까지 견재할것은 명백한데도 지나친 녀려를 앞세우는것이 너무 고집스럽고 부지런스러워보이였다. 결에 있는 손정갑이도 신홍규와 동감인듯 월선을 향해 툭하게 말했다.

《아마 룡골이 의연 안심치 않아 그러시는것 같은데 더 걱정안해도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미산봉>호 선원들은 룡골뿐만닌 배의 모든 개소들에

서 어떤 불안과 위험도 느껴보지 못했구 여러가지 생활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배를 물의 공장이나 다름없는 안전한 일터로 여기고있습니다. 하지만 정 바라신다면 배를 타고 나가는데 반대없습니다.》

《고마와요.》

얼마후 우월선은 신홍규와 함께 《미산봉》호의 배머리에 서있었다. 손정갑이가 어구준비직장에 잠시 들렀다오겠다기에 그를 기다리였다. 뒤늦게 출항준비를 한 몇척의 건착선이 부두를 떠나 방파제를 벗어나고있었다. 그 배들에서 성급하니 내뿜는 청회색연기가 신기루같은 미묘한 구름층을 이루었다. 기관을 시동한채 부두의 관벽에 선체를 비비적대는 《미산봉》호는 마치도 말뚝에 매인 준마가 비호같이 내달릴 차비로 땅을 후벼파며 발버둥치는것 같았다. 하나 신홍규는 무엇인가 깊이 바채이는듯 배에 오를념을 앓고 서성거리였다.

우월선의 청대로 그를 바다에 나가게 하는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온당치 못한 처사같았다. 《미산봉》호의 안전을 녀려하여 큰마음 먹고 먼길을 온 선박설계가의 성의로 보나 선박운영상의 원칙으로 보나 바다에 나가는것을 잠시 미루더라도 배를 물에 끌어올려 월선이 불안전스러워하는 부분을 씨원히 살펴보게 하는게 옳지 않을까. 그러면 코앞에 나타난 고기떼는?

월선은 신홍규의 착잡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항 특유의 이채로운 정경을 두루 바라보았다. 그러던 월선은 가까이에 있는 물탑결에 다가섰다. 때때로 민듯 매끈하게 다듬은 현무암장석으로 기초를 쌓고 그우에 네모반듯하니 세운 콩크리트구조물을 더듬어보던 월선은 신홍규에게 낯을 돌리였다.

《세운지 오십년이 넘었는데두 생생한 그대로구 만요.》

월선이 손짓하는 벽체 한옆에는 획이 고르지 못한 서툰 필체로 《1948년 9월 X 일》이라고 새겨져있었다.

신홍규는 늘썩 지나다니면서도 무심히 여기던 물탑이 월선의 말을 듣고나니 이전과 다르게 보이였다.

자를 대고 그은것처럼 반듯한 벽체는 반세기세월의 해별과 비바람에 누르스름해지기는 하였으나 실금 한오리 가지 앓고 바위돌처럼 단단했다. 월선이는 혼자소리처럼 조용하니 뇌이였다.

《새 민주조선의 밝은 래일을 바라보며 48년도 첫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느라 들끓던 해방후의 민주건설시기가 보이는것 같아요. 아마 이 물탑을 세운분들은 이젠 퍼그나 년로했거나 세상을 떠났겠지요. 한데도 그들이 지금도 그날의 모습대로 어디선가

새로운 구조물을 세우고있는것처럼 가까이 느껴지는구만요.》

유정스레 올리는 월선의 말마디들은 신흥규로 하여금 오래전에 돌아간 아버지의 모습이 비쳐들게 하였다. 한생을 미장공으로 일한 아버지는 신흥규의 고향인 이 룡포거리의 매 건물과 구조물들에는 자기 손이 안간데 없다는 공지를 지니고있었다. 소문 한번 내기는 고사하고 어머니마저 인정하지 않던 그의 숨은 공적을 월선이만은 속속들이 알고있는상싶어 따스한 친숙감이 일었다.

(내가 20대 청년선장으로 바다라는 활무대에서 첫걸음을 땔 때 《미산봉》 호를 무은 우월선이, 우리 아버지가 굶은날이나 마른날이나 미장칼을 쥐고 아침일찍 집을 나서던 그무렵에 저 녀인은 밤낮없이 도면을 마주하고 많은 배를 건조해냈다. 하나 우리는 더운 방에서 가정의 안락에 심취한 집주인이 그 집을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 생각못하듯이 제가 허허바다위에 타고다니는 배가 누구 손에, 어떤 수고를 걸쳐 무어졌는지 깊이 알지못했다. 과연 저 녀인은 누구 한사람 기억에 새겨두지도 않고 헤아려 반겨줄 사람도 없는 이 길을 무엇을 바라고 제 스스로 왔겠는가.)

신흥규가 월선을 두고 깊은 생각을 쫓고있을 때 손정갑이가 나타났다.

신흥규는 배에 급급하니 오르려는 손정갑이를 멈춰세웠다. 그리고는 그닥 즐기지도 않는 담배를 붙여물었다.

《바다에 나가기보다 우선 신중히 의논을 해야겠소.》

신흥규는 누구에게라 없이 말하고는 《미산봉》 호를 쓰다듬듯 바라보았다. 이윽고 절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비벼끄고는 역양이 무딘 석직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미산봉>호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내가 스물여덟살나던 해에 이 배의 첫 선장으로서 동진조선소에 가서 직접 접수해왔으니까요. 처음 받아온 70년대에는 이 배를 본보기로 수산사업소의 모든 채래식저예망선들을 현대적인 프랄선으로 개조하였구 <80년대속도>가 창조될 때에는 이배를 선두로 중층프랄을 전면적으로 도입실현하였습니다. 최근 없는것, 부족한것이 많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이 <미산봉>호는 자기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만년을 이겨내며 어로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였지요.》

신흥규의 어조는 깊은 감회에 젖어있었다. 그것은 한 어선의 경력만이 아니라 《미산봉》 호와 더불어 선장으로부터 깊은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수완있는 지도일꾼으로 자라난 신흥규의 성장과정이었

었다. 어찌 신흥규뿐이라. 《미산봉》 호를 타던 많은 청년들이 쟁쟁한 선장으로, 관록있는 어로전문가로 사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신흥규는 월선을 향해 마디진 어조로 계속했다.

《앞날이 창창한 그 <미산봉>호출신들을 대할 때면 이젠 이 신흥규는 늙었구나 하는 서글픔에 잠기면서도 <미산봉>호가 나이들었다고 생각해본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쉬임없이 내물고 부려먹을줄만 알았지 살뜰히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신흥규는 제 말을 사려깊게 응수하는 월선에게 용단이 어린 어조로 물었다.

《기왕 론의에 오른바치고는 <미산봉>호를 물에 끌어올려 미타한데를 씨원히 살펴보는게 어떻가요?》

우월선은 뜻밖인 신흥규의 제의에 놀란듯 눈섭을 치켜올리었다. 더구나 손정갑이는 정수리를 얻어맞은듯 몸을 흠칫하며 눈을 홑떴다. 정갑이는 신흥규에게 바투 마주서며 볼부는 소리를 했다.

《설계가동지도 이젠 우리 배의 안전성을 리해한 것 같은데 멀쩡한 배를 끌어올리다니요.》

《멀쩡한 배일수가 없소. 설계가가 미심쩍게 여기는 이상 리해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안전을 확정하도록 해야 하요.》

신흥규는 손정갑이를 엄하게 흘겨보고나서 월선에게 다시 물었다.

《배밀판의 룡골에 흠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슨 분명한 근거라도 있는가요?》

신흥규의 표정은 온화했으나 따져묻는 말투였다. 손정갑은 한가닥 기대를 품고 월선을 지켜보았다. 설계자인 우월선에게서 어떤 대답이 나오는데 따라 《미산봉》 호가 곧 바다로 나가는가 아니면 물에 오르는가 하는것이 결정되겠기때문이다.

월선은 입을 꼭 다물고 신흥규와 손정갑의 긴장한 시선을 얼마동안 묵묵히 받았다. 이윽하여 월선은 좀 파릿해진 낯으로 입을 뻗었다.

《흠집이 있을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말할수 없어요. 배를 끌어올리겠다니 대상을 명확히 구명한 다음 죄다 얘기해드리겠어요.》

월선의 어조가 어찌나 진중하였던지 신흥규는 《미산봉》 호의 선체검사가 순전히 배의 안전성을 위한것만이 아닌 어떤 운명적인 문제를 배태한 중대사처럼 마음이 엄숙해졌다. 신흥규는 우월선과 손정갑이를 번갈아보며 확정적으로 말했다.

《물고기를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로공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상 더 크게 없지요. 설계가동무도 애당초 의도했을 일이니만큼 반대없을줄 압니다.》

신흥규는 우월선의 동의를 얻자 배수리장에 전화

를 걸어 《미산봉》 호를 빨리 배울림대에 끌어올리라고 지시하였다.

×

배울림대에 끌어올린 《미산봉》 호는 바다에 떠 있을 때보다 갑절이나 더 웅장해보였다. 진찰침대에 누운 환자격인 《미산봉》 호의 주위에는 선원들이 모여 웅성이었다. 방금 선체감정을 시작하려는 참이다.

배밀판에 두터이 낀 물때와 녹을 긁어내며 준비작업을 서두르는 배수리공들결에는 언제 나타났는지 선박견적원과 안전기사, 해사감독처 감독원들이 지켜서있었다.

우월선이가 스스로의 량심으로 발기한 일이 뜻밖에도 법적절차를 따르는 정식 선체검사로 전환된것이다.

감독원들과 좀 떨어진곳에 홀로 서있는 신흥규에게 손정갑이가 다가와 뿌루퉁한 얼굴로 두덜거리었다.

《일이 무사치 못할것 같군요. 저 사람들은 배의 불안전개소를 집어내는데 능수지요. 그냥 뒤도 없고없겠는데 제스스로 문제시하며 복잡하게 만드니 이거라구야 참.》

신흥규는 눈총을 쏘아 손정갑의 푸념을 눌러버린 것 했으나 마음은 안심치 않았다.

만약 월선이가 무슨 《미산봉》 호 선체에서 어떤 흠집이 나타난다면 더우기 그것이 오랜 세월 눈에 띄우지 않게 교묘히 미봉되었던 극히 위태로운 흠집이라고 판명되면 감독원들은 그와 연관된 구조요소들의 불안전성과 세기보장조건을 력설하며 당장 수리에 넣으라 할것이다. 그 부분이 선체의 등뼈격인 룡골의 경우엔 더 날을 세울것이며 자칫하면 대수리나 복구수리에 걸릴수도 있다. 정녕 그렇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에 땀이 흘렀다.

하나 우월선은 이렇게 되리라는걸 이미 예측한듯 모든것을 각오한 초연한 빛이었다.

어느사이에 작업복을 갈아입은 월선은 배수리공들과 함께 세척용분사기로 배밀판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분사구에서 세차게 내뿜는 모래알들이 선체의 녹과 때를 말끔히 벗겨내면서 가로세로 뻗은 곧은 용접선을 깨끗이 드러냈다. 고기비늘같은 규칙적인 문양을 이룬 용접자리들은 방금 때불인것처럼 광택을 냈으나 월선은 담고 또 닦아냈다.

신흥규는 모래알들에 굽히여 온기를 뿜는 용접자리를 쓸어보다가 월선에게 다시 눈이 끌리었다. 몸에 꼭 맞는 작업복을 입어서인지 전보다 갱짱해보이였으나 분사기를 능숙히 다루는 동작은 민활하였다. 배의 몸체를 쓰다듬듯하는 찬찬스러운 손놀림에서는 오래동안 헤어졌던 살붙이를 만난것 같은

에바른 기쁨과 멀리 흘러가버린 처녀설계가시절에 대한 향수가 어려있는상싶었다.

신흥규는 그렇듯 뜨거운 월선의 심경이 다년간 자기 몸에 익혀지고 미세한 진동이나 냄새 하나에서도 제 집과 같은 정다움이 느껴지는 《미산봉》 호와 불가분리로 잇닿은것이라 생각하니 월선이가 이제부터 당하게 될 매사가 제일처럼 여겨지는것이였다.

신흥규는 월선이결으로 가서 일을 거들어주었다.

세척작업이 끝나자 드디어 선체감정이 시작되였다. 선박견적원이 조종하는 감마선탐지기가 룡골부분의 용접선을 따라가며 투시하였다.

월선이도 신흥규도 그리고 손정갑의 결에 몰켜선 《미산봉》 호 선원들도 숨을 죽이고 감마선탐지기의 움직임을 긴장하니 지켜보았다.

지금 감마선탐지기에서 방출되는 능력높은 전자기파는 물체속의 상태를 날같이 꿰뚫어보는 성능대로 오래전에 월선이가 무슨 배의 내속깊이까지 예리하게 비쳐보고있을것이다.

사분의 일세기동안 바다물에 잠겨 세찬 파도에 부대끼며 허다한 충격과 진동을 받아온 룡골에 아무런 흠도 없을거라고 어찌 장담하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신흥규는 자칫하다간 배수리에 걸려 《미산봉》 호가 한동안 물고기를 못잡게 되리라는 조바심보다 여직토록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을 받아왔을 월선의 명예가 어찌되랴하는데 마음이 쓰이였다. 지난날은 어찌되었던 과학적으로 구명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고 예리할것이 아닌가.

감마선투시가 끝나자 탐지기에서 뽑아낸 기록지를 놓고 협의감정이 진행되였다. 협의에는 감독성원들과 우월선, 신흥규 그리고 손정갑선장이 참석하였다.

신흥규에게 있어 기록지를 세세히 관찰하는 시간은 더없이 지루하고 초조하였다.

이윽고 감독원은 거듭 살피던 기록지에서 눈을 떼고 직업적인 랭랭한 어조로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룡골전체의 용접자리엔 아무런 흠도 없습시다.》

신흥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깨에 걸쳤던 무거운 연추를 벗어버린듯 몸이 막 날것 같았다. 하나 기뻐하기는 일렀다. 좌중을 둘러보던 감독원의 눈길에 월선에게 머물렀다.

《하지만 단 한곳, 룡골의 선미쪽 곡선부위를 댄 자리에 두개의 기포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완벽한 용접강도에 비할 때 극히 보잘것없는것이긴 하지만...》



감독원의 공식적발언치고는 꽤나 너그러운 어조였으나 월선의 눈매는 긴장해졌다. 희맑은 이마에 파리무레한 동맥이 살아오르며 낫색이 창백해졌다. 어쩌서일가? 길고긴 용접자리에서 나타난 기포 하나가 뭐라고 온전한 변론 한마디 못하고 저다지도 흥분하는것일가?

신홍규가 속달아하는동안 말 한마디 없던 월선은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다.

《그 기포는 결코 보잘것없는게 아닙니다.》

월선은 풀기없이 허두를 떼고나서 《미산봉》호 건조당시의 사실을 세세히 이야기하였다.

《<미산봉>호 건조가 완성단계에 이르자 나의 온정신은 어떻게 하나 배를<100일전투>기간에 물에 띄워야 한다는 욕망에 쏠려있었어요.

짧은 선박설계가로서의 명예와 재능을 실물로써 떨치자는것이였습니다. 전투날자는 며칠 안남았지 미진된 공정은 아직 적지 않지 초조해난 저는 조선공들의 일손을 도우며 발판을 잠시도 내리지 않고 식사도 날라주는걸 했답니다. 그런데 룡골용접을 거의 마감할 무렵에 의외로 용접봉이 떨어졌어요. 잦은 시중걸음이 발등을 밟는다구 용접봉을 부지런히 섬겨주던 보조공이 고강도용접봉이 아닌 일반용접봉을 착각려 갖다놓았거든요. 보조공이 창고에 고강도용접봉을 가지러간 몇분동안이 몇시간맛잡이로 길게 느껴졌어요. 룡골조립을 한시바삐 끝내야 기관조립이 편이어 뒤따르겠는데 몇가락의 용접봉에 걸려 긴박하게 진행되던 작업이 중단되었거든요. 작업지휘를 하던 선체직장장도 더는 조바심을 이겨낼수 없었던지 일반용접봉으로라도 나머지부분을 제껴 때치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나는 설계가로서 웅당 그것을 막고 설계의 요구대로 고강도용접을 시켜야 했을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자리가 룡골의 중심부가 아닌 극히 짧은 부차적개소라는데서 위안을 가지며 못본체 넘겨버렸어요. 바로 그곳이 기포가 생긴 곡선부분입니다.》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리끌만한 숨김도 없이 자기를 솔직히 터놓는 월선은 제 말에 어떤 반향이 일어나는가 하는것에는 개의치 않는듯 까딱 움직이지 않는 시선을 책상우의 기록지에 멈추고있었다.

신홍규는 숨막히는 침묵의 압박을 더는 견디여낼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젠 감정결과가 나온이상 지나간 일을 더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룡골 곡선부분의 기포는 다음번 수리할 때에 든든히 메꾸어때면 됩니다.》

신홍규를 고맙게 여기는상심은 월선의 얼굴엔 한가닥 우수의 그림자가 비끼었다.

《물론 다음번에 메꾸어도 별일 없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얼마전이었어요. 예전부터 함께 일하던 동무가 <미산봉>호를 소개한 신문을 들고와서 월선이가 처녀때 무슨 배가 오늘 까지도 혁신을 일으키고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뻐하더군요. 그 기사를 읽고나니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찢리웠어요. 솔직한 말로 저는 <미산봉>호를 못던 <100일전투>의 그 나날 눈앞의 성과를 이룩하려는 조급한 공명심에 사로잡혀 들쭉였을 뿐 배의 앞날인 오늘에 대해서까진 생각못했습니다. 자기가 맡아 수행하는 일거일동이 내 나라, 내 조국의 먼 미래까지도 속속들이 내다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뜻을 실현해나가는 성스럽고 책임적인 걸음이라는것을 자각못했었습니다. 이렇듯 미숙한 제 인간됨이 흠집이 생기게 했던것입니다.》

가늘게 떨려나오는 월선의 어조에서는 관록있는 선박설계가라기보다 부서책임자나 동무들 앞에서 제 잘못을 터놓으며 용서를 비는 단발머리처녀와 같은 순진함이 느껴졌다. 모두가 저으기 감심한듯 숙연한 정적이 흐르는속에 월선의 눈길은 신홍규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듯했다.

(꺾어서 해놓은 일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망각되거나 종식되지 않고 수시로 맞닥들게 되는가보군요. 무궁번성할 조국의 미래와 잇닿은 당의 령도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받들어나가자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주춧돌을 이루는 그 길에서만 부끄러움없는 참다운 인생이 있다고 봅니다!)

월선은 하구많은 뜨거운 당부가 어린듯싶은 눈으로 신홍규를 바라보고나서 나직한 목소리로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룡골에서 나타난 기포는 다음번 수리때가 아니라 오늘 제가 보는 앞에서 메꾸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앞으로 <미산봉>호의 성과를 그늘없는 떳떳한 마음으로 대할수 있을게 아닙니까.》

신홍규는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곧 보충용접을 위한 발판이 설치되고 용접선이 늘어졌다. 월선은 용접공을 앞세우고 지체없이 발판에 올랐다. 뒤이어 용접불꽃이 꽃보라처럼 날리었다. 백황색불빛을 받아 기민한 매 동작의 특징이 선명하게 두드러져보이는 월선의 모습을 신홍규는 생각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느닷없이 방금전에 감독원이 하던 말이 귀전에 다시 울리었다.

《며칠전 내가 동진조선소에 출장갔을 때 보았는데 특수한 구조형식의 아주 견고하고 쓸모있는 초대형유조선이 건조되고있었습니다. 저 우월선부소장이 심혈을 기울여 대담하게 설계한것이라더군

요.》

그 말이 강한 메아리를 일으키며 한창 젊음이 꽃피던 시절에 《미산봉》 호를 못던 월선이가 땅막에 한가득 비쳐들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월선은 그때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에 비할 때 말로는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산다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앞날보다 오늘의 자그마한 성과에만 이끌려 돌아가며 만족해하던 자기가 때이르게 곁늘어보이었다. 동시에 스스로의 자각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량심의 뜨거운 당부를 절감케 하였다. 신흥규의 눈에는 부두의 관벽에 서있는 물탑으로부터 산악같은 웅장한 땡동공장이며 물고기건조장 등 부두의 모든것이 새로운 뜻

을 담고 비껴들며 전 세대들의 자랑찬 행로에 뒤이어 보다 휘황한 미래의 주춧돌을 마련해가야 할 자기들의 신성한 사명이 재삼 엄숙히 느껴졌다.

...드디어 《미산봉》 호는 다시 바다에 띄워졌다.

어장으로 떠나는 신흥규들을 바래주는 사람들속에는 우월선이기도 끼여있었다.

우렁찬 배고동소리와 함께 《미산봉》 호의 육중한 선체가 부두를 떠났다.

갑판우에 선 신흥규는 뒤를 자주 돌아보았다. 자기들을 향해 손을 짓는 우월선의 자태는 시야에서 차츰 멀어져갔으나 그 모습은 이미 지나온것보다 가야 할 길이 더 먼 배와 함께 있었다.

## 나는 지금 태천땅에 서있다 외 1편

김휘조

물길쪽에 측량기를 세우고  
나는 지금 태천땅에 서있다  
동녘엔 불그레  
노을이 일어서는데  
나는 본다 측량기의 눈금을 돌리며  
살진 품을 벌리는 논배미  
피줄처럼 물길이 뻗는것을

나는 본다 이 벌을 찾으셨던 장군님  
바람에 펄럭이던 그 옷자락을  
아득한 한드레벌을 가리키시며  
환하게 지으시던 그 미소  
저 노을빛에 어러오는듯

어디냐, 우리를 잘살게 하려  
여기 자주 오신다고  
그 말씀에 푸른 나무잎을 흔들던 길굽이는  
그이의 발걸음따라  
새벽이슬 떨어지던 풀섶은 어디냐

긴긴 세월이 남긴 주름살같은  
두렁길을 곧게 퍼자고  
꽤기농사 이제는 끝장내자고  
온 나라 기계군단들을 불러주시던 모습  
하늘 맞닿은 벌가득 어러오는곳이어

나는 본다 기름진 흙밭을 일으키는  
저 불도젤앞에 번쩍이는 구호-  
《일심단결》

그렇다, 그이의 두리에 그이 가르침따라  
나아가는 일심단결의 발걸음소리  
이 겨울 눈덮인 언땅을 녹인다  
이 겨울 이 벌엔 봄바람이 터진다

내 귀엔 들린다 씨원씨원 펼쳐진 땅에  
부푼 봄씨앗이 떨어지는 소리  
우적우적 곡식이 키를 뽑는 소리  
그 사랑이 이삭으로 설레는 소리

아, 이 땅에 오고오는 열매 탐스런 가을이어  
너는 그이의 사랑  
그 열매를 안고  
땅이 무거워지고 땅이 키솟구는  
너는 그이의 사랑

가슴 별도로 그 가을을 안아보며  
나는 지금 태천땅에 서있다  
이 벌이 생겨 수수천년이언만  
이제 소리치며 다시 태어나  
이제 해해년년  
이삭의 황금물결을 쏟아놓을 고장이여

나에겐 벌써 생각되누나, 이 태천땅이  
세상우에 높이 일떠선  
강성대국의 한 구역으로  
세상에 부럼없을  
락원의 한 구역으로  
나는 지금 그이의 크나큰 뜻이 어린  
태천땅에 서있다

## 장산리라 오리골에

그 옛날 이야기가 여기에 있소

동쪽으로 오리

서쪽으로 오리

오리지경 어디나 울망줄망

널려있는 논뚝기도 오십개여서

그 이름도 오리골이라고

가난서린 이야기가 눈물로 배였소

날아가는 구름에도

불달린 가물철이면

거북등처럼 툭툭 터지던 논배미들

가을날 쪽정이를 내밀던 그 땅마저

모두 제 땅이라고

골안에선 제가 제일이라고

한알도 못다친다 개화장 휘둘러

농군들 등을 치던 지주놈의 이야기...

어허, 하지만 우리 세상

좋은 세상이 와서

철철 령넘어온 물줄기 마른 땅을 적시며

흉년시름 가난시름 다 씻어주더니

해마다 누런이삭 이랑을 메우더니

오늘은 또 보오

령넘어온 불도젤대렬을 보오

와롱와롱 우뢰소리 골안을 깨우며

우불구불 두렁들을 다 갈아엎소

울망줄망 논배미가 하나로 되오

하나로 되오, 넓은 벌이 하늘가에 닿았소

이제 기계화의 고동소리 더 높고

시원히 열린 저 포장길로

쌀가득 웃음가득 기쁨이 가득

집집의 문을 열며 찾아들리니...

어허, 만일 그 옛날 지주놈이 우릴 본다면

두눈이 뒤집혀 말하겠구려

장산리라 오리골에

오늘은 농군들이

하늘아래 제일이라고

아무렴 우리 장군님 품에서야

우리모두 제일 잘산다고